

호남학 산책

풍경의 기억

다시 보는 호남의 실학



인사말

**우리 겨레, 우리 고장의 사상문화,
생활 지혜를 밝히는 글빛 향내를 배달합니다.**

호남학 산책은 호남권 한국학연구 활성화와 호남인 역사문화역량을 고취하여 호남학 도약의 산실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대중화 사업입니다.

“우리 겨레, 우리 고장의 사상문화, 생활 지혜를 밝히는 글빛 향내를 배달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호남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운영하며 지금까지 300여 편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동안 메일링 서비스로 제공되던 호남학 산책을 소책자로 발간하여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새롭게 기획되었습니다.

올해의 소책자에는 [풍경의 기억](고석규)을 비롯하여 [고문서와 옛 편지](김기림), [명시 초대석](박명희), [문화재창](김희태), [불가별전](이계표), [맛기행](김준), [옛 그림 이야기](김소영)의 주제 중에서 발췌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모두 호남학 대중화에 디딤돌을 놓아준 소중한 글들입니다. 협조해 주신 필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한국학의 진흥을 위해 앞으로도 새로운 기획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장 천득염

책을 내면서

다시 보는 호남의 실학 - 지방의 경계를 넘다.

‘영남실학’이니 ‘호서실학’이니 하는 말은 과문한 탓인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데 유독 ‘호남실학’은 여기저기서 거론되고 있었다. 호남의 실학자로는 순창의 신경준(申景濬, 1712-1781), 장흥의 위백규(魏伯珪, 1727-1798), 고창의 황윤석(黃胤錫, 1729-1791), 화순의 하백원(河百源, 1781-1844) 등을 꼽고 있다. 그래서 관련 인물들을 차근차근 살펴 보았다. 그러면서 새삼 새로운 공부를 많이 했다. 이 책은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뒤늦게나마 알게 된 ‘호남실학’의 새로운 면모에 대해 알리고자 그동안 「호남학 산책」, 「풍경의 기억」에 썼던 몇 편의 글들을 수정 보완해 구성하였다.

우리 역사에서 ‘실학’이라고 하면 이미 고유명사가 되어 있다. 조선 후기에 새로이 나타나는 사상 경향을 말한다. 18세기 사회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현실 문제에 대응하여 이를 개혁해 보려는 사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사상 경향을 통상 ‘실학’이라 부른다. 그래서 ‘실학’ 하면 누구나 조선 후기의 실학을 떠올린다. 그만큼 새로운 사상 경향에 실학적 특성이 두드러졌으며, 역사적 의미 또한 다른 시기에 비해 훨씬 컸기 때문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실학의 유파를 크게 근기(近畿)남인실학과와 북학과, 소론실학과로 나누고 있다. 각 학파의 대표자가 바로 성호 이익과 연암 박지원, 하곡 정제두이다. 그런데 호남에서는 당당히 ‘호남실학’을 말한다. 호남실학은 반계 유형원으로부터 연원하는데, 호남실학의 선구자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동복의 나경적(羅景績, 1690-1762)과 앞서 거론한 네 분의 실학자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신경준, 위백규, 황윤석은 ‘호남 삼천

재’라고 일컬어지는 탁월한 실학자였다. 그래서 필자는 여기서 ‘호남실학’이란 유파를 새로 설정하고 그 특징을 분명히 찾아보고자 하였다.

종래 실학이라 하면 “주자가 주창한 성리학 일존주의의 틀을 깨고 유학의 기본인 민본과 위민을 재성찰하여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처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18세기 전후의 개혁사상”을 일컫는다. 유형원, 이익, 정약용, 최한기로 이어지는 학자들이 대표적이며, 당시의 사회모순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새롭게 나타난 실사구시적 학문 자세와 경제치용적 접근이 주요한 특징을 이룬다고 하였다.

그런데 사회개혁의 개념과는 별개로 17세기 이후 서양학문과의 접촉을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학문 경향이 있었다. 서양 과학을 거부감 없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교양으로 꼭 갖추어야 할 지식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지식인 사회에서 서양 과학은 경학적 교양지식이 되고 있었다. 이처럼 서양 문물에 대한 관심은 유행이라 할 정도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학계에서는 실증과 고증을 중시하는 백과전서적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였고, 천문학과 수학, 지리,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갔다. 이는 서울에만 그치는 것도 아니었다. 호남 4대 실학자 역시 모두 당시의 유행에 따라 시대적 흐름에 조응하며 호남실학의 학풍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위백규는

“어려서부터 천문(天文)·지리·율력(律曆)·복서(卜筮)·병법(兵法)·산학(算學)과 같은 부류를 널리 공부하였다. 온갖 장인(匠人)의 기에도 모두 눈으로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터득하였다. … 직접 선기옥형(璇璣玉衡)을 제작했는데 도수(度數)가 어긋나지 않았다.”

라 하였고, 하백원을 기린 묘갈명 등에서도

“해박한 견문으로 고금의 역사를 꿰뚫었네/ 천지의 운세/ 별자리의 궤도/
후종과 수차/ 율력(律曆)과 산수/ 전예(篆隸)와 도장까지 모두 두루 갖추
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칼을 대기만 하면 잘려나갔네”

라 하여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역사는 물론, 천문학, 역법, 수학, 지리 및 지도 등과 더불어
후종(시계)과 수차 등의 과학적 발명 등에 폭넓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렇듯 서양과학이 전래되면서 궁벽한 시골 선비들도 새로운 학문을
수용하려는 욕구와 집념만 있으면, 지방의 경계를 넘어 이렇듯 과학지식
을 갖추 수 있었다. 특히 하백원은 과학분야 연구에 두각을 나타낸 “실학
최후 시기의 학자”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가학을 통해 이어지
며 호남실학 내지 호남 지식인의 맥을 잇게 하였다.

또 윤봉구의 세계지도에 대한 관심, 황윤석의 유서학적 지식 등이 위백
규의 『환영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런 경향은 신경준의 『여지도
(輿地考)』에도 잘 나타났다. 훗날 하백원의 『만국전도』 등을 통해 이어졌
다. 그런 맥락이 호남 실학의 전통을 이루었다.

이런 경향은 기존의 실학개념과는 다르다. 아직 마땅히 분류할 다른 용
어가 없어 실학자로 분류했지만, 실학 내에서도 경향을 달리하는 하나의
흐름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책은 호남실학의 일부를 담은 소책자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이 분
야 연구가 더 천착되어 호남실학의 정체를 보다 분명히 하고 그 의미도 더
널리 전파하는 일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이런 글을 계속 쓸 수 있도록 기
회를 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2년 10월

고석규

풍경의 기억 다시 보는 호남의 실학

조선시대 3대 시계제작자, 석당 나경적	9
여암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와 한글	19
여암 신경준의 ‘후마한(後馬韓)설’과 『마한역사문화권』	36
호남의 천재, 존재 위백규와 삼벽(三僻)	55
세계를 담은 존재 위백규의 『환영지』	68
규남 하백원과 진양 하씨가의 가학	79
조선의 마지막 실학자, 규남 하백원의 과학적 성취들	97



조선시대 3대 시계제작자, 석당 나경적

화순 야사(野沙) 사람 나경적! 그는 누구인가?

『이재난고(頤齋亂藁)』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던 조선후기 학자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이 이렇게 말했다.

“대개 이 자명종은 처음 서양에서 나왔으나, … (이를) 본떠서 만들 수 있는 자는 도성에서는 최천약(崔天若)과 홍수해(洪壽海)이고, 호남에서는 동복현(同福縣) 사람 나경훈(羅景薰) 뿐이다.”¹⁾

전국에 알려져 있는 자명종 제작자 세 사람 중 하나로 동복의 나경훈을 꼽았다. 나경훈은 나경적(羅景績, 1690-1762)의 다른 이름이다. 나경적! 아직까지는 꽤 생소한 이름이다. 근래에 들어 호남 실학의 선구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²⁾

나경적의 본관은 금성(錦城), 자는 중집(仲集), 호는 석당(石塘)이다. 나재우(羅載祐)의 아들로 태어났다. 무안읍 교촌리 부근에 살다가 동복현 야사리(현재 전남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로 옮겨왔다. 나재홍(羅載弘)에게 입양되었다.

1) 『頤齋遺稿』 권1, 「自鳴鐘」. 당시 시계 제작은 관상감, 그리고 동래를 중심으로 활발했다. 이를 각각 최천약(崔天若, 1724-1776)과 홍수해가 대표한다. 최천약은 숙종 대 이미 각종 천문기계를 제작하였으며, 이후 영조의 명령을 받들어 독자적으로 자명종을 제작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친 인물이다. 홍수해는 기장(機張) 출신으로 왜관에서 과학기술을 익히고 활동하였다. 한편, 호남도 이들 지역과 어께를 나란히 했다. 그 중심인물이 바로 나경적이었다. 순수 민간에서 활동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2) 나경적의 생애와 선기옥형의 제작과정 등에 대하여는 안동교, 「석당 나경적의 생애와 실학활동」(『석당 나경적선생 학술대회 자료집』, (사)한국학호남진흥원, 2017)에 상세하다.

호남 실학의 선구자로 명물도수(名物度數)의 학문에 관심이 많아 자명종(自鳴鐘)·자용침(自春砧, 방아)·자전마(自轉磨, 맷돌)·자전수차(自轉水車) 등을 제작하여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 제작 방법은 전해지지 않으나, 중국 제도의 결함을 보충하고 서양 방법을 참고하여 모방이 아닌 창조적 발상을 통해 제작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집으로 『석당유고(石塘遺稿)』가 있으나 아쉽게 전해지지 않는다.

이처럼 실학적 지식을 실생활에 구현한 실천적 학자였지만 은거하여 문힐 뻔했다. 그런 그가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저 멀리 중국에까지 명성을 드높이게 되는 계기는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1731-1783)과의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그 만남에서 그는 ‘철제(鐵製) 혼천의’를 만들게 된다. 나경적이 그 이름을 남기게 된 이른바 ‘철제 혼천의’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

나주 금성관에서 ‘철제 혼천의’를 만든다.

‘선기옥형’ 또는 ‘혼천의’라고도 불렀던 혼천시계는 천구(天球)의 입체 모형인 혼의(渾儀)나 혼상(渾象) 등의 천문의기에 시계장치를 결합하여 천체의 운동을 재현하며 시간을 알리는 장치였다. 조선에서는 지식인들의 창의성이 집합되어 훌륭한 혼천시계들을 탄생시켰다. 그중에서 나경적과 홍대용이 함께 만든 ‘철제 혼천의’가 있고, 이를 토대로 홍대용이 주도하여 만든 ‘통천의(統天儀)’가 있어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중국에서는 오히려 맥이 끊긴 혼천시계는 조선에서 부활하여 꽃을 피웠다.³⁾ 혼천시계는 세종대 수운(水運) 혼천에서 이민철의 수격식

3) 韓永浩·南文鉉·李秀雄, 「朝鮮의 天文時計 연구-水激式 渾天時計」, 『한국사연구』113, 한국사연구회, 2001.6), 58쪽.

(水激式) 혼천시계를 거쳐 송이영의 추동식(鍾動式) 혼천시계로 진화하였다.⁴⁾ 그중에서 송이영의 혼천시계가 특히 유명하다.

나경적의 ‘철제 혼천의’는 1762년(영조 38)에 완성되었다.⁵⁾ 18세기 중반 이때는 서양의 문물이 많이 들어와 조선 지식인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천문학과 시계기술의 영향이 컸다. 홍대용의 ‘통천의’는 이른바 서법(西法)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하나의 주요한 예시를 보여주었다.

먼저 나경적(이하 석당)이 홍대용을 만나 ‘철제 혼천의’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자.⁶⁾ 석당이 이미 일흔의 나이로 동복(同福) 물염정(勿染亭) 아래에 은거하여 있을 때, 29세의 젊은 홍대용이 나주목사로 부임한 아버지 홍력(洪櫟)를 만나러 나주에 왔었다. 이때 그는 석당과 그 제자인 안처인(安處仁)이 혼천시계의 제조와 운용의 이치를 잘 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가 만났다. 그 자리에서 석당은 손수 만든 후종(候鍾)을 보여 주었다. 이를 보고 홍대용은 “서양 법에 유래하였는데, 제작이 정밀하여 하늘의 신묘한 공을 빼앗을 만하다”고 하면서 그 재주와 고안의 교묘함을 신기하게 여겨 몇 시간 동안을 더붙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석당은 이미 자명종을 여럿 만든 경험이 있었다. 김시찬(金時燦)의 장성 집에 있던 강철로 만든 자명종 또한 석당이 만든 것이었다.⁷⁾ 다만 그는 집이 가난하여 제작비를 마련할 수 없어 그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었다.

4) 민병희·함선영·최고은, 「나경적 자명종의 개념과 그 구조」(『석당 나경적선생 학술대회 자료집』, (사)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5) 통천의에 대하여는 한영호, 「籠水閣 天文時計」(『역사학보』177, 2003) 참조.

6) 이 부분은 『湛軒書』外集 卷6, 「籠水閣儀器志」, 「統天儀」; 『湛軒書』外集 3卷, 「杭傳尺牘」, 「乾淨衡筆談續」 중 24일자 「籠水閣渾天儀記事」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7) 『頤齋亂藁』卷3

홍대용도 혼천의 제도에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그 요령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석당과 의기투합하여 함께 완성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이듬해(1760년) 첫여름에 석당은 나주 금성관에 가서 시계 만드는 일을 시작하였다. 재력을 많이 들여 손재주 있는 장인(匠人)들을 불러들여 작업을 재촉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제품을 만들었으나 거칠고 커서 다시 철제 기구에 맞게 작게 만들기로 하였다.⁸⁾ 그후 두 해가 지나서 대략 이루어 놓았다. 이때 만든 것이 ‘철제 혼천의’로 여기까지는 주로 석당이 주도하여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⁹⁾

홍대용의 ‘통천의’로 이어지다

이렇게 만들었지만, 도수(度數)에 자못 착오가 있었고 여전히 기물이 너무 거칠고 크며 혹 쓸데없이 번쇄한 것도 있었다. 이에 번잡한 것을 버리고 간이(簡易)하게 하여 힘써 천상(天象)에 맞게 하였고, 또 후종(候鍾)의 제도를 취하여 톱니바퀴가 서로 돌아 밤낮으로 하늘을 따라 운전함에 각각 그 도수를 얻게 하였다. 또 한 해가 지나서야 제작을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통천의였다. 홍대용은 이 통천의를 천안 수촌의 집에 농수각을 지어 옮겨 보존, 활용하였다.

다만 아쉽게도 석당은 통천의의 완성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1762년 6월에 생을 마감하였다. 하지만, 이 일을 하는데 홍대용이 말하듯이 “명물(名物)과 도수(度數)에 관한 것은 대개 석당 나공(羅公)의 뜻에서 나왔고, 제작의 교묘한 기술은 안(처인)씨의 손에서 많이 이

8) 「홍대용이 하정철에게 답하는 편지」(경진 1762년 6월 3일), 규남박물관 소장.

9) 한영호, 「籠水閣 天文時計」(『역사학보』177, 2003), 26쪽.

뤼졌다”¹⁰⁾고 하였듯이, 석당이 없었으면 아예 일을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서로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면서 각자의 장기를 발휘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개 나경적과 안처인은 담헌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 기재를 발휘할 수 없었으며, 담헌은 두 사람을 얻지 못했으면 그 거대한 제작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¹¹⁾라고 한 것처럼 이들의 인연은 통천의라는 또 하나의 명물을 탄생시킨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옛 제도에 기반하여 서법을 참작하다.

통천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봤던 김이안(金履安)이 직접 농수각에 올라가 보고 나서 말하기를 “그 제조된 것을 보니 혼천의의 구제(舊制)를 토대로, 서양(西洋)의 설을 참용(參用)한 것”¹²⁾이라 하였다. 담헌은 “혼의의 옛 제도에 나아가 번다함을 줄여 서법과 서로 통할[會通西法] 수 있도록 의기 하나를 창립하여 통천의(統天儀)라 이름하였다”¹³⁾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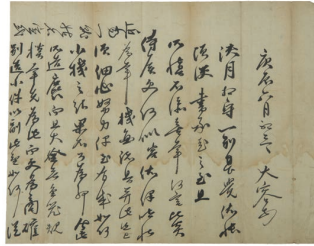


그림 1 홍대용이 하정철에게 답하는 편지 1(경진 1762년 6월 3일). 규남박물관 제공. 이때 만든 선기옥형이 거칠고 커서 이를 보다 작게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다. 수신인은 하정철이지만 내용은 석당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하정철은 석당의 막역한 친구인 하영철의 아들이자 규남 하백원의 아버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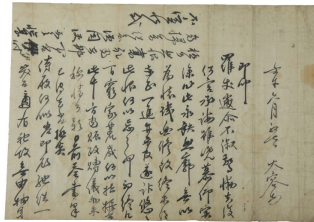


그림 2 홍대용이 하정철에게 답하는 편지 2(임오 1762년 6월 7일). 규남박물관 제공. 석당의 부음(訃音)을 듣고, 끝내 선기옥형의 개수를 마무리하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담았다.

10) 『湛軒書』外集 卷3, 「杭傳尺牘」, 「乾淨衡筆談 續」 중 24일자 「籠水閣渾天儀記事」

11) 『湛軒書』外集 卷3, 「杭傳尺牘」, 「乾淨衡筆談 續」 중 27일자 서찰

12) 『湛軒書』外集 附錄 「愛吾廬題詠」, 「籠水閣記」(金履安)

13) 『湛軒書』外集 卷6 「籠水閣儀器志」 「統天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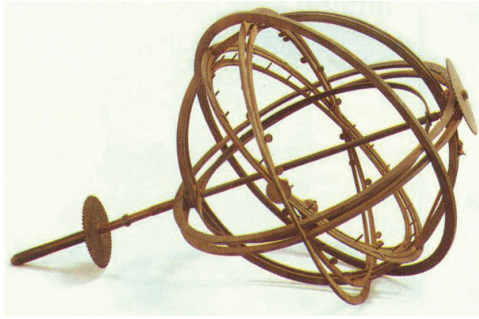


사진 1 홍대용의 농수각 유물인데, 나경적이 주로 만든 ‘철제 혼천의’로 추정한다. 송실대학교 박물관 소장. 출처 우리역사넷

고 하였다. 이는 단지 서법을 무조건 수용한 것이 아니라, 옛 제도를 고쳐 서법과 통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서법만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변화였다. 담헌은 또 석당의 제문(祭文)에 “선기옥형에 근본하여 의혹들을 없애고 서양의 방법을 참작하여, 그 신기함을 탐구하였다네”¹⁴⁾라 하였는데, 여기서 “서양의 방법을 참작하여”[參之西法]라는 표현은 앞서 본 “회통서법”과 통하는 말이다.

교양으로 자리 잡은 서양과학

동북이라는 외진 곳에 은거해 살던 나경적이 어떻게 서법에 접해 자명종의 제조와 운용의 이치를 잘 꿰고 있을 수 있었을까? 더구나 전국 3대 시계제작자에까지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당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지식인 사회에서 서양 과학이 경학적 교양지식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서양 과학을 거부감

14) 『湛軒書』內集 卷4, 「祭羅石塘文」

없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교양으로 꼭 갖추어야 할 지식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영조시대 말부터 천문학과 수학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학습하고 논의하는 지식인들이 다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흐름을 증명한다.¹⁵⁾

석당이 3대 시계제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 담헌과 함께 통천의로 이어지는 철제 혼천의라는 또 다른 혼천시계를 남기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 덕분이었다. 지방의 선비도 의지만 있으면 이렇듯 과학지식을 갖추 수 있었다. 이는 선기옥형, 즉 혼천시계가 왕정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교지식인이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상식이며 관심사였고, 서양의 과학이 전래되면서 그 관심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었다. 이는 자연학의 독자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법칙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변화였다.

물염정 사람들

남국(南國)의 기이한 선비로서 석당이 이런 지식을 갖추게 된 것은 결코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했다. 여기에는 물염정 사람들과의 관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석당이 살았던 동북 물염정(勿染亭)¹⁶⁾ 아래 마을은 현 전남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野沙里)로, 호남의 마지막 실학자인 규남 하백원((河百源, 1781-1844)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호남 실학의 본거지였다. 그런 점에서 석당의 지식 형성 및 실천의 과정에는 하백원가와

15) 전용훈, 「정조시대 다시보기-천문학사의 관점에서」(『역사비평』 2016.5., 역사비평사), 199-200쪽.

16) 물염정은 송정순(宋庭筍, 1521-1584)이 세웠고 외손인 나무송(羅茂松, 1577-1653)이 물려받았다.

의 교류가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생전에 같은 마을에 살던 하영청(河永淸, 1697-1771)과 실학을 논하며 가깝게 지냈다. 석당은 하영청의 병암정사(屏巖精舍)에 자주 들러 시문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후종(候鍾), 기형혼천의(璣衡渾天儀), 자전수차(自轉水車) 등을 제작할 때 함께 하였다. 하영청은 하백원의 증조부로, 호는 병암(屏巖)이었다. 아들 하정철(河廷喆, 1727-1771) 역시 석당과 하영청이 혼천의를 제작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홍대용과도 친교를 맺었다. 이런 연유로 그의 실학은 하백원에게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적벽삼유록(赤壁三遊錄)』을 보면 1742년에 나경적, 하영청, 정민 등 62명이 유람을 같이 하고 시를 읊었다고 한다. 이때 함께 했던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유관계를 보면, 김창흠(金昌翕)·조정만(趙正萬)과 시를 주고받았고, 정민하·권진응·권제응 등과도 친분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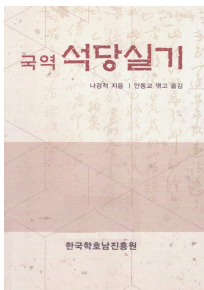


사진 2 나경적 알리기에 큰 역할을 한 『국역 석당실기』(안동교 역고 옮김, 2017. 10. 27.)

제자로는 안처인·염영서(廉永瑞) 등이 있었다. 안처인은 나주 금성관에서 철제 혼천의를 만들 때 제작 기술에 장점을 발휘하였고, 석당이 죽은 후에 담헌과 통천의를 마무리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또 한 사람의 제자 염영서는 나주에서 성장했고 동북으로 이거하여 석당의 영향을 받았다. 석당이 나주에서 철제 혼천의를 만들 때도 동참하여 그의 과학기술을 발휘했다. 1772년에 또 박찬선(朴燦璿)·박찬영(朴燦瑛) 종형제가 맞이하여 흥양(지금의 고흥) 호산(虎山)으로



사진 3 규남박물관 전시실 모습. 규남박물관 제공. “하늘을 품은 그림, 천문도”를 주제로 한 전시물들이 석당을 기리는 듯하여 감흥이 새롭다.

가서 몇 년을 머무르며 윤종 두 개를 제작했다.¹⁷⁾

『금성나씨대동보』에는 석당의 큰아들 나심좌(羅審佐, 1710-1779)가 필사본으로 『인재집(忍齋集)』을 남겼다고 하고, 증손자 나상근(羅祥根, 1777-1850)은 자명종과 자전수차를 숙수(續修)하여 인정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석당의 실학은 이용후생의 가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복원하여 그 과학정신을 이어가자

석당 나경적에 대하여는 홍대용을 통해 부분적으로 소개되다가 근래

17) 『頤齋亂藁』卷4「輪鐘記」

에 관심들이 높아졌다. 호남의 실학자로 네 명의 대가를 꼽는다. 전북 순창의 신경준(申景濬), 전남 장흥의 위백규(魏伯珪), 전북 고창의 황윤석, 그리고 전남 화순의 하백원이 거기에 속한다. 근래 여기에 덧붙여야 할 인물로 석당 나경적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2017년 규남박물관에서 자료집으로 『화순 야사사람 석당 나경적 - 글과 자료모음』을 펴냈고, 이어 2017년 10월 안동교 선생의 노력으로 『국역 석당실기』가 발간되었다. 이를 기념하여 “실학의 선구자, 석당 나경적 선생 학술대회”도 열었다. 이로써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2018 11월 10일에는 나간채 교수의 수고로 ‘화순실학기념사업회’가 출범하여 석당 나경적과 규남 하백원을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해 가기로 했다. 이후 여러 지상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었다.

송이영의 혼천시계는 동아시아의 혼천의 제작 전통과 서양의 자명종 기계 장치가 융합된 창조물이었다. 이는 석당의 ‘철제 혼천의’ 그리고 이어지는 ‘통천의’를 통해 계속 발전하였다. 그 중 송이영의 혼천시계는 우리나라 과학문화재 중에서 세계 과학사학계에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영국의 저명한 과학사학자인 니덤(J. Needham) 박사가 이를 “완벽하게 복원하여 세계 과학박물관에 전시하자”라고 하여 더욱 유명해졌다.¹⁸⁾

이렇듯 혼천시계는 동양의 전통과 서양의 기술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창작품이었다. 석당이 나주 금성관에서 만든 것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천문과학사의 소중한 유산인 이 혼천시계는 복원하여 전시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규남박물관이든 나주 금성관이든 연고 있는 곳에 복원하여 과학 전담의 역할도 알리고 그 전통의 맥도 이어지기를 바란다.

18) 니덤(J. Needham), 『중국의 과학과 문명』(1965) 제4권 「기계공학편」; 문종양, 『우리역사 과학기행』(동아시아, 2006), 307쪽.

여암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와 한글

호남의 실학자, 여암(旅菴) 신경준(申景濬)

‘한글’을 뜻하는 표현으로는 훈민정음 또는 정음, 그리고 언서, 언문, 향담(鄕談), 언자 등 다양했다. 이런 한글의 가치를 알고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그 맥을 이어준 인물이 바로 신경준이다. 신경준은 누구인가?¹⁹⁾

신경준의 본관은 고령, 자는 순민(舜民), 호는 여암이다. 그는 신숙주(申叔舟)의 동생 귀래정(歸來亭) 말주(末舟, 1429-1503)의 10세손인 진사 퇴(洙)의 아들로 순창 남산대(南山臺) 마을에서 1712년 4월 15일 태어났다. 어머니는 한산(韓山) 이씨(李氏) 의홍(儀鴻)의 딸이다. 신말주는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나자 벼슬을 버리고 순창으로 내려왔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순창은 신말주 후손들의 세거지가 되었다. 한편 신경준은 어렸을 때 서울, 강화에서 수학하였고, 12살 때 순창으로 돌아온 이후 15년 동안 거주하였다. 26세 때 이주하여 소사, 직산 등을 거치며 살다가 33세 때인 1744년 다시 순창으로 돌아와 10년간 머물렀다. 41세 때인



그림 1 신경준 초상화(순창군 공식블로그 「순창이 참 좋다」에서 인용), 여암 신경준 탄생 3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2012년 10월 5일 순창군민회관에서 열렸다.

19) 이 부분은 고동환, 「旅菴 申景濬의 학문과 사상」(『지방사와 지방문화』 6(2), 2003.11, 역사문화학회); 유기상, 『조선후기 실학자의 풍수사상』(경인문화사, 2017) 중 제6장 「희세의 통유, 여암 신경준의 삼교회통과 풍수사상」 등을 참조하였다.

1750년에 『훈민정음운해』를 저술하였다. 43세(1754, 영조 30)에 증광향시에 급제하면서부터 관직에 나아갔다. 이때 시장관(試掌官)이었던 홍양호와 만나 인연을 맺었다. 그는 향시 합격 이전에 이미 호남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후 그는 줄곧 호남을 대표하는 학자로 꼽혔다. 그러나 관직에 나가서는 유배를 당하는 등 순탄치 않은 생활을 보냈다. 그러다가 15년만인 1769년(영조 45)에 고향인 순창으로 돌아왔다. 그 후 그가 지은 『강계지』를 본 영의정 홍봉한이 추천하여 비변사 낭청으로 차출되어 『동국문헌비고』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는 그밖의 여러 편찬사업에도 참여하였는데, 그중에서 『동국문헌비고』 편찬이 제일 컸다. 영조가

“그렇다. 『동국문헌비고』의 근본은 신경준이다. 처음에 『강역지』로 해서 『동국문헌비고』를 만들게 되었으니, 그 공이 맨 앞에 있다.”²⁰⁾

고 하여 “가장 공이 많은 신하”로 지목하였다.

68세 때인 1779년(정조 3)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를 마지막으로 26년간의 서울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70세인 1781년(동 5) 5월 21일 순창의 옛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신경준에 대한 평가

일찍이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전서』를 출간했던 신조선사(新朝鮮社)에서 1939년 9월 홍대용의 『담헌서』를 인행하였고 이어서 신경준의

20) 『승정원일기』 영조 46년(1770) 윤5월 16일. 박광용, 『영조시대를 만든 사람들』(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6), 109쪽.

『여암전서(旅庵全書)』도 간행하였다. 이를 보도한 당시 「동아일보」의 기사 「여암전서(旅庵全書)의 출현」에서는 신경준에 대하여

“일부 인사(人士)는 장흥의 존재 위백규와 흥해의 이재 황윤석과 동북의 규남(속칭 石城) 하백원과 함께 호남 사대학자(四大學者)로 일컬으나 이는 지방적 속평(俗評)이오, 선생 실학의 역사적, 문화적 지위는 실로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으로 더불어 조선 근고(近古)의 삼대학자(三大學者)이다. 동시에 성호의 웅사(雄肆)와 다산의 정박(精博)을 역사적으로 연결시킨 기위적(奇偉的) 존재이다.”²¹⁾

라 하였고, 또 같은 신문의 「이땅 실학계(實學界)의 결정(結晶) 신여암(申旅庵) 유서(遺著) 간행(刊行)」 기사에서 다시

“그는 조선 근고 실학파의 거성으로 위로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의 계통을 잇고 아래로 담헌 홍대용, 다산 정약용의 문호를 열어주니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위대한 학자였다.”²²⁾

라 평가하였다. 그러니까 신경준은 호남의 4대 실학자에 속함은 물론, 이를 넘어 성호 이익과 다산 정약용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조선 근고의 삼대학자로 꼽을 만하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의 학풍에 대하여는

“부문허례(浮文虛禮)와 당쟁벌열(黨爭閥閥)만을 숭상한 당시 양반사

21) 「東亞日報」, 1939.9.22, 조간 1면 중합, 「旅庵全書의 出現」

22) 「東亞日報」, 1939.9.22, 조간 2면 경제, 「이땅 實學界의 結晶 申旅庵 遺著刊行」

회를 개탄히 여겨 학문의 진정한 목적을 실용·실학에 두었다.”²³⁾

라 하였고, 그의 학문의 주지(主旨)는 “과학적 사상과 인생의 실용”이었다고 하여 실학적 면모를 강조하였다.

그의 학문은 다각적이지만 그중에서도 『강계지』,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산수고』, 『사연고(四沿考)』 등의 저술을 펴내 조선사지학(朝鮮史地學), 즉 역사와 지리에서 두드러졌고, 지도학가(地圖學家)로서도 업적을 남겼다. 특히 어문학연구에도 큰 자취를 남겨 그의 창도로 정동유, 윤광수(尹光垂), 유희 등이 배출되었다. 그의 『훈민정음운해』는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의 『경세훈민정음도설(經世訓民正音圖說)』과 함께 15세기부터 18세기말에 이르는 조선조 어문학연구의 학맥을 잇는 위치에 있었다.²⁴⁾

이처럼 그는 국토, 국사, 국어연구에서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학의 토대를 확립하는데 주춧돌이 되었다.²⁵⁾ 그러나 “일세의 빈척(攢斥)과 일생의 불우에 몸을 바쳤다”²⁶⁾고 하듯이 업적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는 못했다.

신경준은 교유를 신중히 하여 조정에 있는 지 20여 년 동안 권문세가에 발길을 가까이하지 않았으며, 조그마한 벼슬이 모두 임금의 선발을 거쳤다. 그러나 문학으로 깊이 교유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홍양호한 사람뿐이었다.²⁷⁾ 이런 인연으로 홍양호는 『여암유고』의 서문도 쓰고 또 묘갈명도 썼다. 거기서 말하기를

23) 「東亞日報」, 1939.9.22, 조간 1면 중합, 「旅庵全書의 出現」

24) 김일,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와 그의 역학적 언어관」(『중국조선어문』, 2001(3), 2001.5, 김립성민족사무원위원회), 26쪽.

25) 고동환, 앞 글, 200쪽.

26) 「東亞日報」, 1939.9.22, 조간 1면 중합, 「旅庵全書의 出現」

27) 『旅庵遺稿』 권13, 附錄, 行狀[禮曹判書申獻求敬撰]

“신순민(申舜民)은 천하의 선비이다. 그의 학문은 통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의 재주는 큰일을 맡기에 충분하여 … 구류이교(九流二敎)를 두루 섭렵하였다. 천관(天官)·직방(職方)·성률(聲律)·의복(醫卜)의 학문과 역대 왕조의 헌장(憲章)이나 해외의 기이하고 희귀한 서적들, 괴팍스런 책 [海外奇僻之書]까지도 그 깊은 이치를 찾아내 그 요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²⁸⁾

라 하였다. 노장과 불교사상은 물론 전국시대의 유가, 도가, 음양가, 법가, 명가, 목가, 종횡가, 잡가, 농가 등 이른바 ‘이교구류’에 모두 능통한 학자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가히 류가 없는 광재(宏才, 발군의 큰 재주)이며 세상에 드문 통유(通儒)라 할만하다”²⁹⁾라고도 하였다. 실로 기이한 선비[信魁奇士]였다. 사승(師承) 관계가 없이 자득(自得)한 학문이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이단에 관용적이며 기술과 실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그의 학문은 18세기 사상사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³⁰⁾ 그의 학문적 특징으로는 무엇보다 엄박(淹博)³¹⁾, 해박(該博)³²⁾ 등을 꼽았다.

언어학자 신경준과 『훈민정음운해』

신경준은 그의 저서 『훈민정음운해』가 있어 언어학자로서 국어학계

28) 『旅菴遺稿』 권13, 墓碣銘, 墓碣銘[大提學洪良浩撰]

29) 『旅菴遺稿』 序, 旅菴遺稿序[洪良浩]

30) 고동환, 앞 글, 180쪽.

31) 『頤齋亂藁』 권11, 初六日庚申 “余曰 以南中文官言之 高低貴賤 通共七十餘人 見今生存 文學則李基敬 淹博則申景濬 若其孝友而兼有文詞者 安正言致宅是也”

32) 『頤齋亂藁』 권9, 1767년(영조 43) 丁亥 十二日壬申
“申(景濬)則能古文詞該博鮮比 在南中文官 蓋無與並者矣”

의 주목을 받았다. 1750년(영조 26)에 작성된 이 책은 운학서(韻學書)로서 『훈민정음』을 이어 유희의 『언문지』와 함께 조선 3대 국어학사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이 책은 정인보에 의해 1937년 활자화되면서 빛을 보았다.³³⁾

정인보는 해제에서 “이 책은 훈민정음 연구로서 기이하고 요묘하다”고 하면서 “사학(斯學)에 있어 그 중흥조(中興祖)로 추상(推尙)하여도 과할 것이 없다”라 하였다.³⁴⁾ 최현배도 “신경준은 음운학과 중국역학에 정통한 이로서 훈민정음에 대하여 음운학적 내지 역학적 설명을 시험한 것이 ‘훈민정음도해’이다. 그의 말한 바가 비록 이제 사람의 백분의 수공을 얻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의 제집학문[自家學]으로 향학적로작(學的勞作)은 확실히 한글갈[正音學]의 중흥사라 할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³⁵⁾

『훈민정음운해』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훈민정음을 표음문자 차원에서 고찰한 저술이다. 이 책은 훈민정음의 작용, 조직, 기원을 논하여 과학적인 한글 연구의 기틀을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훈민정음해례본』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전에 훈민정음의 주요 원리를 집필한 것 자체가 큰 업적이다.³⁶⁾

33) 이 책은 사본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조선어학회에서 간행한 『한글』 제5권 3호(1937.3)부터 제5권 11호(1937.12)에 걸쳐 김완근(金緩根) 씨 소장본을 저본으로 하여 “훈민정음운해”란 제목으로 활자화되었고, 정인보가 해제를 썼다. 1938년에 동 학회에서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1939년 『여암전서』가 간행되었을 때에도 수록되었다. 김완근씨 소장본은 지금 송실대 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987년에 동 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영인하였다. 기타 서울대, 연세대 도서관, 장서각 등에도 후사본(後寫本)이 있다. 伊藤英人, 「申景濬의 『韻解訓民正音』에 대하여」(『국어학』 25, 1995)

34) 김슬옹, 「신경준, 『운해훈민정음[邸井書]』의 정음 문자관」(『한말연구』 제39호, 한말연구학회, 2016.3), 36쪽.

35) 김일, 앞 글, 23쪽.

36) 김슬옹,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발달사 -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보급과 활용의 통합언어학적 연구』(역락, 2012), 594쪽.

『훈민정음운해(訓民正音韻解)』는 어떤 책인가?

『훈민정음운해』는 ‘훈민정음도해’ 또는 ‘운해훈민정음’ 등으로 불린다. 이 책은 「경세성음수도(經世聲音數圖)」, 「훈민정음도해(訓民正音圖解)」, 「운도(韻圖)」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훈민정음도해’ 부분이 양적으로 전체의 50.2%를 점하고 있고³⁷⁾ 또 중심을 이루고 있어 이 책을 ‘훈민정음도해’라 부름이 합당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³⁸⁾

이 책에 대해 국어학계에서는 한자운도(漢字韻圖) 작성이 이 책을 지은 목적이라 하면서 훈민정음을 한낱 한자음을 위한 발음기호의 준



사진 1 “나랏말싸미 등궐에 달아 …”로 시작하는 『세종어제훈민정음』의 서문을 건물 돌레에 새겨 넣은 전남도립도서관 모습

37) 김슬옹, 「신경준, 『운해훈민정음(邱井書)』의 정음 문자관」(『한말연구』 제39호, 한말연구학회, 2016.3), 43쪽.

38) 伊藤英人, 「申景濬의 『韻解訓民正音』에 대하여」(『국어학』 25, 1995), 293쪽.

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하기도 한다.³⁹⁾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⁴⁰⁾ “정음에 강절역(康節易)⁴¹⁾이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살펴서 … 정음으로도 충분히 한자음을 표기할 수 있음과 성음의 도를 밝힘이 저술 목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훈민정음도해’는 어쩌면 이 책의 본론인 동시에 본명에 해당하는지도 모른다”⁴²⁾라고도 하였다. 실제로 장서각본에는 책의 제목이 ‘훈민정음도해’로 되어 있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제목이 실제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암유고』에 수록된 ‘운해서’는 이 ‘훈민정음도해’에 붙인 ‘서(敍)’, 즉 「훈민정음도해서(訓民正音圖解敍)」와 내용이 같다. 따라서 이 ‘서’는 『훈민정음운해』의 진짜 서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을 ‘훈민정음도해’라 해도 하등 이상하지 않아 보인다.

「훈민정음도해서」에 보면,

39) 김슬옹, 앞 글, 37쪽. 한편, 훈민정음은 우리 글이지만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일부러 한자음을 제대로 읽기 위한 수단처럼 보이게 했다는 주장도 있다. 즉 한글의 창제는 중국의 북방민족들 사이에 새 국가를 건설하면 새 문자를 제정하는 전통이 있어 그 전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는데, 다만 명의 입장에서 조선이 새 문자를 제정한다고 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 이를 의식한 세종은 ‘새 문자’라는 점보다는 한자의 올바른 발음을 표음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해서 ‘훈민정음’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실제로는 ‘새 문자’인데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정음’이라 하여 한자의 표준음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라 강조하였다는 뜻이다. 그래서 <언해본>도 『월인석보』라는 불경에 첨부하여 공표함으로써 명의 간섭을 피해 가려 했다고 보기도 한다. 이택선, 「명(明)과 조선의 관계에서 본 한글의 창제 - 왜 훈민정음 <언해본>은 『월인석보』에 첨부되었는가?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54, 2020, 한국세계문화학회), 13-14쪽 참조.

40) 曹喜寧, 『旅菴 申景濤의 韻解訓民正音』에 담긴 邵康節易學과 현대적 의미 -康節易學을 통한 분석으로 국어학계와 다른 주장을 제시함(『大東文化研究』 108, 2019.12). 여기서 는 이 글의 주장을 따름.

41) 강절역이란 북송의 소강절(邵康節, 1011-1077) 역학을 말한다. 여암의 『經世聲音數圖』,는 소강절이 皇極經世書에 나오는 『聲音唱和圖』,의 『經世四象體用之數圖』,를 기준으로 삼아 그린 운도라 하여, 여암이 강절역을 창의적으로 변용하여 조선의 음운학을 자리매김하였다고 보았다. 조희영, 같은 글, 182-183쪽 참조.

42) 曹喜寧, 같은 글, 187쪽.

“우리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그 예는 반절의 뜻을 취했고 그 모양은 교역변역(交易變易)의 가일배법을 사용하였다. 그 문자는 정확이 아주 간단 하나 맑은 소리, 탁한 소리, 열린 소리, 닫힌 소

리와 초성·중성·종성이 환하게 모두 드러난 것이 하나의 그림자와 같다. 그 글자의 수는 많지 않으나 그 쓰임은 아주 넓으며, 글자를 쓰기가 아주 편하고 배우기도 아주 쉬우며, 천만 마디의 말도 자세하게 모두 형용한다. … 훈민정음은 우리나라를 은혜롭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천하 성음의 큰 법전(天下聲音大典)으로 삼을 만하다. 그러나 성인이 지은 뜻이 매우 은미하고 심오하여 당시의 유신(儒臣)은 이를 이해하면서도 미진했고 후세의 백성들은 날마다 사용하면서도 모르니, 성음의 도에서 이미 밝아진 것이 다시 어두워지려 한다. 미천한 신이 어찌 감히 그 깊고 오묘한 뜻을 만에 하나라도 알겠는가마는 좁은 견해로 이 도해(圖解, 그림풀이)를 만들어 감히 선왕 세종대왕의 덕을 잊지 못하는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라 하였다. 이를 보면, 이 책의 저술 목적은 훈민정음의 원리를 밝혀 훈민정음이 “우리나라를 은혜롭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천하 성음의 큰 법전”임을 드러내며 아울러 성음의 도를 다시 밝히고자 하는 데 있었다. 아울러 정음으로 한자음을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음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처럼 훈민정음의 문자를 분석하면서 『훈민정음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의 ‘해례’와 같은 완결성과 독창성도 갖추었다. 더구나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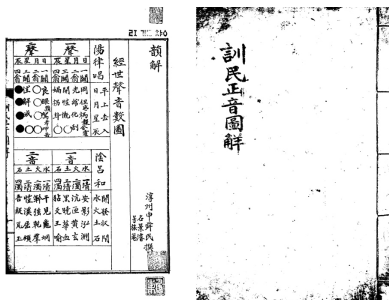


그림 2 ‘훈민정음도해(訓民正音圖解)’라고 쓰인 책 표지와 첫 페이지 부분, 불분권(不分卷) 1책, 35.2×22.4cm. 장서각 소장.

암은 『훈민정음해례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조차 해례본에 버금가는 분석을 해냈다는데 언어학자로서의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다.⁴³⁾

훈민정음에 대한 오해와 바른 이해

“한글은 왜 천대받았나?”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왜’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할 뿐, 그런 질문이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없었다. 왜냐하면 한글을 ‘언문’이라고 부른 것이 곧 낮춰 부른 대표적 증거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에 오해가 있다. 일부는 맞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틀리다. 어째서 그런지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3 「월인석보」 책머리에 실려 있는 「세종어제훈민정음(世宗御製訓民正音)」의 첫 장 부분. 출처 서강대 로올라 도서관

43) 김슬옹,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발달사 -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보급과 활용의 통합언어학적 연구』(역락, 2012), 594쪽. 『훈민정음』은 ‘예의(例義)’와 ‘해례(解例)’로 구성되어 있다. ‘예의’는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와 그 사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 글로 세종이 직접 지었다. 한편 ‘해례’는 정인지 등 집현전 학자들이 지은 것으로 한글 창제의 원리를 밝히고 있다. 『훈민정음해례본』은 한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1940년에야 발견되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래 한글은 개화기까지 공식적인 문자로 대접받지 못했다”라는 인식이 거의 교과서처럼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거기에 오해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⁴⁴⁾ ‘언문(諺文)’이란 우리말을 적는 글자란 뜻으로 ‘언서’, 또는 ‘언자’라고도 불렸다. 거기에 하대의 의미는 없었다. 언문은 우리말을 부르는 지극히 당연한 표현이었다.

세종 때에는 그래서 언문청(諺文廳)이란 이름의 기관까지도 두었으니 ‘언문’이란 말 자체가 낮춰 부르는 용어가 아님은 분명하다.⁴⁵⁾ 우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대는 결코 아니었다. 이처럼 당초 언문이란 말 자체에 부정적으로 낮추어 부르는 의미는 없었다. ‘언문’이라는 표현은 훈민정음의 단순한 이칭이었다.

훈민정음을 ‘국자(國字)’라고도 불렀다. 이는 한문이 아니라 훈민정음이 우리 글임을 인정하는 표현이다. 물론 ‘암글’이라는 이름도 쓰였다. 이는 부녀자들이나 쓰는 글이라는 뜻으로 무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 통념은 아니었다. 훈민정음 즉 언문의 위상은 “흔히 생각했던 것”과는 분명 달랐다.⁴⁶⁾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기록할 수 있는 큰 법

“정통(正統) 병인년(세종 28, 1446)에 우리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 그 글자의 수는 많지 않으나 그 쓰임은 아주 넓으며, 글자를 쓰기가 아주 편하고 배우기도 아주 쉬우며, 천만 마디의 말도 자세하게

44) 김슬옹, 같은 책, 550쪽. 이하 이 책을 주로 참조하였다.

45)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1446) 11월 8일 1번째 기사.

46) 이상혁, 『조선 후기 훈민정음 연구의 역사적 변천』(역락, 2004), 55쪽.

모두 형용한다. 부녀자나 어린 아이들이라도 모두 이 글자를 사용하여 그 사연을 전달하고 그 마음을 통할 수 있으니, 이는 옛 성인이 미처 탐구해 내지 못하여 온 천하에 없던 것이다. 훈민정음은 우리나라를 은혜롭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천하 성음의 큰 법전[天下聲音大典]으로 삼을 만하다.”⁴⁷⁾

훈민정음을 “우리나라를 은혜롭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천하 성음의 큰 법전”이라고 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외국인들도 극찬하고 있고 이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지정(1997.10.1)되었기 때문에 요즘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법하다. 그런데 잘못된 상식 때문이긴 하지만, 이 말이 조선 후기 양반님네의 입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아마 믿지 못할 듯하다. 과연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 『훈민정음운해(訓民正音韻解)』란 책을 쓴 여암 신경준(1712-1781)이다. 그럼 신경준만 그랬을까? 다른 이들의 어록을 간단히 나열해 보자.⁴⁸⁾

“이로써 사람의 말과 짐승, 곤충의 소리[人之言語禽獸昆蟲之聲]까지 다 표기할 수 있다.”(李思質(1705-1776), 『訓音宗編』「第九 訓音全文聲音起例」)

“훈민정음은 나중에 나온 글자이지만, 그 글자의 모양이 간결하여 날마다 쓰기에 편하다. 우리나라에서 나라의 글자[國字]를 갖게 된 것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黃胤錫(1729-1791), 『理藪新編』, 卷二十 「韻學本源」)

47) 『旅菴遺稿』 권3, 序 「韻解序」

48) 이 어록들은 이상혁, 「조선후기 훈민정음의 유통과 담론의 양상」(『韓國實學研究』 29, 2015.6)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훈민정음은 천하의 위대한 문헌으로서 우리나라 한 구역 안의 언어만을 기록하기 위한 책이겠는가? … 이러한 일은 오직 세종대왕 같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성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鄭東愈(1744-1808), 『晝永編』)

“한문은 간오(簡奧)함을 일상으로 여기는데 간오함으로 사정을 나누다 보면 잘못 보는 경우를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언문으로 왕복하면 조금도 의심할 점이 없으니, 부녀자나 할 학문이라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울려와 음조는 귀로 들을 수 있어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은 필묵으로 형용하게 되었으니 역시 기이한 일이다. … 만일 언문으로 기록하여 전한다면 아무리 오래 간들 어찌 본음이 변할 것을 근심할 것이라?”(柳僖(1773-1837), 『諺文志』)

“언문은 세종 때 세종대왕의 뜻으로 만들어졌는데, … 오만가지 표현하기 어려운 음[翻萬物難狀之音]도 다 기록할 수 있다. … 훈민정음은 … 비단 만국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바람 소리, 비 소리, 새 소리, 짐승 소리, 벌레 소리 등 표현하기 어려운 소리까지도 다 표현할 수 있으며, 뒤집으면 중원의 무궁한 글자와 서역의 무궁한 소리까지도 다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李圭景(1788- ?), 『五洲衍文長箋散稿』 詩文篇, 論文類, 文字, 「諺文辨證說」; 經史篇, 經傳類, 訓詁, 「反切翻紐辨證說」)

“훈민정음은 가히 천하에 통용될 수 있다. … 훈민정음은 동음(東音)과 화음(華音)뿐만이 아니라 천하의 모든 음을 다 표기할 수 있다. … 자모절음(字母切音)은 본래 중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서쪽[인도]으로부터 온 것이다. 서음(西音)으로 만든 것이 중국에 들어와 통행되고 있듯이, 동음으로 만들었다 하여 어찌 천하에 통용되지 못하겠는가?”(鄭允容(1792-1865), 『字類註釋』)

등등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훈민정음 즉 한글의 표음문자로서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오만가지 말과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고 또 분명히 전할 수 있어 천하에 통용할 수 있는 자랑스런 문자임을 말하고 있다. 훈민정음을 “천하 성음의 큰 법전”이라 한 신경준이 결코 외로운 목소리를 냈던 것은 아니었다. 그의 30년 지기이자 후원자였던 홍양호(洪良浩, 1724-1802)도⁴⁹⁾ 『경세정운도설서(經世正韻圖說序)』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여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었다.

“글자가 명백하고 간단하면서 쉬워 아이들이나 부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그것을 확대하면 천하의 글을 다 표현할 수 있고 사방의 음을 통하는데 충분하다. 아 성대하구나 대성인의 업적은 복희가 괘를 긋고 창힐이 글자를 만든 일과 그 공이 같구나.”⁵⁰⁾

이처럼 조선 후기 사대부들 중에는 한글, 즉 정음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언급들이 다수 있었다. 이들에게 훈민정음은 대체로 한자보다 우리의 언어·문자 생활에 더 어울리는 존재로 인식하거나 한자와 공존 혹은 병존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⁵¹⁾

한글이 나랏글이 되다

훈민정음이 결국은 공행문자(公行文字)가 될 것이라는 예언까지 나왔

49) 홍양호는 여암의 사위와 문인이 찾아와서 “공(홍양호)이 아니면 누가 여암의 묘갈명을 감당하겠습니까?”라며 부탁했을 때 그가 말하기를 “그러하네, 내가 실로 기다리던 것이네”라 하고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묘갈명을 서술하였다고 하였다. 그만큼 신경준과 가까웠다. 『旅菴遺稿』 권13, 附錄, 「墓碣銘(大提學洪良浩撰)」 참조.

50) 『耳谿集』 권10, 序, 「經世正韻圖說序」

51) 이상혁, 「조선후기 훈민정음의 유통과 담론의 양상」(『韓國實學研究』 29, 2015.6), 34쪽.

다. 조선 후기에 우리 말과 글, 즉 정음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논자들의 평을 보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중에서도 이규상(李奎象, 1727-1799)이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그의 아버지는 앞서 본 이사질이었다. 이사질은 『훈음종편(訓音宗編)』에서 “이(훈민정음)로써 사람의 말과 짐승, 곤충의 소리까지 다 표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그 표음성이 우리 언어생활에 보다 적합하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이규상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한걸음 더 나아갔다.

“각국의 언서(諺書)는 음(陰)에 속하는 반면에 예부터 만들어져 전해오는 한문은 양(陽)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각국의 과식문(科式文) 또한 음에 속하지만 옛사람들의 의리문(義理文)은 양에 속한다. 그런 이유로 최근에 언문(諺文)과 과문(科文)은 도처에서 신장하는 데 반해 고자(古字), 고문(古文)은 도처에서 점차 위축되고 있다. 동방의 한 지역을 두고 매일 그 소장의 형세를 관찰해 보건대 오래지 않아 ‘언문’이 이 지역 내에서 공행문자(公行文字)가 될 것 같다. 지금 더러 언문으로 사용되는 공문서가 있는데 줄지에 쓰기 어려운 공이문자(公移文字)의 경우 간간이 언문으로써 급한 형편에 대처하는 수가 없지 않다고 한다. 이것이 그 조짐이다. 물물사사(物物事事)에 물과 사 어느 하나도 음(陰)이 이기지 않는 것이 없다.”⁵²⁾

음이 양을 이기듯이 결국은 언문이 공행문자가 되어 한문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이미 그런 조짐이 있다고도 지적하였다. 근대로 가면 대중, 민중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한글이 공용문자로 자리잡는 것은 필연이었다.

마침내 1894년(고종 31) 11월 칙령 제1호로 새로운 공문식제(公文式制)를 반포하였다. 그중 제14조가 “법률·칙령은 모두 국문(國文)을

52) 이규상, 『一夢稿』雜著, 「世界說」(『漢山世稿』권23)

기본으로 하고 한문(漢文)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한다”였다.⁵³⁾ 이 칙령을 기해 국문, 즉 한글이 공문식의 기본이 되었고 한문은 번역하여 덧붙이는 역할에 머물렀다. 이렇게 한글이 나라의 제1 공식문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변화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이규상의 지적처럼 조짐들이 있었고, 그런 추세 속에서 근대화와 맞물려 일어난 결과였다.

400여 년만에 모습을 드러낸 한글 금속활자

지난 2021년 6월 29일, 서울 공평동 땅속에서 항아리에 담긴 조선 전기 금속활자 1,600여 점, 물시계의 주전(籌箭), 천문시계인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등이 무더기로 발굴되었다는 문화재청의 보도가 나와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그중에서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표기가 반영된 가장 이른 시기의 한글 금속활자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이 활자들은 세종대 갑인자(1434년) 또는 1461년(세조 7년) 을해자(乙亥字)로



사진 2 문화재청에서 공개한 한글 금속활자 1,600여 점 중 일부

53) 『고종실록』 32권, 고종 31년(1894) 11월 21일 2번째 기사.



사진 3 한글 금속활자의 세부 모습들. 문화재청 제공

추정되며 그것도 대자·중자·소자 등 다양한 크기의 활자가 모두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실제 인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한글 금속활자가 다시 나타나 새삼 기쁘다. 늘 고마운 글이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있던 한글, 혹시나 그 고마움을 잊고 지낼까 봐 수백 년만에 모습을 드러낸 한글 금속활자들이 다시금 우리들에게 감동을 자아내게 한다. 한국인을 한국인답게 하는 제일 요소는 바로 한글이다. 가장 훌륭하고 독창적인 언어, 우리만의 문자로서 자랑스런 민족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근거이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그 빛을 발하고 있으니 고맙기 그지없다.

지금 이렇게 우수하고 편리한 한글을 쓸 수 있게 된 데에는 술한 공로자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징검다리 역할을 해낸 여암 신경준과 호남의 실학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암 신경준의 ‘후마한(後馬韓)설’과 「마한역사문화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역사문화권정비법)이 2020년 6월 9일 제정,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명시된 역사문화권으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그리고 탐라 등 모두 6곳이다. 이때 특히 마한역사문화권에 대하여는 그 권역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전남 일대가 마한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권으로 지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전남은 물론 광주, 전북까지 나서서 동아시아 고대해상왕국이었던 ‘마한’의 역사문화를 복원하여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마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다만 영산강 유역에 타 지역과 구분되는 독특한 역사문화가 5-6세기경까지 존재했었다는 점에



사진 1 전남 나주시 반남면 소재 국립나주박물관 전경. 영산강 유역에 남아있는 고고자료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고고학 전문박물관으로 2013년 11월 개관하였다. 영산강 유역 마한역사문화권의 실증적 산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이를 ‘마한’의 틀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산강 유역이 경기, 충청 등 또 다른 마한의 역사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들을 제치고 ‘마한역사문화권’이란 이름으로 특별법에 올랐다. 그래서 마한의 ‘역사’가 궁금해진다.

혼란스런 고대사

대한제국기에 마지막으로 증보·편찬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 중 관찬 지리지의 종합편에 해당하는 「여지고(輿地考)」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동방은 단군·기자 이래로부터 제국(諸國, 여러 나라들)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나라를 세웠고, 속국과 여국(與國, 동맹국)이 한 군이나 한 현과 같은 것으로 또 어지럽게 있었다. 서로 다투고 빼앗아 구역이 분명하지 못하고, 또 국호와 지명이 중복되고 혼잡하여, 마한·예맥·고구려가 둘이나 있었고, 옥저·안시(安市)가 셋이나 있었고, 부여가 넷이나 있었고, 대방이 다섯이나 있었고, 가야가 여섯이나 있었으며, 그 나머지는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⁵⁴⁾

우리나라 옛 나라들의 이름이나 땅 이름들이 중복되고 혼잡하여 마한·예맥·고구려가 둘, 옥저·안시가 셋, 부여가 넷, 대방이 다섯, 가야가 여섯이나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어서

54)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제13권 「여지고」1(『증보문헌비고』1, 13쪽,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이는 신경준이 쓴 『동국문헌비고』 권6 「여지고」1의 서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하물며 우리 동국(東國)에서 국사를 만든 것이, 백제는 근초고왕 때부터, 신라는 진흥왕 때부터, 고구려는 영양왕 때부터이니, 바로 중국 양나라와 수나라 사이지만, 이것도 오히려 전하지 아니하는데, 군국(郡國)의 옛 사실들을 어떻게 상고할 수 있겠는가?”

라 하여 우리나라의 옛 사서가 없어 정확한 고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측 사서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1145년)가 가장 오래된 것이지만, 그 저술 시점이 고대와는 너무 떨어져 있다. 중국측 사서들이 그나마 그 시대에 가깝다. 그래서 고조선의 역사는 『사기』와 『한서』, 삼한의 역사는 『후한서』와 『삼국지』에 주로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그것들조차 내용도 미미하고 또 서로 차이도 많다.

그렇다.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역사서들 중 고대 이전의 역사에 대한 서술들은 ‘팩트’라기보다는 ‘해석’에 가깝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술 시점의 찬자(撰者)와 당대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어 서로 다르다. 지금 학계에서도 저마다의 주장을 내세우며 자기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지만, 진짜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마냥 헛바퀴 돌 듯하기만 할 것인가?

여기에 변수가 생겼다. 원사료의 성격을 갖는 사서 - 예를 들면 『삼국지』나 『후한서』, 또는 『삼국사기』 등 - 는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다. 변수는 고고학계의 발굴 성과들이다. 특히 근래에 들어 호남 일대 특히 영산강 유역에서 성과들이 많았다. 그래서 부족한 사서를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를 근거로 고대사에 대한 새로운 설들이 나온다. “영간상 유역 마한문화권”의 설정도 그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는 고고학계의 성과가 있어서 「특별법」에 등재될 수 있었다.⁵⁵⁾

55) 고고학계의 입장에서 영산강 유역 마한역사문화권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인 주장을 펼친

그러나 사서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고고학’만으로는 ‘역사’를 주장하기에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고고학계의 상관 변수가 작용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를 역사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가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또 ‘마한’이 포괄하는 영역은 경기부터 충청, 전라까지 광범위하다. 따라서 전라남도만을 오롯이 ‘마한’이라 부르기에는 뭔가 어색함이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았다.

먼저 마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정리해보고 나아가 호남의 대표적 실학자이자 역사지리학자인 여암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의 ‘삼마한설(三馬韓說)’과 그 안의 ‘후마한’으로 전남지역 마한을 해석할 수 있는지 타진해보고자 한다.

마한에 대한 일반적 인식

먼저 문헌을 토대로 한 역사학계의 입장에서는 마한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마한은 삼한 중의 하나로 진국(辰國)에 뒤이어 기원전 2세기 경부터 한반도 중부 및 서남부지역에 자리잡았고, 백제가 고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흡수되었으며, 4세기 후반에는 영산강 유역에 남아있던 잔여세력까지도 백제에 통합되었다고 본다. 즉 마한은 한강 이남 경기·충청·전라를 포괄하는 권역에 있던 소국들에 대한 총칭이며, ‘마한’이라는 통합된 고대국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삼한의 위치에 대해서는 마한은 경기·충청·전라지방, 진한은 낙동강의 동쪽, 변한은 낙동강의 서쪽으로 비정하고 있다.⁵⁶⁾

임영진 교수의 『우리가 몰랐던 마한』(HOLLYDAYBOOKS, 2021.7)에서 그 대체를 살필 수 있다. 그밖에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단행본, 논문들이 활발하게 발표되어 왔다.

56) 최성락, 「馬韓論의 實體와 問題點」(『박물관연보』9, 목포대 박물관, 2000.11), 11-12쪽.

『후한서』 「동이열전」 「한(韓)」을 보면,

“한(韓)은 세 종족이 있으니, 하나는 마한, 둘째는 진한(辰韓), 셋째는 변진(弁辰)이다. 마한은 서쪽에 있는데, 54국이 있으며, 그 북쪽은 낙랑, 남쪽은 왜와 접하여 있다. 진한은 동쪽에 있는데, 12국이 있으며, 그 북쪽은 예맥과 접하여 있다. 변진은 진한의 남쪽에 있는데, 역시 12국이 있으며, 그 남쪽은 왜와 접해 있다. 모두 78개 나라로 백제(百濟)는 그중의 한 나라이다. 큰 나라는 만여 호, 작은 나라는 수천 가(家)인데, 각기 산과 바다 사이에 있어서 전체 국토의 넓이가 방 4천여 리나 된다. 동쪽과 서쪽은 바다를 경계로 하니 모두 옛 진국(辰國)이다. 마한이 [한족 중에서] 가장 강대하여 그 종족들이 함께 왕을 세워 진왕(辰王)으로 삼아 목지국에 도읍하여 전체 삼한 지역의 왕으로 군림하는데, [삼한의] 제국왕(諸國王)의 선대는 모두 마한 종족의 사람이다.”

사실 이 기록만 제대로 보아도 현재의 일반적 인식이 쉽게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현재의 통설이 자리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왜 그랬을까? 그 배경에는 신라 말기 최치원(崔致遠, 857- ?)의 상태사시중장(上太師侍中狀)에서의 글이 있었다. 그는 ‘삼한일통의식’의 반영으로 삼한-삼국의 계승관계에 주목하여 마한=고구려, 변한(下韓)=백제, 진한=신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⁵⁷⁾ 이렇게 삼한을 삼국과 연결시킨 최치원의 삼한인식은 줄곧 부정하기 힘든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삼한=삼국”이란 인식들의 구속에서 벗어나 이를 바로잡은 것은 70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한백겸(韓百謙, 1552-1615)에 이르러서였다.

57) 문창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삼한 연구-연구 추이와 특징을 중심으로-」(『한국고대사연구』 62, 2011.6, 한국고대사학회), 63쪽. 이 글은 수정·보완하여 『실학자들의 한국 고대사 인식』(2012.11,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편, 경인문화사)에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삼한사 연구와 의의」로 재수록되었다.

남자남 북자북(南自南北自北) - 한백겸의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문헌고증에 바탕을 둔 역사지리학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역사지리학을 확립한 선구자가 한백겸이었고, 그 효시가 된 책이 『동국지리지』(1615년경)였다. 그는 우리나라 고대의 강역을 문헌고증의 방법으로 해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후한서』 「삼한전」에 대한 해석에서

“남쪽은 옛날부터 남쪽이고, 북쪽은 옛날부터 북쪽으로, 본래 서로 침범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그 한계가 확실하게 어느 곳이었는지 알지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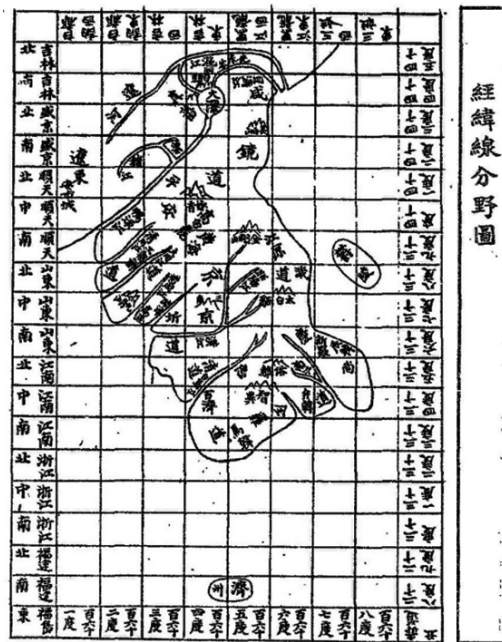


그림 1 『동사강목』 부록 하권, 분야고(分野考)에 수록되어 있는 「경위선분야도(經緯線分野圖)」. 전라도에 백제와 마한이 위아래로 표기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공시적 관계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 마한을 후마한으로 볼 수 있겠다.

하나, 아마 한강 남쪽 일대에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최치원이 이르기를, ‘마한은 고구려, 변한은 백제라’고 한 것이 첫째 잘못이고, 권근은 비록 마한이 백제가 되는 것은 알았으나 고구려가 변한이 아니라는 것은 역시 알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이로부터 역사가들이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시는 그 지역에 대해 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여 드디어 한 구역의 삼한 땅을 가지고 좌우로 끌어당겨 어지럽고 착잡하여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사이에 정설(定說)이 없으니, 어찌 애석함을 이길 수 있겠는가?’⁵⁸⁾

라 하여 “남쪽은 옛날부터 남쪽이고, 북쪽은 옛날부터 북쪽으로[南自南北自北], 본래 서로 침범하지 아니하였다”라 하여 삼국 이전에는 한반도가 한강(漢江)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 독자적으로 역사가 전개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북쪽은 삼조선의 땅으로, 남쪽은 삼한의 땅으로 비정하고 각각의 역사가 독자적으로 전개되었다고 보아 남북 이원적 국사체계를 새로이 설정하였다. 이른바 ‘남북분야설(南北分野說)’이다.

地南漢畿京		地北漢畿京		八道水	古今地分沿革表
周	漢	周	漢	外者別爲要外表	地理之考沿革詳於表故以今八道爲準
魏晉	魏晉	魏晉	魏晉		
唐	唐	唐	唐		
遼金	遼金	遼金	遼金		
元	元	元	元		
本朝	本朝	本朝	本朝		

그림 2 『해동역사』 속집 권1 「고금지분연혁표(古今地分沿革表)」, 경기 한강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눠 그 처음 시작을 북은 '기자조선'의 땅으로, 남은 '한국(韓國)'의 땅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의 땅에는 경기 외에도 충청도·전라도·경상좌도 및 우도가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8) 『東國地理志』 「後漢書」 「三韓傳」

이런 인식들에서는 삼한을 굳이 삼국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삼한은 각각 마한은 백제로, 진한은 신라로, 변한은 가야로 계승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고구려는 빠졌다. 이와 같은 한백겸의 남북분야설과 삼한인식은 이후 정설이 되었고 지금 일반적 인식도 이와 같다. 신채호는 이런 한백겸을 “조선사계(朝鮮史界)에서 선생이 처음 사학의 단서를 열었다 하여도 가할 것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⁵⁹⁾

한편 신경준은 한백겸의 설을 받아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동유(東儒)들의 삼한을 논한 자들이 예전에 삼한과 조선이 남북으로 대치하여 땅이 스스로 구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까닭에 삼한의 옛땅을 조선의 경계에서 항상 구하다 보니 마침내 신라·백제·고구려를 삼한에 분배하였다. 진(辰)은 항상 바뀌지 않았는데 변한과 마한은 서로 바뀌었다. … 『여지승람』 한 책에 비로소 삼한을 남쪽에, 조선은 북쪽에 두어 대체를 대강 짐작하였다.”

라 하여 신경준도 한백겸의 남북 이원적인 국사체계를 받아 “삼한과 조선이 남북으로 대치하여 땅이 스스로 구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른바 ‘남자남 북자북’의 역사인식을 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반드시 전라·충청 2도로 마한을 삼고 경상 일도로 진·변을 삼고 진이 북쪽에 변이 남쪽으로 한 연후에 『한서』와 가히 부합할 것이다. 내가 생각한즉 한구암[백겸]의 설이 삼한의 정론이 된다.”

고 하여 한백겸의 설이 『후한서』의 내용과 부합한다고 하여 정론으로 세웠다.

59) 고영진, 「한백겸」(『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상), 1994.5, 창비신서), 187쪽.

「강계고(疆界考)」에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여지고」로 - 관찬 지리서 편찬자 신경준

신경준은⁶⁰⁾ 이미 잘 알려진 호남의 대표적 실학자인데, ‘역사지리학자’로서의 신경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역사지리 연구는 그에 의해 한 단계 더 심화되었다. 특히 그는 관찬(官撰) 지리서의 편찬에 두각을 드러냈다.

그는 일찍이 「강계고」(1756년)⁶¹⁾를 썼는데 그것이 인정받아 대표적 관찬지리서인 『동국문헌비고』(1770년)의 「여지고」 편찬을 주관하였다.⁶²⁾ 「여지고」는 한백겸 이후 일련의 역사지리 연구를 신경준의 입장에서 집대성한 것으로 당시대의 정설(定說)이라 할 수 있겠다. 고조선의 영역을 요동까지 확장시켜 보던 당시의 영역관 변화를 수용했고, 백제의 요서경략설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점 등은 특기할 만하다.⁶³⁾

신경준은 개인의 역사지리 지식을 인정받아 국가적인 편찬사업을 주도하게 된 ‘국가 공인’ 역사지리학자로서 매우 드문 사례이다. 다른 많은 실학자들이 사찬(私撰) 활동에 그쳤음에 비하여 그는 국가사업에 재능과 학식을 발휘하여 조선 후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실천적 지리학자로서 다른 실학과 지리학자들과는 구별된다.⁶⁴⁾

관찬은 아무래도 사찬보다는 공신력이 더 크다고 본다. 교과서 시비

60) 신경준의 생애 및 실학사적 위치에 대하여는 본서의 「여암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와 한글」 참조

61) 이 글에서 활용한 「강계고」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신경준의 『여암전서(旅菴全書)』 권4-7의 것이다.

62) 신경준의 역사지리 인식에 대하여는 朴仁鎬, 『朝鮮後期 歷史地理學 研究』(이회, 1996.11) 중 제2장 「신경준의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참조.

63) 정재훈, 「실학자들의 ‘한국사’ 탐구」(『한국사 시민강좌』 48, 2011.2 일조각), 98쪽. 박인호, 「신경준」(『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상), 1994.5, 창비신서), 255쪽.

64) 양보경, 「여암 신경준의 지리사상」(『국토』, 1999.5, 국토연구원), 38, 42쪽.

가 큰 이유도 ‘교과서’라는 말 자체에 공신력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찬을 주도할 수 있었다는 점은 그가 풍부한 지식과 고증 역량을 토대로 다양한 역사지리인식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서술을 할 수 있다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삼마한설’과 ‘후마한’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공신력에 있다.

신경준이 본 마한 - 삼마한설

신경준은 「강계고」에서 『후한서』의 기록을 소개한 다음, “진국(辰國)이 『전·후한서』, 『통전』, 『문헌통고』에 모두 소상하게 기재되었는데, 동사(東史)에는 하나도 나타난 것이 없으니, 소루함이 심합니다”라 하여 우리나라 사서에 기록이 없음을 한탄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대개 진(辰)은 조선과 남북으로 나누어 나라를 세운 것인데, 그 시말을 상고할 수 없고, 진국(辰國)의 뒤에 마한이 되고, 마한이 나뉘어 삼한이 되었습니다”⁶⁵⁾라 하였다. 또 『후한서』에서

“과거에 조선왕 준(準)이 위만에게 패하여, 자신의 남은 무리 수천 명을 거느리고 바다로 도망, 마한을 공격하여 쳐부수고 스스로 한왕(韓王)이 되었다. 준의 후손이 절멸(絶滅)되자, 마한 사람이 다시 자립(自立)하여 진왕(辰王)이 되었다.”

는 등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살피건대 기준이 마한을 공격하여 이를 파(破)하였다고 한즉 이는 기

65) 『旅菴全書』 권5, 「疆界考」 「辰國」 「漢書 眞番 辰國 欲上書見天子」

준의 전에 이미 마한이 있었다는 뜻이다. ‘준의 후손이 절멸되자, 마한 사람이 다시 자립하여 진왕이 되었다’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는 기준의 후에 다시 마한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동사(東史)에는 모두 마한을 다만 기준의 나라라고 하였고, 마한의 역사 연대를 논한 데에 이르러서는, ‘한 나라 혜제 정미년(기원전 194)에 일어나서 신나라 왕망 기사년(9)에까지 이르렀으니, 모두 2백 3년이라’하였고, 또 ‘사군 이부의 시대를 지났으니, 대를 전한 것이 또한 2백 년이므로, 기준의 나라가 마한의 시종(始終)이 된다’고 하였다.”⁶⁶⁾

고 하여 마한의 시종에 대한 기준의 인식을 예로 들면서 이런 시종 인식이 옳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 대안으로

“살피건대 마한은 셋이 있다. 전후 두 마한 사이에 기준마한이 있다. 기준마한의 시작은 가히 알 수 있으나 그 끝은 알 수 없다. 전후마한과 진변(辰弁) 이한(二韓)의 끝은 가히 알 수 있으나 그 시작은 알 수 없다. … 기준이 마한으로 도망쳐 온 해, 온조(溫祚)가 마한을 병합한 해로 마한의 시종으로 삼았는데 이는 세 개의 마한이 있음을 몰랐기 때문이다.”⁶⁷⁾

라 하여 이른바 “①기준이 탈취한 마한, ②기준의 마한, ③기준의 후손 이후의 마한”으로 모두 세 마한이 있다는 ‘삼마한설’을 주장하였다.⁶⁸⁾

신경준의 「강계고」에 기반한 『동국문헌비고』 「여지고」를 보면 단군

66) 『旅菴全書』 권5, 「疆界考」 「箕準馬韓國」

67) 『旅菴全書』 권5, 「疆界考」 「三韓歷年之辨」

68) 이는 『증보문헌비고』 제13권 「여지고」 1 「역대국계」 1 「기준마한국」(『증보문헌비고』 1, 80쪽,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에 “기준이 탈취한 마한과 기준의 후손 이후의 마한과 기준의 마한으로 모두 세 마한입니다”라고 정리되었다.

조선국부터 시작하는 「역대국계(歷代國界)」에 남쪽 지역에 대하여는 진국(辰國)부터 마한국, 기준마한국, 후마한국, 진한국, 변한국(弁韓國)까지 같은 수준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를 보면, 마한을 “마한국, 기준마한국, 후마한국” 등 세 개의 마한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어 삼마한 설을 정론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증보문헌비고』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또 마한국부터 변한국까지 모두 ‘한국’이란 명칭을 쓰고 있어 북은 ‘조선’으로 남은 ‘한국’으로 구분하는 “남자남 북자북”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후마한에 대한 인식

「강계고」에서는 최초의 마한, 즉 ‘마한국’에 대하여 “대개 지금 전라·충청 두 도(道)의 땅이 마한의 본래 강역이다. 성세를 이룰 때에는 한강을 넘어 그 이북의 땅도 차지했었다”라 하였고, 이어서 ‘기준마한국’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를 보면, 기준의 마한은 『삼국사』에 “백제 시조왕[온조] 26년(AD 8) 겨울에 사냥을 간다 하고 몰래 군대를 이끌고 마한을 습격하여 드디어 그 나라를 병탄하였다”라 하여 온조에 의해 병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신라 본기에, ‘탈해왕 5년(61) 마한의 맹소(孟召)가 복암성을 들어 항복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때는 마한이 망한 지 이미 50여 년이었습니다. 고구려 본기에, ‘태조왕 66년(118)에 마한 예맥으로써 한나라 현도군을 포위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때는 마한이 망한 지 이미 1백여 년이었습니다.”

라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즉

“어찌 구신(舊臣)과 유민(遺民)들이 오히려 제(齊, 백제)에 모두 항복하지 않고 이따금 항거해 지키면서 오히려 망한 나라의 옛 이름을 칭한 것인지, 아니면 마한이 중간에 다시 일어났으나 쇠잔하고 작아서 나라답지 아니하므로 그 흥하고 망한 것이 역사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사건으로 인하여 책에 나타난 것인지? 마한은 망하였으나 원산(圓山)·금현(錦峴) 두 성은 또한 단단히 지켜 항복하지 않았고 훗날 백제에 귀속되었다.”⁶⁹⁾

라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온조왕 26년, 즉 AD 8년에 마한이 한꺼번에 망하지 않았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기준 이후의 마한 즉 후마한의 존재를 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후마한의 존재가 “중간에 다시 일어났으나 쇠잔하고 작아서 나라답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문은 그럴 수도 있어 보인다. 후마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후마한, 곧 기준 이후의 마한에 대해서는 여럿이 말하고 있다. 안정복은 『동사강목(東史綱目)』, 『삼한후설(三韓後說)』에서

“상고하건대 선한(鮮韓, 조선과 한국) 때에 동쪽 한 지역에 나라로 이름하는 것이 거의 백으로 헤아렸는데, 삼국이 함께 일어나 점차 여러 나라를 침탈한 뒤에 세 나라만 존립하고 말았다. … 백제가 마한을 습격하였다고 해서 일시에 그 땅이 몽땅 먹혀버리지는 않았을 것인데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마치 단번에 몽땅 먹어치운 것처럼 되었으니, 반드시 그럴 이치가 없는 것이라 사씨(史氏)가 잘못 기록한 것이다.”⁷⁰⁾

69) 『旅菴全書』 권5, 「疆界考」 「馬韓國」. 『증보문헌비고』에서는 “(숙)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온조왕 27년(9)에 멸한 것은 여기에서 대개 기준 마한이고, 탈해왕 5년(61)에 항복한 것은 여기에서 대개 후마한(後馬韓)인데, 원고(原考)의 말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 하였다.

70) 『東史綱目』 부록 상권 하 「雜說」 「三韓後說」

라 하였다. “백제가 마한을 습격하였다고 해서 일시에 그 땅이 몽땅 먹
허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라 하여 후마한의 존재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이는 잡설에서도

“특히 온조가 마한을 습격함에 있어 그 형세 응당 일시에 여러 소국(小
國)들을 다 겸병하지 못하였을 것인데, 마치 한 번 싸워 다 겸병하여 도무
지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였으며, … ” 71)

라 하여 『삼국사기』의 오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그 후 한치윤·한진서의 『해동역사(海東繹史)』(1823년)에서도

“진서[韓鎭書]가 삼가 살펴보건대,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보면, 마한
이 이미 온조왕이 살아 있을 적에 망하였다고 하였는데, 서진(265-317)
시대에도 마한 등 20여 국이 능히 각자 조공을 바쳤다. 그런즉 온조가 멸
한 바는 마한을 총괄하던 왕의 나라에 불과하며, 그 나머지 마한에 소속
되었던 여러 나라는 미쳐 통일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후한서』
와 『위서(魏書)』에서는 모두 마한은 54국이라고 하였는바, 백제는 그 가
운데 한 나라이다. 범엽(范曄)과 진수(陳壽, 233-297)가 역사서를 찬수할
때에도 백제는 오히려 통일시키지 못하였던 것이다.” 72)

라 하여 백제가 4세기 초까지도 마한을 다 통일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진서(鎭書)가 삼가 살펴보건대, 기씨(箕氏)가 멸망한 것은 이미 우거

71) 『東史綱目』 부록 상권 하 「雜說」 「삼국(三國)이 처음 일어나다」

72) 『海東繹史』 속집 제3권 「地理考」3 「三韓」 「疆域總論」

때보다 앞이었다. 그렇다면 기준이 취한 마한, 기씨 이후의 마한, 기씨가 세운 마한, 합하여 세 마한이 있는 것이다.”⁷³⁾

라 하여 한진서도 역시 기준 이후의 마한인 후마한을 포함한 삼마한설을 받아들이고 있다.

또, 『강역총론(疆域總論)』에서 후마한의 병합 시기에 대하여

“서진(西晉, 265-317) 말기에는 백제가 북쪽으로 대방군의 지역을 병합하여 비로소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였으며, 또 마한의 여러 나라를 병합하여 서쪽과 남쪽으로는 바다에 닿고 동쪽으로는 신라와 이웃하였다. 『문헌통고(文獻通考)』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백제는 진(晉)나라 이후로 여러 나라를 병탄하여 마한의 옛 땅을 차지하였다.”⁷⁴⁾

라 하여 “백제는 진나라 이후로 여러 나라를 병탄하여 마한의 옛 땅을 차지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서 진나라를 서진으로 본다면, 병합 시기가 대개 4세기 초 이후가 된다. 이는 문헌사에서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 재위: 346-375) 때인 369년, 4세기 후반에 마한을 통합한 것으로 보는 데, 이와 유사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이익(李瀾, 1681-1763)의 주장을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익은 “『통고(通考)』를 상고하니 … 효문(孝武) 대명(大明) 6년(462)에는 또 왜가 자칭하기를, ‘왜·백제·신라·임나·가라·진한·모한 칠국제군사(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라고 했다”라고 한 뒤,

“동사(東史)에는, “신라 법흥왕(法興王) 19년(532)에 가락왕(駕洛王)

73) 『海東繹史』 제3권 「世紀」3 「三韓」

74) 『海東繹史』 속집 제8권 「地理考」8 「百濟」 「疆域總論」

김구형(金仇衡)이 신라에 항복하였다”고 했다. 이때는 바로 양(梁) 나라 중대통(中大通, 양 무제(梁武帝)의 연호. 529-534) 4년이었는데 만약 가락이 이미 망했다면 왜(倭)도 반드시 이렇게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구형의 자손에 대를 이은 자가 규림(圭林)과 간원(間元)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비록 신라에 항복하여 속국으로 되었어도 나라는 오히려 남아 있다가 수 문제(隋文帝) 이후에야 비로소 신라에 병합되었고, 마한과 가야도 역시 이때에 병합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수(隋) 나라 때 이르러서는 신라가 개국한 지 이미 6백 년이 넘었으니, 어찌 마한 이외에 또 모한이 있고, 가락 이외에 또 가라가 있고, 가야 이외에 또 임나가 있었겠는가?”⁷⁵⁾

라 하였다. 법흥왕 19년(532)에 가락이 신라에 항복할 때를 거론하면서 “(가락이) 비록 신라에 항복하여 속국으로 되었어도 나라는 오히려 남아있다가 수 문제(隋文帝, 재위 581-604) 이후에야 비로소 신라에 병합되었고, 마한과 가야도 역시 이때에 병합된 것이다”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마한이 백제에 병합되는 하한을 6세기 후반까지도 내려 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후마한의 존재에 대한 해석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고도 길다.



사진 2 국립나주박물관에서 바라본 고분군 일부. 주변에 신촌리·덕산리 고분 등 반남 고분군이 모여 있고 자미산성도 있어 이곳이 옛 영산강 유역 마한사회의 주요 무대임을 알 수 있다.

75) 『星湖僊說』 제19권 「經史門」 「駕洛伽耶」

영산강 유역의 마한을 후마한으로

영산강 유역 마한사회를 신경준의 삼마한 중 후마한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그런데 이때 고려할 것은, 어느 나라 기록에도 AD 300년 이후에는 ‘마한’이란 이름의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국’들은 존재했겠지만 그보다 발전된 통합정치체로서의 ‘마한’이 6세기 중엽까지도 잔존하였다고 할 수 있을까는 의문이다.

고고학 발굴 성과들을 보아도 문화양상은 설명할 수 있으나 정치체로 규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사실 마한에서는 진왕(辰王) 혹은 마한왕(馬韓王)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국가의 단계로 볼 수 있는 문헌기록이나 고고학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⁷⁶⁾고 한다. 고고학계 일반에서도 영산강 유역 고대사회를 고대국가로까지는 보지 않는다.



사진 3 영산강 유역에서 발굴된 대형옹관[독널]들. 국립나주박물관 전시실

76) 최성락, 앞 글, 16쪽.

이렇듯 문헌기록이나 고고학 발굴 성과를 보아도 어떻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다만 5세기 후반 그 이후까지 영산강 유역에 백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독자적 문화권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영산강 유역 마한사회는 ‘후마한’이란 범주 내에서 소국들이 존재했던 ‘권역’이란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예를 들면 『동사강목』에서 안정복이



사진 4 나주 신촌리 9호분 출토 금동관과 금동상투관. 국립중앙박물관, 1917년 발굴되었고 1997년 9월에 국보 295호로 지정되었다. 영산강 유역 고대사회의 대표적 상징물이다. 다만 아직도 밝혀져야 할 수수께끼를 많이 안고 있다.

“우리 나라 사람이 중국을 일컬어 한(漢)이니 당(唐)이니 하는데, 이는 한·당이 전해진 세대가 오래되어 그 위엄이 외국에 떨쳤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습관적으로 일컫게 되는 것이다.”⁷⁷⁾

라 한 데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 우리가 조선시대까지 중국을 줄곧 ‘당’이라 부르거나 지금 중국을 ‘진’에서 유래한 ‘차이나’로 부르거나, 우리나라를 외국에서는 ‘고려’에서 유래한 ‘코리아’라 부르거나 하는 것들도 이와 같은 습관적 현상이다. 한말에 주로 그랬던 것처럼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한’이라 불렀고 그런 이유에서 ‘대한제국’이란 국명이 탄생하게 된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이름들이 해당 국가의 고유명사라기 보다는 그 지역을 가리키는 고유한 대명사로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

77) 『東史綱目』부록 상권 하 「雜說」 「三韓後說」

다. 이는 고대의 ‘한’ 또는 ‘마한’도 같았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⁷⁸⁾

『해동역사』의 편년 구분을 보면 주나라 때 한강 이북은 ‘조선’이라 하였고, 한강 이남은 모두 ‘한국’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마한·진한·변한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한국이 진으로 시작해서 한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진국이 되는 변화를 거치지만, 지명은 여전히 ‘한’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지역을 ‘한’이라 부르게 된 단초였다. 삼국을 거치면서는 고구려까지를 포함하여 ‘삼한’이라 부르게 된다. 그 후 조선 후기 한백겸의 ‘남자남 북자북’의 구분이 나오면서 ‘한’의 범위는 남한으로 제한되었고 북은 ‘조선’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전체를 아울러서는 여전히 ‘한’이라 부르는 관습은 유지되었다. 그래서 ‘한’은 곧 우리나라를 의미하게 되었다.

한반도 내의 정치체가 바뀌어도 이 지역 전체를 ‘한’이라 부르듯이 영산강 유역 고대사회도 그 안에서 소국들의 부침이 있었고 비록 통합된 정치체를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300년 이후 6세기경까지의 고대사회를 권역명으로서 ‘마한’이라 부르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⁷⁹⁾

이를 전남지역과 보다 일치시키려면 신경준의 삼마한설에 나오는 ‘후마한’과 연계시켜 구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 보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단정도 하기 어렵다.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다. 사서의 기록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이 지역의 고고학 발굴 성과들은 너무 다양하고 해석 또한 서로 다르다. 또 앞으로 땅에서 뭐가 나올지도 모른다. 행정의 다급함이야 있겠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포함하여 이 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기 기대한다.

78) 韓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그중 정약용은 韓의 명칭이 중국 전국시대의 韓과 무관하며, 토착민들이 그 酋豪를 추대하여 ‘韓’이라 지칭한 데서 삼한의 전신인 韓國(辰國)이 성립하였다고 하였다. 문창로, 『星湖 李瀾(1681-1763)의 삼한 인식』(『한국고대사연구』74, 2014), 254쪽.

79)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말까지의 영산강 유역 고대사회의 실체를 마한이 아닌 신미제국(新彌諸國)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다. 최성락, 앞 책, 374-389쪽.

호남의 천재, 존재 위백규와 삼벽(三僻)

존재(存齋) 위백규(魏伯珪, 1727-1798), 호남의 천재 실학자

조선 후기의 실학은 근기실학과 호남실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호남실학은 반계 유형원으로부터 연원하였고, 18세기 중엽부터는 장흥의 위백규를 비롯하여 나주 출신의 나경적(羅景績, 1690-1762)⁸⁰⁾, 순창의 신경준(申景濬, 1712-1781), 고창의 황윤석(黃胤錫, 1729-1791), 화순의 하백원(河百源, 1781-1844) 등이 이를 이끌어 갔다. 그중에서 위백규는 신경준, 황윤석과 함께 ‘호남 삼천재’라고 일컬어지는 탁월한 실학자였다.⁸¹⁾



사진 1 존재 위백규 선생 동상. 2018년 10월 장흥읍 충렬소공원에 새로 건립된 존재 위백규 선생상(왼쪽). 그 자리에 있던 원 동상 입상(오른쪽, 1986년 건립)은 선생의 향촌인 관산 회주(懷州) 숲공원으로 2018년 8월에 옮겨 세웠다.

80) 나경적에 대하여는 본서의 「조선시대 3대 시계제작자, 석당 나경적」참조.

81) 하우봉, 「호남실학의 전개양상과 성격」(『韓國實學研究』36, 韓國實學學會, 2018), 437쪽.

위백규의 자는 자화(子華), 호는 존재(存齋)이며, 본관은 장흥이다. 어려서부터 천문(天文)·지리·율력(律曆)·복서(卜筮)·병법(兵法)·산학(算學)과 같은 부류를 널리 공부하였다. 온갖 장인(匠人)의 기에도 모두 눈으로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터득하였다. 직접 선기옥형(璇璣玉衡)을 제작했는데 도수(度數)가 어긋나지 않았다고 전한다. 구암(久菴) 윤봉구(尹鳳九, 1683-1767)를 스승으로 삼았으며, “학문적 성취가 높고 깊어졌으며 경륜을 갖춘 재능을 겸하여 범위가 성대하니, 진실로 세상에 필요한 재능과 유용한 학문을 지녔다”고 평가받기도 하였다.⁸²⁾ 또 고산(鼓山) 임헌회(任憲晦, 1811-1876)가 『존재집(存齋集)』 서문에서

“호남 산천은 기세가 빼어나고 경치가 아름다우니 어질고 특출한 인재들이 그곳에서 많이 배출되었다. 그 가운데 학술로 이름난 분들로는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손재(遜齋) 박광일(朴光日)·목산(木山) 이기경(李基敬)이 으뜸이다. 네 분의 현철을 뒤이어 일어선 분은 존재(存齋) 위공(魏公)이다.”⁸³⁾

라 하듯이 “그 명성이 호남을 경도[聲譽傾一路]” 시킨 인물로 추앙받았다. 그런데 같은 글에서 임헌회는

“크고 깊은 산속에 울퉁불퉁 우뚝 솟고 영험하게 생겨 귀신들이 수호하는 백 년 된 오랜 나무가 있어서, 궁현(宮懸)이나 천구(天球)의 받침대가 될 수 있는데 해곡(峴谷)의 사신을 만나지 못하여 단지 절벽의 바람과 협곡의 비를 노래하듯 용트림하고 있음을 어찌 알겠는가. 아, 나무가 진정

82) 『存齋集』 제24권, 附錄, 墓誌銘 并序[洪直弼]

83) 『存齋集』 序, 任憲晦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대소가 있단 말인가.”⁸⁴⁾

라 하였다. 이는 위백규(이하 존재)가 자신의 처지를 “해곡을 만나지 못한 채 버려진 백 년 된 오랜 나무”에 빗대어 한탄한 말을⁸⁵⁾ 고산이 인용하여 쓴 글로, 끝내 재목으로 쓰이지 못하고 만 존재의 처지를 위로하였다.

정조 임금과의 늦은 만남

천재라 불리던 위백규는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지만, 가려서 드러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그가 나이 70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조를 만나 잠시 드러날 수 있었다. 그 과정을 정리해 보자.

1794년(정조18), 호남 연해 지역에 해일이 발생하자 조정에서 각신 서영보(徐榮輔)를 위유사(慰諭使)로 보냈다. 이때 서영보는 “위백규는 경전(經典)에 널리 통하고 종족(宗族)을 두루 잘 보살펴서 사람들이 흠모하며 감탄하였으나 나이 70살이 되도록 숨겨지고 드러나도록 하지 않았으니 이는 실로 유사(有司)의 과실”⁸⁶⁾이라 하여 등용할 것을 청하였다. 이를 받아 동부승지 채홍원(蔡弘遠)이 다시 수용할 것을 청하자 윤허하였다.⁸⁷⁾

84) 같은 글. 궁현(宮懸)은 천자나 제후의 궁중에서 연주하던 악기의 일종이다. 천구(天球)는 옛날 옹주(雍州)에서 공물(貢物)로 바쳤던 것인데, 하늘과 같은 색깔을 지닌 구슬로 궁궐의 예식용으로 사용하였다. 해곡(峴谷)은 곤륜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아름다운 대가 나는데, 황제(黃帝)의 신하 영륜(伶倫)이 일찍이 이곳의 대를 취하여 음률(音律)을 제정했다고 한다.

85) 『存齋集』 제22권, 鼓軸銘 竝序

86) 『국역비변사등록』 182책, 정조 18년(1794) 12월 25일, 慰諭使 徐榮輔의 書啓로 康津, 長興 來德島 宮結稅錢, 興陽 上納穀 등등을 열거하여 방도를 아뢰는 備邊司의 啓辭

87) 『승정원일기』 1739책(탈초본 92책) 정조 18년(1794) 12월 25일 14/21 기사; 『승정원일

그리고 1795년(정조 19) 11월, 우승지 임제원(林濟遠)이 성정각(誠正閣)에서 정조와 대화를 나누던 중, 정조가 “호남에 또한 가히 쓸만한 사람이 있는가?”라 묻자, 제원이 답하기를, “... 근래 인재가 텅 비어버림이 호남보다 심한 곳이 없습니다. 그 중 장흥의 위백규는 평소에 박식한 인물로 칭송받고 있으며 그가 지은 『환영지(環瀛志)』와 백권의 책들은 볼만한 것이 많습니다”라 하였다. 이에 정조는 “이런 사람은 나라에서 도읍(道邑)의 천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뽑아서 관직을 내려야 하는데 과연 물망(物望)에 가히 부합하는가?” 하니 제원이 다시 답하기를 “백규의 해박함은 또한 소수중(蘇洵中)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신경준·양주익(梁周翊) 모두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승선(承宣, 승정원에 두었던 정3품 관직)의 직을 내린다 해도 족히 감당할 것입니다”라 하여 위백규를 극찬하며 적극 추천하였다.⁸⁸⁾

이에 구전(口傳)으로 군직(軍職)을 내리도록 하였다. 또 환영지와 백여 권의 책을 내각(內閣)에 올리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부사용(副司勇)의 관직을 제수하였다.⁸⁹⁾ 그가 저술한 백여 권에 가까운 책들 중 절반이 이렇듯 정조의 명에 따라 규장각으로 보내졌다.⁹⁰⁾

그리고 마침내 1796년(정조 20) 그의 나이 70세 되던 해에 선공감 부봉사에 임명되었고,⁹¹⁾ 사은숙배(謝恩肅拜)하기 위해 입대하여 정조 임금을 만날 수 있었다. 이는 “숨어 있는 자를 찾아 추천하여 초야에 빠

기』 1740책(탈초본 92책) 정조 19년(1795) 1월 3일 15/16 기사.

88) 『승정원일기』 1756책(탈초본 93책) 정조 19년(1795) 11월 27일 30/30 기사.

89) 『승정원일기』 1756책(탈초본 93책) 정조 19년(1795) 11월 27일 24/30 기사.

90) 규장각에는 현재, 『新編標題纂圖寰瀛誌』(1822), 『存齋集』(1875년 간행) 등이 소장되어 있다. 「禮說隨錄」, 「分賑節目」, 「學規」, 「陶蘇眞影」 등은 內閣에 입고된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古琴』(1875, 의산 古 3613-14)이 소장되어 있다. 1974년 경인 문화사에서 저자의 宗家人 魏桂煥씨가 소장하고 있던 위백규의 저술 필사본 25권을 상하 2책의 『存齋全書』로 영인 출판하였다. 존재의 저술에 대한 상세한 사정은 金頤會,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 -18세기 향촌사족층의 삶과 문학-』(以會文化社, 1995), 15쪽 참조.

91) 『승정원일기』 1758책(탈초본 93책), 정조 20년(1796) 1월 25일 39/49 기사.

뜨린 현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조정에 바라는 바이다”라 하는 정조의 뜻이 반영되어 늦게나마 임금의 지우(知遇)를 만나 얻은 기회였다.

3월 6일 정조를 만나 길게 대화를 나누었다. 정조가 말하기를

“지난번 『환영지』 한 책을 보았는데 역시 박식함을 증험할 수 있었다. 나이가 이미 노쇠하니 비록 객지에 와서 벼슬하기를 요구하기는 어려우나, 백성의 근심과 나라의 계책에 대해서 평소 마음에 강구한 바가 있으면 모름지기 연석에서 물러난 후 한 통의 문자로 써서 올리라.”

하고, 인하여 호조에 명하여 필찰(筆札)을 주게 하였다.⁹²⁾ 이에 그 다음 날 만언봉사소(萬言封事疏)를 올렸고,⁹³⁾ 3월 8일자로 옥과현감에 임명되었다.

이렇듯 뒤늦게 정조의 눈에 띄어 고을 수령을 맡기도 하였지만, 존재는 정조와 대면해서도 스스로를 “세상 물정에 어두운 선비[우유(迂儒)]”라거나, 궁벽한 바닷가에 사는 비루한 선비[벽해누유(僻海陋儒)], ‘초야의 선비[草野之士]’라 하여 몸을 낮췄다. 임헌회가

“만년에 자신의 포부를 끝까지 펼치지 못하고, 대략의 행적이 관직을 잘 수행했던 관리로만 머물렀으니, 이 역시 천고에 남을 뜻있는 선비의 한이라고 하겠다.”⁹⁴⁾

라 하듯 끝내 큰 뜻을 펴지 못하였다.

92)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1796) 3월 6일 1번째 기사; 『승정원일기』 1760책(탈초본 93책), 정조 20년(1796) 3월 6일 87/91 기사.

93)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1796) 3월 7일 1번째 기사; 『승정원일기』 1760책(탈초본 93책), 정조 20년(1796) 3월 7일 17/20 기사.

94) 『存齋集』序, 任憲晦

그 후 순조대에 들어서서 전라좌도 암행어사 유성환(兪星煥)이 별단에서

“근세 이래 삼반(三班)의 사적(仕籍)에 들어간 호남 선비가 매우 드물어서, 호남 지역 선비의 지향점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리하여 뛰어난 재주와 학문을 지닌 이가 선발되지 못해 출사할 길이 없고, 명문가와 별열가의 자제는 자포자기를 달게 여기고 있어 이를 답답하게 여긴 여론이 있는 지 오래되었습니다.”

라 하여 호남 차별을 거론한 다음,

“선조(先朝, 즉 정조) 때의 고(故) 익찬(翼贊) 신(臣) 황윤석(黃胤錫)은 학행이 매우 깊었고, 고 참봉 신 이복원(李馥遠)은 지조와 행실이 곧고 반듯했으며, 고 현감 신 위백규는 학식이 깊고 넓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경전을 연구하고 몸을 수양했던 선비였으며, 학업에 사승의 연원이 있고 온 고장의 모범이 되어 엄연히 당시 도내의 유종(儒宗)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조(先朝)께서 인재를 잘 알아보시는 명철한 지혜로 특별히 장려하고 발탁하여 지금까지 영광스럽게 사람들의 눈과 귀에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 하여 호남의 대표적 인재로 황윤석, 이복원과 함께 역시 위백규를 꼽았다.⁹⁵⁾ 위백규의 학문은 백과전서적 박학과 농촌사회의 모순을 개혁하고자 한 사회개혁론에서 정채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촌의 현실체험을 통해 독자적인 경세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95) 『存齋集』 제24권, 附錄. 本道繡啓別單(1829년). 전라좌도 암행어사 유성환(兪星煥)의 별단



사진 2 장흥 위씨의 사묘제실(祠廟齋室)인 장천재(長川齋).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72호. 장흥군 관산읍 천관산길 148-1 소재. 위백규 선생이 수학(修學)하고 또 제자를 가르쳤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강학(講學)과 종유(從遊)의 장소로 명성이 높았다. 그 앞으로 천관(天冠)의 정기(精氣)를 품은 영은동(靈隱洞) 큰 골짜기의 물이 힘차게 흘러내려 모든 잡념을 씻어주고 있다. 입구문에는 청뢰문(廳雷門)이란 현판이 붙어 있는데, 장천동 계곡 입구에 있는 뇌문탄(雷聞灘)의 물소리를 듣는다는 뜻으로 보인다.

서울과 지방의 나눔, 구별짓기

이렇듯 추앙받던 위백규조차도 발탁의 기회를 얻기 어려웠고,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였다. 왜 그랬을까? 인재가 등용되지 못한 것은 존재 개인 탓은 아니었다. 당시 지방에 대한 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던 결과였다.

17세기까지는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그러던 것이 18세기 이후 현격해졌다. 17-18세기를 거치면서 성장한 중앙의 집권세력은 점차 패권주의로 흘렀다. 노론 일당전제정치, 경향분기(京鄕分岐)와 경화사족(京華士族)의 출현 등으로 중앙 지배층은 벌벌화하였다.⁹⁶⁾ 이에 따라 지방세력이 출신지역을 근거지로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통로는 사실상 막혔다. 이들은 지방의 향유(鄉儒)로 전락하였다. 19세기로 가면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몇몇 유력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는 세도정치가 전개되었고, 중

96) 유봉학, 「18·9세기 京·鄕學界의 分岐와 京華士族」(『國史館論叢』 第22輯, 국사편찬위원회, 1991.6) 참조.

양과 지방, 양자의 소통은 사실상 단절되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절정에 달하였다. 당시 중인 지식인이었던 최성환(崔瑔煥)은 『고문비략(顧問備略)』(1858년)에서 수치를 활용한 점층법으로 그 격차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⁹⁷⁾

“오늘날 선비를 구하는 지역은 천 리도 되지 않는다. 팔도 안에서 애초 대관(大官)으로 등용되지 않는 서북 3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5도의 인사 중에서도 대관으로 등용되는 사람은 없다. 혹 한둘 두드러진 이들이 있해도 그 지역에 흘러가 사는 경화사족일 뿐이니 그 지방의 인사가 아니다. 그러니 오늘날 등용되는 이들은 오직 경기도 한 도의 인재이다. 하지만 경기도조차도 모두 등용되지 않는다. 오직 서울 5부 안에나 해당하니 천리의 땅을 통틀어 300분의 1이다. 그러나 300분의 1조차도 모두 등용되지 않으니 오직 대대로 벼슬한 사대부에나 해당할 뿐이다. 대대로 벼슬한 사대부 중에서도 오직 귀족 대성(大姓)들만 [등용이] 해당된다. 그렇다면 그 300분의 1 중에서도 겨우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에 해당될 따름이다. 천 리의 땅에서 인재를 구하는 지역은 1리도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성대중(成大中, 1732-1809)의 표현을 빌자면 심지어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사는 땅이 다르고, 같은 땅에 살지만 사는 사람이 다르고, 사람이 같지만 시대가 다른 시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을까?” 라 할 정도였다.⁹⁸⁾ 지역의 격차, 부와 기회의 격차, 지식의 격차 등이 가속화한 결과는 차별의 일상화였고, 그 결과는 기존 체제의 붕괴였음을 지금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금이라고 다를까?

97) 이경구, 「18세기 중반-19세기 전반 서울-지방 격차와 지식인의 인식」(『역사비평』, 2016.11), 107쪽에서 재인용.

98) 이경구, 같은 글, 113쪽.

호남은 더 어려워

‘입현무방[立賢無方, 현인(賢人)을 세울 때는 출신에 구애받지 않는 다]’이란 말은 낡은 책자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구호가 된 지 이미 오래였다. 지방 선비들은 이제 과거 시험의 합격자 명단에서뿐만 아니라 초임직(初任職) 명단에서도 그 이름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처럼 배제되던 지방 선비들 가운데 호남 선비들의 비중이 특히 높았다. 흥덕(현 고창) 출신의 실학자로 호남실학의 기수로 불리는 황윤석은 삼남 안에서조차 현저한 차이가 생기는 현상에 주목했다. 특히 삼남 출신 선비의 청요직 진출 사례를 놓고 보면, 충청이 가장 활발하고 영남은 쇠퇴했으며, 호남은 가장 쇠퇴했다고 하였다.⁹⁹⁾

향암(鄉闇), 시골뜨기라니?

경향분기로 인해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향암(鄉闇, 鄉暗)’이란 말도 나온다. ‘향암’이란 우리 말로 ‘시골뜨기’ 정도에 해당한다. 반면에 겉치레만 잘하는 서울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경화인(京華人)’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¹⁰⁰⁾ ‘향(鄉)’이란 글자에 ‘어두움, 우매함’을 뜻하는 암(闇)·암(暗)이 결합하였는데, 이는 화려할 화(華)자를 붙인 경화에 대비되는 말로 그야말로 지방 차별을 상징하는 용어였다. 17세기 이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18세기 중반 영조 대부터 자주 나타났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권이진(權以鎭)이 새로 생긴 옹주방(翁主房)의

99) 배우성, 「18세기 지방 지식인 황윤석과 지방 의식」(『한국사연구』 135, 한국사연구회, 2006.12), 44-47쪽.

100) 향암에 대한 서술은 이경구의 앞 글을 참조하였다.

민전(民田) 침탈 행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고하였는데,¹⁰¹⁾ 이에 대해 영조가 “진달한 대개(大概)가 가상하다. 그러나 경(卿)이 일찍이 조정 에 출사(出仕)하지 않았으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자, 권 이진은 다시 “신이 시골뜨기[鄉閭]도 아니요, 또한 연석(筵席)의 체면 을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라 하여 직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 자 이광좌가 나서서 말하기를 “권이진이 평생을 시골에 살았으니 시 골뜨기가 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약 겉치레만 잘하는 서울 사람에 비교한다면 그 실질(實質)이 뛰어납니다”라 하였고, 이에 임금이 말하 기를, “그 겉만 화사(華奢)하기보다는 차라리 소박(素朴)한 것이 나으 니, 시골뜨기 또한 취할 점이 있다. 내가 호관을 취하는 것은 질박(質朴) 한 때문이다”라 하여 마무리하였다. 이런 대화 속에서 ‘시골뜨기’라는 말이 자주 거론되었다.

한편, 정조는 향암을 언급할 때 ‘향암객(鄉閭客)’이라거나 ‘향암 중의 향암’¹⁰²⁾이란 말도 하였다. 향암이란 표현이 일상화되었다. 이는 그만큼 지방에 대한 비하가 고착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향암은 향암이 고 국강[나라의 기강]은 국강[鄉閭自鄉閭, 國綱自國綱]”이라거나 “오 로지 향암의 지극한 무식으로 말미암아[專由於鄉閭無識之致]”라거나 “향암은 고루하다[鄉閭孤陋]”거나 하는 표현들이 나온다.¹⁰³⁾

한편 존재는 「오황해(五荒解)」¹⁰⁴⁾라는 글에서 어느 한 가지 일에 미혹되어 정신이 황폐(荒廢)해져 깨닫지 못하는 것을 모두 황(荒)이라 하여 옛말의 색황(色荒, 여자에 빠짐), 금황(禽荒, 사냥에 빠짐)에 빗대

101) 『영조실록』 15권, 영조 4년(1728) 2월 25일 3번째 기사.

102) 『승정원일기』 1716책(탈초본 91책), 정조 17년(1793) 4월 23일 33/34 기사.

103) 『승정원일기』 1731책(탈초본 91책), 정조 18년(1794) 6월 20일 37/64 기사; 『승정원일기』 1847책(탈초본 98책), 순조 2년(1802) 2월 13일 22/29 기사; 『승정원일기』 1956책(탈초본 103책), 순조 8년(1808) 10월 27일 23/24 기사.

104) 『存齋集』 제17권, 雜著, 오황에 대한 풀이(五荒解)

어 장황(葬荒), 반황(班荒), 시황(時荒), 교황(交荒), 향황(鄉荒) 등의 다섯 가지 병폐에 대해 지적하였다. 특히 시황에서

“다만 경화(京華)의 저잣거리에서 천박하고 경솔하게 아침저녁으로 뜯어 고치는 것은 일시의 풍습이니, 시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향촌에서 아침하는 자들은 시속의 풍조를 추구하는 무리를 오로지 사모하여, 언어·관복(冠服)·용모·행동거지·걸음걸이를 번번이 아침저녁으로 고치는 행태를 본뜬다. 그리하여 아침에 한양의 객(客)을 보면 낮에 걸음걸이를 바꾸고, 오늘 한양에 들어가면 다음 날 읊(損)하는 자세를 바꾸니, 1년 된 헌 옷이 없고, 3년 동안 묵은 말이 없다.”

라 하여 서울 따라 하기로 자신을 잃어버린 시골을 한탄하였다.

삼벽(三僻)을 넘어

존재가 71세 때에 남긴 편지글¹⁰⁵⁾이 있는데 그 내용은 왕에게 올린 상소에 해당한다. 이를 보면, 스스로의 처지를 비판하면서 그 원인을 삼벽 때문이라 하였다. 이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저 백규는 해안가의 빈한한 백성으로 늘 삼벽(三僻)을 제 분수로 삼았으니, 초목이 황량한 산과 흐르는 물에서 죽고 시드는 것은 본디 자기 자리입니다. 헛된 이름으로 임금님의 은혜를 어지럽혀 수령의 임무를 맡으라는 분부를 잘못 받게 되리라고 어찌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 ②성씨

105) 김문용, 「18세기 鄉村 知識人의 自我 構成 -存齋 魏伯珪의 경우-」(『민족문화연구』 61호, 2013.1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53-154쪽.

의 운수가 부족하여 400년 동안 3품의 현관(顯官)이 없었으니 스스로 운수가 기박한 것을 알고 관직에 나아가려는 희망을 접었습니다. 그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고 독서하며 문을 닫고 스스로 폐해져서, 30년 동안 한양을 왕래했지만 한 번도 고관 집안에 명함을 들이밀거나 관장(官長)에게 얼굴을 익힌 적이 없었습니다. ... ③도내의 선비 중에도 오히려 소매를 잡거나 눈을 씻고 반갑게 어울린 사람이 없었으니, 화려한 소문과 칭찬이 어찌 사립문 밖으로 나갔겠습니까? ... 삼벽이란, 사는 지역이 궁벽하고, 성씨가 궁벽하고, 사람이 궁벽하다[地僻姓僻人僻]는 말입니다.”¹⁰⁶⁾

①은 지벽(地僻)을, ②는 성벽(姓僻)을, ③은 인벽(人僻)을 각각 뜻한다. 오늘의 사정으로 말하자면, 이른바 지연, 혈연, 학연에 각각 해당한다.

이렇게 삼벽에 가로막혀 있었지만, 그의 준비된 천재성은 주머니 속의 송곳[낭중지추(囊中之錐)]처럼 마침내 그 스스로를 드러냈다. 비록 늦었지만 정조 임금을 만나 이렇듯 역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길 수 있었다.

소통 - 장기지속의 바탕

지방은 다양성의 소재지이다. 따라서 지방을 살리는 것이 미래의 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공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조선왕조가 그나마 500년 동안 장기지속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중앙과 지방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견제와 비판을 통해 왕조사회가 끊임없이 자기 정화

106) ①, ②, ③은 필자가 붙인 것임. 『存齋集』 제4권, 書, 참봉 유맹환에게 보낸 편지의 별지(與俞參奉 孟煥 別紙)

와 혁신의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¹⁰⁷⁾ 하지만 조선왕조도 18-19세기를 거치면서 중앙과 지방사회의 균형과 조화가 깨졌고, 그 결과 왕조가 위기에 빠져 끝내 이를 극복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원활할 때, 중앙 지배층의 구성이 다양할 때, 중앙에 대한 비판세력이 존재할 때, 장기지속과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 지방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전제될 때 비로소 국가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국가 경쟁력을 극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 다(多)중심 국가를 지향하여, ‘지방의 차별’이 아니라 ‘지방의 차이’를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다양성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이 지금 더욱 아쉽다. 이를 위해서라도 지역의 인재양성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진 3 존재 고택(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제161호. 장흥군 관산읍 방촌길 91-32 소재. 위백규 선생의 생가로 마을 안쪽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위백규의 아버지 문덕(文德)의 호인 영이재(詠而齋)와 위백규의 호인 존재(存齋)라는 현판이 눈에 띈다. 영이재에서는 천관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 영험한 기세를 온몸에 누리는 듯하다.

107) 고석규, 「한국사에서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 추이」, 『歷史學研究』 제69집, 2018.2), 65쪽.

세계를 담은 존재 위백규의 『환영지』

「천하도」(天下圖)를 접하고서

지금 우리들의 손안에는 세계가 있다. 아니 우주가 있다. 지구촌시대를 넘어 우주촌시대에 다가가고 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세계지도는 전혀 낯설지 않다. 하지만,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알고 있던 옛날 조선의 선비들에게, 갑작스레 접하게 된 서양의 세계지도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

호남의 천재 실학자 존재 위백규(魏伯珪, 1727-1798)는 「천하도」를 접하고서 “끝내는 절로 나오는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고”라 하여 어이 없어 했다. 그럼에도 이를 의심할 수 없어 마침내 책에 베끼고, 이를 계기로 『환영지(寰瀛誌)』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¹⁰⁸⁾ 다만 그때 보았던 「천하도」를 「이마두천하도(利瑪竇天下圖)」라 이름하였는데, 이는 이 「천하도」를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인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로 잘못 이해하여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환영지』는 여러 판본이 있다. 정서본에는 「이마두천하도」가 실려 있지만, 목판본에는 지도가 없다. 경성전위도(經星躔位圖) 다음에 지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차간의결구구주도(此間疑缺九九州圖)”라고 하여 “이 사이에 구구주도가 빠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글귀가 적혀 있다. 대신 「구구주도(九九州圖, 81州를 그린 지도)」에 대한 지지(地誌)가 길게 붙어 있다.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또 목판본에는 황명십삼성총도(皇明十三省總圖)에 이어서 서양제국도(西

108) 『환영지』의 서(序). 『환영지』의 원제는 『신편표제찬도환영지(新編標題纂圖寰瀛誌)』이다.

洋諸國圖) 및 관련 지지내용이 추가되어 있다.¹⁰⁹⁾

『환영지』가 맺어준 정조 임금과의 인연

위백규(이하 존재)는 1796년(정조 20) 나이 70이 되어서야 정조 임금을 만나 늦게나마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 이때 그 만남의 계기가 되었던 책이 바로 『환영지』였다.

1795년(정조 19) 11월, “호남에 또한 가히 쓸 만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정조 임금의 물음에 우승지 임제원(林濟遠)이 답하기를, “근래 인재가 텅 비어버림이 호남보다 심한 곳이 없습니다만, 그 중 장흥의 위백규는 평소에 박식한 인물로 칭송받고 있으며 그가 지은 『환영지』와 백 권의 책들은 볼만한 것이 많습니다”라 하였다. 이에 『환영지』와 백 권의 책을 내각(內閣)에 올리도록 하고 관직도 제수하였다.¹¹⁰⁾ 그리고 나이 70세 되던 해에 선공감 부봉사(繕工監副奉事)에 임명하였다.¹¹¹⁾ 이에 사은숙배(謝恩肅拜)하기 위해 입대하여 정조 임금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만남의 자리에서 정조 임금은

“지난번 『환영지』 한 책을 보았는데 역시 박식함을 증험할 수 있었다.”¹¹²⁾

고 하여 『환영지』를 거론하였다.

109) 『환영지』의 판본과 그 차이에 대해서는 배우성, 『조선과 중화-조선이 꿈꾸고 상상한 세계와 문명』(돌베개, 2014) 중 4장 「『환영지』가 구성한 세계」에 상세하다. 여기서는 이 글을 많이 참조하였다.

110) 실제로 그의 저술이 모두 얼마인지, 그중 몇 권이 내각으로 올려졌는지는 분명치 않다.

111) 『승정원일기』 1758책(탈초본 93책), 정조 20년(1796) 1월 25일 39/49 기사.

112)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1796) 3월 6일 1번째 기사; 『승정원일기』 1760책(탈초본 93책), 정조 20년(1796) 3월 6일 87/91 기사.



그림 1 「이마두천하도(利瑪竇天下圖)」, 『환영지』 정초본에 수록된 「천하도」로 위백규는 이를 보고 웃음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마두는 마테오 리치의 한자 이름이다. 가장 전형적인 「천하도」는 그림 2와 같은 원형인데 「이마두천하도」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장방형으로 되어 있다.

『환영지』는 어떤 책이기에 이렇듯 관심을 불러일으켰을까? 『환영지』는 존재가 32세 때인 1758년 제작을 시작하여 44세 때인 1770년에 필사본(정서본)으로 완성하였고, 이후 이를 보완하여 61세 때인 1787년(정조 1)에 간행하려고 했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이루지 못하였다. 더구나 정서본을 내각에 올리고 나니 집안에는 미완의 초고만 남아 있었다. 그후 7·80여년이 지난 어느 날 죽손 위영복(魏榮馥, 1832-1884)이 신앙여(申仰汝)에게서 정본을 모사(摹寫)해 놓은 책을 발견하고 민멸할까 우려하여 1882년 목판으로 간행하게 되었다.¹¹³⁾

113) 위영복이 쓴 『환영지』의 발문에는 그 쓴 시기를 ‘송정후 사임오(崇禎後四壬午)’라 하고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는 1822년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영복의 활동기간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1882년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려면 ‘송정후’를 ‘송정갑신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송정후’라는 표현은 ‘송정기원후’ 또는 ‘송정갑신후’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후자의 의미로 보면 1882년이 된다.

『환영지』는 어떤 책인가?

먼저 ‘환영(寰瀛)’이란 무슨 뜻일까? 환영의 한자말 뜻은 천하 즉 전세계(全世界)를 가리킨다. 이때 환은 땅을, 영은 바다를 각각 뜻한다. 존재는 『환영지』 서문에서

“위로는 하늘부터 아래로는 땅까지 광대한 공간이 극치를 이루고, 지금부터 아주 먼 옛날까지 유원한 시간이 극치를 이룬다. 광대한 공간과 유원한 시간을 합한 곳에 인간 세상이 있다.”

로 시작하고 있다. 이는 만물 중에 가장 영험하다는 인간조차 천지의 광대함과 시간의 유원함을 결코 다 알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더구나 “천지의 동쪽 끝, 명해(溟海)의 구석진 모퉁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천지의 광대함에 비하면 장구벌레나 계딱지 같을 뿐이며, 고금의 유원함에 비하면 쓰르라미 신세 같을 뿐”이라 하여 궁벽한 시



그림 2 가장 전형적인 원형 「천하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골에 살고 있던 존재가 시공을 알기는 더욱 어렵다는 점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던 터에

“내가 시골에 살며 한가한 날이 많아 우연히 「구구주도」를 열람하게 되었다.¹¹⁴⁾ 끝내는 절로 나오는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것이 가공의 것인지 알 수는 없더라도 만약 작은 귀와 좁은 눈을 가진 사람이 억지로 그 사실 여부를 의심한다면 혹 (넓은 세상을 다녀보았을) 바다 자라에게 웃음거리가 될까 두렵다’라고 생각하고는 … 중주(中州, 즉 중국) 13성(省)과 우리나라 8도(道)의 지도를 이어 붙여 놓았다. 또 천지와 고금 사이에 차고 쌓여서 얽힌 실타래처럼 알아보기 어려운 것들을 그림으



그림 3 『輿地圖』(古4709-78) 제1책에 수록된 「천하도지도」(天下都地圖, 보물 제1592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이 지도는 언뜻 봐서 중국에 와 있던 선교사 줄리오 알레니(Giulio Aleni)가 펴낸 「직방외기(職方外紀)」의 「만국전도(萬國全圖)」와 비슷하다. 따라서 「천하도지도」는 「만국전도」를 모본으로 그린 지도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지도는 1821년 하백원(河百源)이 제작한 「태서회사마두만국전도(泰西會士利瑪竇萬國全圖)」의 참고가 되기도 한다.

114) 존재의 스승인 윤봉구(尹鳳九)는 「답학산성공(答鶴山成公)」(『屏溪集』 권32, 書)에서 “대명초에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서양국으로부터 왔는데, 신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사해의 바깥을 두루 유람하였으며, 해외제국지도(海外諸國地圖)를 만들었는데, 그 인쇄본이 세상에 돌아다닌다”라고 하였다. 윤봉구가 어떤 지도를 보고 이렇게 말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마테오 리치의 지도에 대해 들은 바가 있었고, 이는 그 제자인 존재에게도 전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존재가 열람하였다는 「구구주도」는 그림 1의 「이마두천하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성, 앞 책, 471쪽 참조.



그림 4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1602년에 예수회 신부 마테오 리치와 명나라 학자 이지조(李之藻)가 함께 만들어 목판으로 찍어 펴낸 지도이다.

로 모아서 정렬하여 그 아래에 붙이고 이를 합하여 책 이름을 『환영지』라고 지었다.”

고 하였다.

목판본 『환영지』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상편에는 구천팔지도(九天八之圖)·천경성화도(天經成化圖)·경성전위도(經星躔位圖) 등의 우주도와 중국 13성도(省圖), 서양제국도(西洋諸國圖), 요동도(遼東圖)·북막도(北漠圖)·영고탑도(寧古塔圖), 조선 8도도, 한양도, 평양관부도(平壤官府圖), 탐라도(耽羅圖), 일본국·유구국(琉球國)의 지도 등 18개의 그림들이 수록되어 있다. 하편에는 일원소장지수도(一元消長之數圖)·삼십육궁도(三十六宮圖)·이십사절도(二十四節圖) 등 시간, 각종 제도, 문물, 역사와 관련된 46개의 그림들로 구성되었다.

이렇듯 천문, 지리 등 공간에 해당하는 그림과 해설들로 상편으로 만들었고, 하편의 경우는 “뒤에 덧붙여 놓은 여러 그림들은 비록 지도 종류는 아니지만,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주가 허투(虛套)가 될 것이며, 지도 또한 그 쓰임에 맞는 바가 없게 될 것이다”라 하여 각종 문물, 제도 등



그림 5 『환영지』 내에 실려 있는 서양제국도

을 도표로 만들었다. 특히 고금이나 역대 등 시간을 담은 도표들이 눈에 띈다. 이렇듯 천지의 광대함을 담은 상편에 이어서 시간의 유원함을 펼친 하편이 짝을 이루게 하였다. 그래서 이를 두고 시간과 공간을 모두 담았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상편이 우(宇)라면 하편은 주(宙)이니, 곧 천지 즉 공간과, 고금 즉 시간을 통합한다는 뜻이기도 하다.¹¹⁵⁾ 그래서

발문에서도 공간과 시간, 즉 우주를 포괄하고 사리를 통달했다는 의미를 담아 “환영’이라 일컬어 통합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비록 시골에 살아 세상 물정에 어두운 우유(迂儒)였지만 세계를, 그것도 시공을 담아내려는 담대한 시도를 하였던 것이고, 그런 뜻을 『환영지』라는 제목에 담았던 것으로 보인다.

세계를 담은 담대한 책, 『환영지』

『환영지』는 대표적인 세계지리지로 꼽힌다. 어떻게 세계를 담으려는 담대한 책을 기획할 수 있었을까? 우선 서양의 영향을 들 수 있다. 17세기 이후 조선사회는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지리지식이 전래되었다.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를 비롯한 서구식 세계지도와 알레니(艾儒略, Giulio Aleni)의 『직방외기(職方外紀)』,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의 『곤여도설(坤輿圖說)』 등의 세계지리서들이

115) 배우성, 앞 책, 492-494, 498쪽 참조.

조선사회에 알려지면서 세계인식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직방세계¹¹⁶⁾를 넘어서는 이역(異域)에 대한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 세계지리 저술의 선구적 저작은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볼 수 있다. 존재가 목판본 도면과 지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봉유설』을 읽고 많이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 『지봉유설』에는 없는 ‘도면’ 즉 그림을 그려 덧붙였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존재의 『환영지』에는 원형의 「천하도」에 수록된 나라들과 알레니의 『직방외기』에 수록된 이역(異域)의 지명, 서구식 세계지도에서 볼 수 있는 나라들에 대한 기술이 수록되어 있다. 『환영지』의 세계지리 내용은 이수광의 『지봉유설』이나 서명응(徐命膺)의 『위사(緯史)』에 실린 세계지리 내용보다 수록 내용의 정확성이나 방대함에서는 떨어지지만 다양한 지도를 같이 수록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¹¹⁷⁾

그렇다면 서양을 통해 들어온 세계지도를 어떻게 인식했을까? 존재는 「구구주도」에 대한 설명에서 전국시대 제(齊)나라 사람으로 음양가(陰陽家)의 대표적 인물인 추연(騶衍, 기원전 305?-240?)의 대구주설을 따왔다.

“추연이 말하기를 ‘중국의 사방바다를 비해(裨海)라고 한다. 그 밖에 대륙이 둘러싸고, 대륙의 바깥에는 또 대영해(大瀛海, 큰 바다)가 둘러싸고 있



그림 6 목판본 『환영지』 표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16) ‘직방(職方)’이란 주나라 때 전국의 지도와 사방에서 올라오던 조공(朝貢)을 관리하던 관직 이름이었다. 따라서 ‘직방세계’란 중국과 그 주변의 조공국으로 구성된 세계를 뜻한다.

117) 오상학, 「조선후기 세계 지리지에 대한 시론적 고찰」(『규장각』 43, 2013.12), 246, 254쪽.

다. 바야흐로 이곳이 땅의 끝이다’라고 하였다”라 하고 이어서 “서양인은 중국의 서남해를 지중해라고 부른다. 그들은 말하기를 “국토가 바다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이다. 그 바깥에서 바다가 국토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바야흐로 환해(寰海)이다”라고 하니, 추연의 설과 대략 같다.”¹¹⁸⁾

라 하였다. 말하자면 비해가 지중해에, 그리고 대영해가 환해에 대칭한다. 존재는 9개의 대륙과 81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추연의 대구 주설을 비해(裨海)-대영해(大瀛海)(地中海-寰海)라는 동심원적 구조에 초점을 맞춰 해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¹¹⁹⁾

백과전서파의 영향

『환영지』와 같은 유형의 책을 유사(類書)로 분류한다. 즉 백과전서이다. 17세기 이후 동아시아 삼국의 학계에서는 실증과 고증을 중시하는 백과전서적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였다. 선구적 저작으로는 1609년 중국에서 간행된 왕기(王圻)의 『삼재도회(三才圖會)』를 들 수 있고, 그 영향으로 조선에서는 이수광의 『지봉유설』(1614)이 완성되어 조선 후기 유사(類書)의 선구를 이루었다. 일본에서도 10년 정도 후에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1713)가 간행되었다.¹²⁰⁾

118) 『寰瀛誌』의 「九九州圖」에 대한 해설 중 「附四海」

鄒衍曰 中國四方之海 是號稗海 其外有大陸環之大陸之外又有大瀛海環之 方是地涯云 西洋人以中國西南海 號爲地中海 其言曰 國土抱海 故爲地中海 其外海抱國土者 方爲寰海 與鄒衍說略同

119) 김봉근, 『『寰瀛誌』(환영지)』를 통해 본 存齋 魏伯珪의 역사지리인식(『『역사와 실학』 61, 역사실학회, 2016.11), 54-55쪽.

120) 하우봉, 「동아시아의 백과전서파 실학과 황윤석」(『韓國實學研究』 40, 韓國實學學會, 2020), 349쪽.

이런 흐름 속에서 조선 후기 지식인들 중에는 백과전서파라고 불릴 만한 학자들이 다수 나타났고 그들에 의해 백과사전적인 책들이 발간되었다. 호남에서도 천문, 지리, 역대제도와 문물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연구하고 독자적인 경지에 오른 백과전서파 인물들이 많았다. 존재도 그러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환영지』를 보면, 존재 역시 『지봉유설』을 읽어 그런 유사류에 익숙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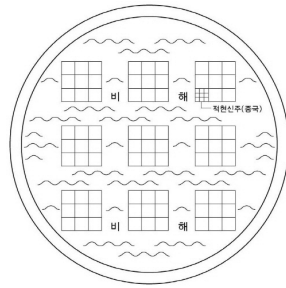


그림 7 추연의 대구주설을 표현한 모식도이다. 아홉 개의 대륙을 각각 감싸는 비해(裨海)가 있고, 그 밖에서 둘러싸는 것이 대영해(大瀛海)이다. 오상학, <추연의 대구주설> (우리 역사넷)에서 인용.

도설(圖說) 백과사전의 한 유형

『환영지』는 백과전서식이면서도 특히 ‘도설(圖說)’ 백과전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어떻게 그림을 활용하려 했을까? 여기에는 『삼재도회』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삼재도회』는 명말에 출간된 도설백과사전으로 특별한 존재이다. 그림을 앞에 두고 설명을 뒤에 두어, 그림과 문자가 서로 조응하도록 하였다. 청대의 도설백과사전인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의 범례에서는 “옛 사람들은 왼쪽에 지도를 두고 오른쪽에 역사서를 두었으니, 국가의 영토나 산천을 공부하는 데에는 지도가 필수적이다”라 하였는데, 바로 이런 경향을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¹²¹⁾

121) 이 점에 대하여는 高仁德, 「조선시대에 있어서 도설백과사전 『三才圖會』의 수용」(『중국어어문학논집』 77, 중국어문학연구회, 2012.12), 620쪽 참조. 그림과 문자의 결합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고인덕, 「명말 도설백과사전 『삼재도회』(三才圖會)의 의의 -그림과 문자의 결합」

『삼재도회』가 당시로서는 새로운 지식인 서양과 세계의 지리에 관련된 지식을 얻는데 주요한 통로가 되었다. 조선에서 『삼재도회』를 가장 먼저 활용한 것이 이수광의 『지봉유설』이고 『환영지』 또한 그 영향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 『환영지』에서 그림과 설명이 짝을 이루게 구성하였음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다만, 상편은 도에 이어 설이 붙었는데 하편은 도만 있고 설은 없다. 이를 보면 설보다 도를 더 중시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나아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그림으로 표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환영지』가 지니는 독특한 의미는 크다.

호남 실학의 맥

『환영지』의 목판본은 범례를 둠으로써 훨씬 체계화하였고, 인문지리 서로서의 가치를 높였다.¹²²⁾ 그리고 이를 목판으로 만들어 널리 보급하였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존재의 스승인 윤봉구의 세계지도에 대한 관심, 황윤석의 유서학적 지식 등이 『환영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런 경향은 신경준의 『여지도(輿地考)』에도 잘 나타났고, 훗날 하백원(河百源, 1781~1844)의 『만국전도』 등을 통해 이어졌다. 그런 맥락이 호남 실학의 전통을 이루었다.

『환영지』는 무엇보다도 궁벽한 시골 선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심을 갖고 세계를 담는 신경향의 책을 엮어낼 수 있었다는 데 각별한 의미가 있다. 천관산의 영험한 정기가 있어 담대한 『환영지』를 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아시아문화연구』 28,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2.12) 참조.

122) 김봉곤, 앞 글, 52쪽.

규남 하백원과 진양 하씨가의 가학

가학(家學)의 맥락

호남의 4대 실학자로 순창의 신경준(申景濬, 1712-1781), 장흥의 위백규(魏伯珪, 1727-1798), 고창의 황윤석(黃胤錫, 1729-1791), 그리고 화순의 규남(圭南) 하백원(河百源, 1781-1844)을 꼽는다. 그 태어난 시기를 비교해 보면 앞의 세 사람은 18세기 초로 비교적 같으나, 하백원(이하 규남)은 그로부터 50여 년 후로 시간의 간격이 크다. 실학을 집대성했다고 하는 정약용(丁若鏞, 1762-1836)보다도 20년이나 늦다.

규남이 살았던 시기가 주류 실학자들과 큰 시간차가 있음에도 규남이 호남 4대 실학자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 그것은 바로 가학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50여 년의 간격을 메워준 것도 가학이었고 오늘날 규남박물관을 통해 재조명받고 꾸준히 기억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규남이 남긴 가학의 후광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규남은 이런 가학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에 가학을 더욱 크게 일으키고자 했고, 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 했을까? 조선 말기 지방학인가(地方學人家)의 존재방식에서 가학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규남이 쓴 사촌(沙村) 살림집 상량문의 일부분을 보자.

“이 사촌의 옛터는 실로 복천(福川)의 명승지라네, 상서롭고 신령스런 기운이 모인 곳에 옛날 금사옹(錦沙翁, 河潤九)이 집을 지었고, 시서(詩書)로 교육한 것은 곧 우리 병암공(屏巖公, 河永淸)이 끼친 바이네, 예전에 소과·대과에 영광스럽게 급제했으니 지금까지 고향에서 공경할 만한 일이네. 누추한 집이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되어 오늘에야 특별히 재건을

도모하네.”¹²³⁾

사촌은 그가 태어난 야사리(野沙里, 현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를 가리킨다. 상량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진양(晉陽) 하씨(河氏)가 사촌, 즉 야사리에 뿌리를 내리는 데는 규남의 7대조인 하윤구(河潤九, 1570-1646)와 증조부인 하영청(河永淸, 1697-1771)의 역할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들을 통해 하씨가 가학이 틀을 잡았고 규남이 이를 다시 일으킴으로써 그 명맥을 이어 갈 수 있었다.¹²⁴⁾

하윤구는 문과에도 합격하고 관료도 지내 중앙에 이름을 알릴 수 있었고 아울러 지역에도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특히 하윤구는 정두원(鄭斗源, 1581-?)과 친교가 두터웠다. 정두원은 북경에 사신으로 가서 서양 과학기술의 산물인 자명종, 천리경, 그리고 『이마두천문서(利瑪竇天文書)』, 『직방외기』, 『만국전도』 등을 얻어 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런 친교 관계가 하씨 집안의 학문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증조인 하영청에 이르러 가사(家事)에 힘쓴 덕에 하씨가 가산도 늘고 문중기반도 공고해졌다.¹²⁵⁾ 나아가 인근 사족과 저명한 학인 및 산림처사들과 교유(交遊)하면서 향촌의 유력 가문으로 성장하였다. 만년에는 선친의 묘소와 가까운 곳에 병암정사(屏巖精舍)를 지어 연구하고 사색하였는데 거기에는 책들이 벽에 가득하였다. 당호는 수졸헌(守拙軒)이었다.

그는 당시 석학으로 윤봉구(尹鳳九), 김원행(金元行), 송명흠(宋明

123) 「沙村居第上梁文 代仲父作」(『규남문집』 제7권), 467쪽. 『규남문집』은 2017년 4월, 규남박물관·전남대학교·호남문화사상연구원·화순군에서 간행한 번역서를 활용하였다.

124) 이하 진양 하씨의 사정은 이종범, 「조선후기 同福 지방 晉陽 河氏家の 學問과 傳承」(『전남사학』 24, 2005.6)을 참조하였다.

125) 이하 하영청에 대한 사정은 「曾祖屏巖府君家狀」(1826)(『규남문집』 제7권, 家狀), 522-524쪽 참조.

欽), 권진응(權震應)과 같은 제현들과 공유하였으며, 특히 신경준, 황윤석, 홍대용 등 당시 저명한 실학자들과 교유하면서 실사구시의 가치를 수립하였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언어·지리·역사·풍속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당시 서양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은 천문학·수학 등의 연구에서 업적을 남겼다. 하영청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이웃마을에 살았던 나경적(羅景績, 1690-1762)과의 관계도 중요하다.¹²⁶⁾ 나경적은 병암정사에 자주 들러 시문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철제 혼천의’, 자전수차(自轉水車) 등을 제작할 때 하영청과 함께 하였다. 이런저런 영향으로 하영청의 학문은 유학보다는 실용학이나 이용후생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상수학이나 성력(星曆), 갑병(甲兵), 전곡(錢穀), 음양 등을 탐구하였다.

아들 하정철(河廷喆, 1727-1771) 역시 부친 하영청의 곁에서 나경적이 혼천의를 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홍대용이 찾아왔을 때 친교를 맺을 수 있었다. 홍대용은 1765년(영조 41) 북경에 가기 전에 두 차례나 하정철에게 편지를 보내, 동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학적 성취를 지지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도 하였다.

동북의 야사리에서는 하영청, 나경적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 홍대용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통천의(統天儀)를 만드는 특별한 경험이 남아 있었다. 이런 경험은 하정철을 거쳐 규남에게 이어졌다. 이렇듯 규남의 선조들이 대대로 실학자들과 교유하는 동안에 실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깊어졌고 그것이 가학처럼 이어졌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규남 역시 아들들에게 “너희는 힘써 고가(故家)의 전통을 실추시키지 마라”¹²⁷⁾라거나 “우리 가문엔 시례(詩禮)의 청전(靑氈)”¹²⁸⁾ 전해

126) 나경적 관련 내용은 본서의 1장 「조선시대 3대 시계제작자, 석당 나경적」 참조.

127) 「示漢瀾兩兒」(『규남문집』 제1권, 詩), 177쪽. “勉渠無墜故家傳”

128) 靑氈은 푸른 모포로, 선대로부터 전해진 귀한 유물을 가리킨다.

왔으니”¹²⁹⁾라 하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가학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가학의 요소들- 가학을 유지하는 방법

규남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무엇이 필요한지 느꼈고 이를 자식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다. 그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선비가 되기에 필요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대개 명색이 유자(儒者)는 경술(經術)에 밝지 않으면 안 되고, 사학(史學)에 해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필찰(筆札)과 사율(詞律) 따위 일은 비록 유자의 본업이 아니지만 그것도 함부로 보아서 안 된다.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고사(故事)에 매우 어둡다면 또한 무식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것들 하나의 일도 내 몸에 긴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선비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반드시 행세하려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지 않으면 선비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 집안의 서적도 부디 아끼고 보호하여 유실되지 않게 하며, 임의대로 남에게 빌려주지 말거라.”¹³⁰⁾

선비가 되기에 필요한 기량을 꿈으면서 자식들이 이를 꼭 배우도록 가르치고 있다. 즉 경술은 기본이고, 사학, 특히 우리나라의 고사, 그

129) 「海上送瀾兒澄姪」(『규남문집』 제1권, 詩), 184쪽.

130) 「寄子湊瀾 戊戌正月」(1838.1), (『앗으나 서나 눈에 밝히는 얼굴-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2021년 규남박물관 자료집, 글쓴이 하백원, 옮긴이 이영숙·나상필, 규남박물관, 2021.12), 79쪽. 이 편지를 비롯하여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들은 이 자료집에 편지 전문이 원문과 함께 번역 소개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하 자료집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줄여서 썼다.

리고 필찰[또는 簡札]과 사을을 곱았다. 그리고 그 바탕으로 서적의 관리를 부탁하였다.

‘경(經)’ ‘사(史)’ ‘자(子)’ ‘집(集)’ 사부(四部)로 분류하는 전통적인 학문체계에서 일 수 있듯이 유교의 경전을 다룬 ‘경’이 최상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바로 거기에 이어 ‘사’가 있다. 그만큼 ‘사’는 ‘자’나 ‘집’보다 우선할 만큼 사대부에게 필수 학문이었다. 이때 ‘사’는 정확한 사실을 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역사의 사실(史實)을 통해 유교의 교리가 옳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쓴 역사를 통해 유교 교리를 배웠다. 따라서 역사를 알아야 유교적 기준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을 갖출 수 있었다. 정통론을 따라 한국사의 체계를 세우려는 사서들이 유행하던 당시에는 특히 역사에 대한 지식이 중요했다.

교유(交遊)를 위한 필찰과 사을

규남은 큰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재 세상에서 실행해야 할 급한 일은 거의 다 필찰과 사을을 첫 번째로 삼고 있으니 너희 형제도 꼭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하되 반드시 더욱 힘쓰도록 하여라.”¹³¹⁾

라 하였다. 필찰은 편지이고 사을은 운을 맞추어 짓는 사와 율시를 뜻한다. 필찰과 사을에 대해서는

“비록 유자의 본업이 아니지만 그것도 함부로 보아서는 안 된다. … 사

131) 「큰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1834.8),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12쪽.

울과 간찰의 공부를 아울러 꼭 열심히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바로 세간의 지엽적인 재주[行世之末技]라 가소롭고 부끄럽구나.”¹³²⁾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점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 곳곳에서 수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

왜 이렇게 필찰과 사물에 대해 강조하였을까? 먼저 편지는 당시 소통의 수단으로는 으뜸이었다. 아니 그것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규남이 필찰을 강조했던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그는 필찰을 인문(人文)의 단서로 여겼다. 그는 평천옹(平泉翁, 李秉中의 호)이 쓴 『최근유식(最近類式)』에 붙인 서문에서 편지를 “안부를 묻는 예법”으로 전제하면서

“일이 생기면 함께 언급하여 소식을 주고받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이를 통해 처리하였다. 이는 인간사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인문이 발생하게 된 하나의 단서이다.”¹³³⁾

라 하여 편지는 인사의 필수적인 일이고 “인문이 발생하게 된 하나의 단서”이니 결코 말기(末技)로서 하찮게 여길 수 없다고 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편지는 “경전의 말과 사서(史書)의 일은 모두 옛사람이 나에게 준 편지이니, 어찌 꼭 안부를 묻고 기거를 살피는 것만 편지가 되겠는가”라 하여 편지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여 인문의 요체가 거기에 있음을 말하였다. 편지쓰기가 갖는 의미에 대한 인식이 독특하다.

132) 「寄子湊灝 戊戌正月」(1838.1),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79쪽.

133) 「最近類式序」(『규남문집』 제6권, 序), 413쪽. “此人事之不得不然者 亦人文之一端也”

한편, 편지는 인문이란 관점에서는 내용이 우선이겠지만, 눈에 띄는 것은 글씨였다. 그래서 “이번에 너희들의 편지에서 자획이 가늘고 약하여 걱정스러웠다”,¹³⁴⁾ 또 “너희들이 보낸 서찰은 줄곧 거칠고 졸렬한데, 글자와 조어(措語)도 너무나 서툴러서 매우 걱정이다”라 하여 자식들의 필찰의 수준이 떨어짐을 우려하면서 “너희 형제는 부디 간찰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비록 보잘것없는 일이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¹³⁵⁾라 하여 거듭 주의를 주었다.

이를 이렇게까지 강조한 것은 스스로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교유를 위한 수단은 편지로부터 시작한다. 꼭 필요한 순간에 유력인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나아가 뭔가 청탁할 때 그 수단은 편지가 효율적이면서도 어쩌면 유일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사울도 교유관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재능이었다. 당시 선비들 일상의 만남에서 시를 짓는 것은 다반사였다. 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규남 역시 수많은 시를 지었는데 그 대부분은 상대가 있는 시였다. 시가 소통의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나의 졸렬한 문장과 졸렬한 필치도 도성 안에 와서 쓰다 보니 다소 부끄러운 점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처럼 거칠고 서툴러서 어찌 세상에 쓰이길 바랄 수 있겠느냐? … 지금 세상에서 과거 문자에 힘쓰지 않을 수 없으나 서간문, 시문의 격률(格律) 등의 공부와 우리나라 고사[書札詞律等事及東方故事]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¹³⁶⁾

134) 「答三兒書」(1834.9),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18쪽.

135) 「奇兒書」(1836.10),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47쪽.

136) 「三兒同見」(1835.4),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29쪽.



사진 1 규남박물관의 전시관(天工館) 전경. 왼쪽 건물에 병암루(屏巖樓)와 수출헌(守拙軒)의 현판이 걸려 있어 가학의 흔적을 이어주고 있다. 전남 화순군 이서면 아사리 164번지 소재. 규남박물관 제공.

라고 하는 데서 필찰과 사율, 그리고 고사에 대한 지식이 교유관계에서 매우 중요함을 증언하고 있다. 문장이나 필치는 그 모습 그대로 눈에 드러나서 남에게 평가받는 단초가 되고, 시는 그 사람의 인품, 지적 수준을 드러내 보이는 표현물이었다. 규남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 살이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사율과 간찰이라 느꼈던 것이다.

만권택(萬卷宅)이라 불린 수출헌(守拙軒)의 서적

가학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 책이었다. 그는 책을 수집하고 이를 지키는 데 집요하게 집착하였다. 그 책들을 보관하는 도서관 역할을 했던 곳이 수출헌이었다. 그가 「수출헌 《장서록》에 붙인 서문」에서 “우리 집은 서적이 많기로 일찍이 남방에 알려져 고을 사람들이 ‘만권택’이라 불렀다”고 하여 많은 책을 자랑한다.¹³⁷⁾ 그 책들은 하운

137) 「守拙軒藏書錄序」(『규남문집』 제6권, 序), 407쪽.

구 이후 수집, 축적한 것으로 거의 집을 가득 채울 정도였다고 한다. 하윤구가 어떻게 책을 모았는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 재미있다.

“책 파는 사람을 만나면 아끼지 않고 사들였다. 일찍이 『주자어류(朱子語類)』를 구하지 못하였는데 마침 팔려는 사람이 있었으나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었다. 한창 봄 농사철이어서 소가 들녘에서 밭갈이를 하고 있었는데 공은 곧바로 보습을 벗겨내고 소를 주었다. 책을 빌려보기를 청하면 난색을 표하지 않았으나 책을 돌려받을 때에 반드시 편마도 고강하여 그가 부지런히 읽었는지 게으름을 피웠는지를 확인하였다.”¹³⁸⁾

생업에 필수적인 소까지도 팔아 책을 구할 만큼 적극적이었고 책의 관리도 철저했다. 이렇게 애지중지했던 책들이 그 후 불타 겨우 두어 상자만 남았다. 다시 하영청이 온 힘을 다해 수백 권을 사들였다. 병암정사를 지어 사방의 학자들과 교유의 장소로 삼았는데, 만년에 하영청이 병암정사에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도서가 벽에 가득하였으며” 이를 벗삼아 연구하고 사색하느라 늙어가는 줄도 몰랐다고 하였다.

다만 이 책들은 그 후에 또 불타거나 자손들이 팔기도 하는 등 곡절이 많았다. 그러다가 규남 때에 와서 입는 것을 절약하고 먹는 것을 줄이고, 또 직접 베끼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여 천여 권에 이르렀다. 그래서 “아, 이 정도라면 그래도 읽을 만하다”라 하여 만족하였다.¹³⁹⁾

이렇게 서둘러 책을 모은 뜻은 지식을 넓히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책을 축적하여 ‘만권택’이라는 호칭을 회복한다면 또 한 어찌 우리 집안의 계술(繼述; 선조의 뜻을 이어받아 발전시키는 것)하는 한 가지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데 있듯이 가학을 잇는 토대를

138) 「曾祖屏巖府君家狀」(1826)(『규남문집』 제7권, 家狀), 522쪽.

139) 「守拙軒藏書錄序」(『규남문집』 제6권, 序), 407쪽.

만드는 데 있었다. 그래서 더욱 “장부를 만들어 보관함으로써 흠어져 없어질 것에 대비”하게 하였다.

순릉(順陵) 재실에서 큰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산학계몽(算學啓蒙)』을 친구에게 찾아온 것은 다행이라고 하면서 “부디 항상 살피고 검사해서 혹여 한 권도 낙질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경솔하게 남에게 빌려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늘 부모님이 불허한다는 명령을 내렸다면 남이 빌려달라면 사양하는 것이 좋겠구나”¹⁴⁰⁾라고 하였다. 또 “아버지의 명령을 핑계로 결코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흠어지거나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구나”¹⁴¹⁾라 하여 거듭 당부하였다. 단 한 권의 책이라도 흠어지거나 분실될까 봐 남에게 빌려주는 것도 극구 꺼려 하였고 빌려주었으면 반드시 찾도록 하였다.

이는 빌려 간 사람의 지위가 어떠하든, 누구든 가차 없었다. 그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즉

동복현감을 지낸 이인원(李寅元, 1833년 6월 부임, 1837년 5월 永川郡守로 옮김)이 권상하(權尙夏)의 문집인 『수암집(遂庵集)』을 빌려 가 돌려주지 않은 채 영천으로 가버렸다. 규남은 이때 순릉직장으로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큰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다음과 같이 질책하였다.

“산수헌(山水軒) 권공[權震應]이 인쇄한 『수암집』은 우리 하영청 증조부에게 보내준 것이고, 증조부의 손때가 남아있는데, 너는 취하여 가져가는 것을 내버려 두었느냐? … 만약 올해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 상황을 보아 영남 밖으로 심부름꾼을 보내 기어코 찾아오는 것이 좋겠구나.”¹⁴²⁾

140) 「寄兒書」(1837.2),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60쪽.

141) 「寄滌兒書」(1840.1),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107쪽.

142) 「寄子滌 丁酉六月」(1837.6),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67쪽.

아들을 사정없이 질책하면서 증조부의 손때가 묻은 『수암집』을 어떻게든 찾으려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이어서 다시 편지를 보내,

“『수암집』일은 매우 놀랍고 걱정스러운데, 장차 언제 다시 보내줄지 모르겠다. 이제 이곳에서 영천 관아로 편지를 보내 돌려주기를 재촉할 것이나 해가 되기 전에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심부름꾼을 보내 찾아 오게 할 것이다.”¹⁴³⁾

라 하여 다시 다짐하였다. 다만 끝내 돌려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여기에 덧붙여 “광주에서 가져간 『주자어류(朱子語類)』는 돌려받았느냐? 그밖에 각처에서 가져간 책 또한 일일이 돌려받아야 한다”¹⁴⁴⁾라 하였다. 이런 예는 편지글에 너무 자주 보인다. 그중에서도 경기 전령일 때 보낸 편지에서 “집안의 서책은 유실된 것이 없느냐? 나는 한쪽에서 사들이는데 너희들은 한쪽에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¹⁴⁵⁾라고 하는 질책에 그 안타까움이 잘 담겨 있다.

사환과 유배를 마치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며 남긴 시에 “시령엔 여전히 책 가득하니/ 남은 생애 가난하지 않겠군”¹⁴⁶⁾이라 하여 책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143) 「寄兒書」(1837.7),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70쪽.

144) 위와 같음.

145) 「答三兒書」(1840.8),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112쪽. “吾則一邊買得 而汝輩則一邊失之 則何如也”

146) 「還家」(『규남문집』 제1권, 詩), 194쪽.

가학과 과거공부

규남은 경(滢), 석(湫), 익(瀾) 세 아들을 두었다. 규남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는 1834년 창릉참봉 시절부터 1843년 충남 보령 해포(蟹浦) 유배시절까지 규남박물관 소장 초서 간찰 63통과 『규남문집』 권3에 수록된 2통을 포함하여 모두 65통이 남아 있다.¹⁴⁷⁾ 그런데 이들 편지들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내용은 자식들의 ‘공부’에 대한 ‘잔소리’(?)였다.

“너(큰아들 경)는 장차 어디에 응시할 생각이냐? 봄철에는 사이사이 남은 시간을 틈타 부디 독서를 하고, 여름부터 공부는 반드시 많이 짓고 빨리 익히는 것이 관참을 것이다.”¹⁴⁸⁾, “너희 형제(석과 익)는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헛되이 놀지는 않느냐?”¹⁴⁹⁾, “근래에 읽고 있는 책은 어떤 책이냐? 한가롭게 놀고 있는 것은 아니냐?”¹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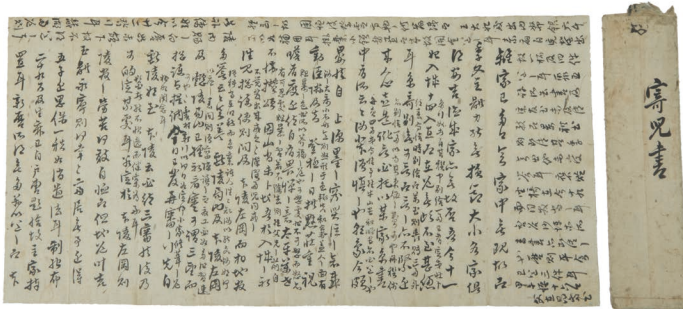


그림 1 「기아서(寄兒書)」. 창릉 재실에서 큰아들에게 보낸 편지(1834.12.16). 도성의 소식과 자신의 근황을 전하고 있으며 공부에 대한 당부를 잊지 않고 있다. 규남박물관 제공

147) 나상필, 「간찰로 본 圭南 하백원(河百源)의 仕宦期 양상 -자식에게 보낸 간찰을 중심으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145-146쪽.

148) 「寄兒書」(1834.12),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22쪽.

149) 「寄湫瀾兩兒」(1835.2),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23쪽.

150) 「寄湫瀾兩兒」(1836.1),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39쪽.

등등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반복하고 있다. 거기에는 “학조와 응손은 모두 빠른 진보가 있느냐? 조카 옥이도 함께 공부하느냐? 부디 나태하지 말라고 하여라”¹⁵¹⁾라 하여 손자와 조카도 빠지지 않았다.

왜 이렇게 자식들의 공부에 연연했는지? 그리고 그 공부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모두 ‘가학’과 관련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앞서 보았듯이 선비가 되기에 필요한 공부로 편지쓰기와 시 짓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사(故事)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다.

그러나 한편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끊임없이 나온다.

“과거는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결국에는 으레 실망하게 되는 법이라 탄식할 만하다. 다만 합격 여부는 운수에 달려있어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이후로는 결코 곡경(曲逕, 세력을 구하는 데 부정한 인연을 말한다)에 마음을 쓰지 말거라.”¹⁵²⁾

라 하여 과거에 급급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다. 손자들에게도 “과거에 흥미가 없는 점은 깊이 탄식할 것이 못 되지만 학조와 응손이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는다니 크게 근심스럽구나”¹⁵³⁾라 하는 정도였다. 과거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는 못했다. 거기에는 당연히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과거가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아무리 모순 많은 제도라 해도, 과거에 합격하면 누구나 하룻밤 사이에 고귀한 ‘사’로 대우를 받게 되고, 사대부라는 특권계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151) 「答兒書」(1838.6),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85쪽.

152) 「寄兒書」1836.9),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45쪽.

153) 「寄兒書」(1839.10),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102쪽.

그 혜택은 합격한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에도 미쳤다. 이처럼 과거를 통해 관료로 진출하는 것은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적 변수였다. 따라서 과거 공부는 가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

큰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번 대정(大政)에서 초사(初仕)는 10여 자리가 되고 수령은 56자리인데 호남 사람이 낙점된 자리는 거의 없다. 오직 무관 수령 한 명뿐이더구나”¹⁵⁴⁾라 하여 호남 출신이 없음을 한탄하였고, 또 “올해 정시(庭試)에 5인을 선발하였는데 모두 불 만한 자들이 없으니 세도(世道)와 관계되지 않은 게 없구나”¹⁵⁵⁾라 하여 과거의 타락도 지적하였다. 이처럼 당시 세도 때문에 호남 출신은 과거에 합격하기도 어렵고 수령과 같은 관직에 나가는 것 또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다. 이런 현실은 규남 스스로가 평생에 걸쳐 경험한 바였다. 하지만 그래도 끝내 과거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비록 그런 사정일지라도 누군가 공부를 열심히 해 과거에 합격하여 가학을 잇고 가문을 키워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런 뜻에서 편지마다 구구절절 공부, 또 공부를 강조하였다.

물염정(勿染亭)과 적벽(赤壁)이 있는 동북

화순 동북은 서울·경기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변방이었지만, 의외로 하윤구, 하영청, 하백원이 당대의 주류 학인들과 교류하면서 흐름을 같이 했고, 대를 이어 가학을 지켜갔다는 점이 놀랍다. 거기에는 물염정과 적벽이 있는 동북이란 장소도 한몫했다.

154) 「寄兒書」(1837.12),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76쪽.

155) 「寄兒書」(1839.5),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95쪽.

먼저 물염정을 보자. 규남은

“중기도 해라 비 갠 뒤 산천경개/ 벼슬아치들 맑은 가을에 모여드네/ 속
된 관리도 신선 연분이 있더니/ 명승지도 세상 인정을 맛보누나”¹⁵⁶⁾

라는 시를 남겼는데 그 시의 제목이 「광주목사 조운명, 옥과현감 홍진
연, 화순군수 서미규 승순, 창평현감 이중흠 화우, 동복현감 이혜백 원
길과 함께 물염정을 유람하다가 이중흠이 시를 짓자 이를 차운하다」
이었다. 시의 긴 제목에서 물염정이 동복의 지역 선비들과 광주를 비
롯한 인근 지방관들이 서로 만나는 교류와 소통의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¹⁵⁷⁾ 하영청도 광주목사로 있던 이병상(李秉常)이 찾아와 함께 물
염정을 유람하고 즐겼다는 기록이 있다.¹⁵⁸⁾

물염정은 ‘화순 적벽’ 상류에 세워진 정자로 물염적벽의 건너편에 자
리 잡고 있으며 무염소(無染沼)가 또 근처에 있다.¹⁵⁹⁾ 규남이 나무송
(羅茂松, 1577-1653)의 영당(影堂) 상량문에서

“저 물염정을 돌아보니 실로 아름다움을 뽐낸 지역이네, 신묘하게 다듬
어진 절벽은 두 손을 잡고 절하는 기이한 모습을 드러내고, 맑은 구슬 소
리를 내며 흐르는 시냇물은 산천을 휘감아 도네, 여기는 송(宋) 금산(錦
山, 宋庭筍으로 나무송·나무춘의 외조부이다)이 은거한 곳으로 비로소
선장(仙庄, 신선이 사는 별장)을 두어, 마침내 주회옹(朱晦翁)이 외손자

156) 「與光州牧 趙雲明, 玉果倅 洪晉淵, 和順倅 徐美揆承淳 昌平倅 李仲欽 和愚 及 縣候 李惠伯源吉 同遊勿染亭仲欽有詩仍次」(『규남문집』 제1권, 詩), 129쪽.

157) 이종범, 앞 글, 272쪽.

158) 「曾祖屏巖府君家狀」(1826)(『규남문집』 제7권, 家狀), 524쪽.

159)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물염정은 송정순의 아버지인 宋駒가 동복현감으로 있을 때 그곳의 뛰어난 경치를 사랑하여 무염소(無染沼) 뒤에 지은 정자라고도 한다.

에게 사자 그림을 전한 것처럼 택상(宅相, 집터의 풍수상으로 나무송·나무춘이 송정순의 외손자가 되었다는 말)을 이루게 하였네.”¹⁶⁰⁾

라 하여 그 유래를 적었다. 즉 물염공 송정순이 관직에서 물러나 이곳 북천의 무염소 뒤에 터를 잡고 정자를 조성하였고, 이를 외손자인 나무송·나무춘 형제에게 물려주었다. 그후 정자가 퇴락하자 나무송이 새로 옮겨 짓고 물염정이라 이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물염정은 2004년 7월에 광주·전남 8대 정자 중 제1호로 지정되었다.

규남은 또 나무송의 영정 족자가 오랜 세월로 낡아 알아볼 수 없게 되자 그 후손의 청으로 이를 보수해주기도 하면서 물염정과의 인연을 이어갔다.¹⁶¹⁾

한편 화순적벽 그중에서 노루목적벽은 또한 지적 교류의 장소로서 독특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적벽삼유록(赤壁三遊錄)』¹⁶²⁾이란 기록이 있어 잘 알 수 있다. 『적벽삼유록』은 규남과 증조 할아버지인 하영청, 4대조 할아버지인 하성구(河聖龜, 1654-1706)가 각각 중심이 되어 여러 선비들과 함께 60년 단위로 세 번에 걸쳐 적벽을 유람하며 지은 시 모음집이다.

왜 이렇게 60년 단위로 적벽 유람을 기획하고 관련 기록을 남겼을까? 이에 대하여 한 연구에서¹⁶³⁾ 그 지향하는 바를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중 첫째, 계지술사(繼志述事)를 통한 가문의 결속력 강화, 둘째,

160) 「羅滄洲影堂上梁文」(『규남문집』 제7권), 479쪽.

161) 「書滄洲羅公影簇後」(『규남문집』, 제6권), 448쪽.

162) 『적벽삼유록』(이영숙·이태희·나상필 번역, 2018.11)은 규남박물관에서 2018 규남박물관 특별전을 개최하면서 원문과 함께 번역하여 발간하였다.

163) 이태희, 「규남(圭南) 하백원(河百源) 가문 소장 『적벽삼유록(赤壁三遊錄)』의 내용과 의의」(『코기토』 86, 2018) 참조.



사진 2 물염적벽 옆을 흐르는 동북천 가에 자리 잡고 있는 물염정은 16세기 중엽 송정순이 세운 데서 유래하며 1591년(선조 24) 외손자인 나무송·나무춘 형제에게 물려주어 지금에 이르렀다. 전남 화순군 이서면 물염로 161 소재.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3호(2001.7.22).



사진 3 화순적벽 중 노루목적벽 전경. 전남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보산리, 장학리 일대 7km에 걸쳐 있는 붉은 절벽을 화순적벽이라 부른다. 화순적벽에는 노루목적벽, 보산적벽, 창랑적벽, 물염적벽이 있는데 그 가운데 최고 절경으로 노루목적벽을 꼽는다. 16세기 전반 최산두(崔山斗)가 동북에 은거하면서 ‘적벽’이라 이름 붙인 데서 유래하였고 수많은 문인들이 유람하고 시를 지었던 곳이다. 화순군청 제공.

세교(世交)하던 가문들 및 향촌 사족 가문들과의 유대감 강화 등을 꼽았다. 이 두 가지가 가학과 직접 관련된 지향이었다. 이중 1802년(순조 2) 세 번째 유람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규남의 역할이었다. 그는 당시 22세 약관의 나이로 그보다 어린 격에 속하는 다른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전면에 나서 가문을 대표하여 서문을 쓰고, 시도 5수나 남기는 등 그 역할이 두드러졌다. 이는 하씨가 가학 전승의 임무가 일찍부터 규남에게 지워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그가 생애 내내 가학의 전승에 그렇게 매달렸는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동북의 물염정과 적벽은 하씨가 가학을 유지하는 매개 장소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하씨의 가학을 지키고 키우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었기에 그런 역할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18-19세기에 지방학인의 입지는 좁아졌지만, 그렇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 동북 지방 하씨의 사례를 통하여 볼 때 비록 경화학과는 차이는 있었지만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끝내 명(命)이 때와 함께 막혔고 불우하게 아랫자리를 전전하느라 경륜을 펼 수 없었으니, 뜻있는 선비의 한탄이 영원히 그칠 수 있겠는가”¹⁶⁴⁾라는 말처럼 규남의 지역적 한계는 스스로 넘을 수 없을 만큼 뚜렷했다.

164) 1943년 단오절에 鄭琦가 지은 「墓誌銘 并序」(『규남문집』 제7권), 540쪽.

조선의 마지막 실학자, 규남 하백원의 과학적 성취들

1) 규남 하백원의 학풍

하백원은 과학분야 연구에 두각을 나타낸 “실학 최후 시기의 학자”로 평가받는다.¹⁶⁵⁾ 그는 당대에 불기(不器), 대유(大儒), 홍유(鴻儒)라 하여 높이 불렸다.

규남은 한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근세 사대부들이 하나의 속(俗)자에 얽매여 과거시험장에 들어가면 속된 선비로 자처하고 벼슬길에 나아가면 속된 관리로 자처합니다. … 만일 본원을 버리고 지엽적인 일을 쫓는다면 실체에 어두우면서 헛된 말을 지껄인다면, 이는 내가 말한 ‘유용한 학문[有用之學]’이 아닙니다.”¹⁶⁶⁾

과거 공부에 매이면 속된 선비, 속된 관리가 된다고 하면서 본원 공부란 ‘속된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용한 학문[有用之學]’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무엇에 유용한 학문인가? 규남이 “일상생활에서 사건에 대응하고 사물을 접촉하는 것이 학문이 아님이 없습니다[日用常行 應事接物 無非學也]”¹⁶⁷⁾라 하는 데서 일상생활이 곧 학문의 대상이고 따라

165) 李鉉淙(국사편찬위원회 편사실장)이 1977년 1월, 景仁文化史의 영인본 『圭南文集』에 쓴 해제 참조.

166) 「이취오 규동에게 보낸 편지[與李聚五奎東]」, (『규남문집(圭南文集)』 제3권 편지), 292쪽. 『규남문집』은 2017년 4월, 규남박물관·전남대학교·호남문화사상연구원·화순군에서 간행한 번역서를 활용하였다.

167) 「김화군수 유성주에게 보낸 편지」1[與俞金化星柱 己丑十二月], (1829)(『규남문집』 제2권 편지), 221쪽.



그림 1 규남 하백원 선생상, 규남박물관 제공

서 유용한 학문이란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학문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본원 공부란 곧 이용후생학이 된다.

이런 생각에서 그는 실생활에 유용한 과학적 기기를 발명하거나 제

작함으로써 학문의 생활화, 도구화를 적극 실천하였다.¹⁶⁸⁾ 이는 규남만의 학문 경향은 아니었다. 이른바 호남 4대 실학자는 모두 백과전서파적 양상, 천문과 지리, 과학기술 등에 대한 관심 등 당시의 유행에 따라 비슷한 이용후생학적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북학사상의 수용과 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는 그를 기린 묘갈명 등에서

“해박한 견문으로 고금의 역사를 꿰뚫었네/ 천지의 운세/ 별자리의 궤도/ 후종과 수차/ 율력과 산수/ 전예(篆隸)와 도장까지 모두 두루 갖추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칼을 대기만 하면 잘려나갔네”¹⁶⁹⁾

라거나

“공은 또 우주 사이의 일은 모두 내 분수 안의 일이라 여기고, 천지의 운세와 별자리의 궤도로부터 율력(律曆), 산수, 후종, 수차의 부류까지 깊이 사색하고 정밀히 연구하여 각각 극치에 이르렀다.”¹⁷⁰⁾

고 하는 데서 시대적 흐름에 조용하는 호남실학의 학풍을 잘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는 이런 규남의 과학적 성취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규남의 생애에서 드러나겠지만, 규남의 학문은 30세 즈음과 40세 즈음의 경향이 많이 달랐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그의 과학적 성취들을 따라가 보자.

168) 안동고, 「조선후기 호남실학에서 하백원(河百源)의 특징과 위상」(2017 규남박물관 학술논문집 『규남 하백원 연구Ⅱ』, 규남박물관, 2017. 10), 220쪽.

169) 「墓碣銘」(宋秉璫, 1899.7), 『규남문집』 부록, 529쪽.

170) 「墓誌銘 并序」(鄭琦, 1943년 단오절), 『규남문집』 부록, 540쪽.

2) 규남 하백원의 생애

하백원의 자는 치행(穰行), 호는 규남(圭南)으로 1781년(정조 5) 1월, 동북의 야사촌(현 전남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에서 하진성(河鎭星)과 모친 장택 고씨(長澤高氏) 고위겸(高撫謙)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규남의 삶은 먼 시골에서 태어난 ‘큰 그릇’의 빛과 그림자가 얹혀있음을 볼 수 있다. 그의 삶이 남긴 자취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자신의 역량을 펴고 싶으나 여의치 않은 현실에서 오는 실망감, 그럼에도 끊임없는 도전,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자존감,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책임감, 이런 것들이 얹히면서 곳곳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치 있는 성과들을 남겼다는 점이다.

그는 어린 시절과 수학기에 꿈을 키우고 그의 재기를 발휘하였다. 17세의 이른 나이에 향시에 응시했으나 낙방, 19세에는 송시열의 5대손인 송환기(宋煥箕, 1728-1807) 밑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또 갓 스물의 젊은 나이에 가문을 대표하여 『적벽삼유록』 중 『삼임술적벽동유록(三壬戌赤壁同遊錄)』(1802)에 서문을 쓸 정도로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그리고 23세에는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 진학으로 서울 나들이를 하였다. 이때 판서 김달순(金達淳, 1760-1806)에게 편지를 보내 배움을 청하기도 하였다.¹⁷¹⁾ 24세 이후에는 집안 사정으로 야사리에 머물며 학업을 이어갔다.

20대에서 30대 초반에는 학업에 대한 의지도 충만했고, 지적 성장의 속도도 빨랐다. 그가 참판 홍석주(洪奭周, 1774-1842)에게 보낸 편지에서 20세 전후의 학업에 대해 말하면서

“비록 능력이 미칠 수는 없었으나, 문장이 때때로 자못 기발하여 스스

171) 「與金尙書達淳 甲子八月」(1804.8)(『규남문집』 제2권, 書), 217쪽.

로 기뻐했습니다. 이에 어리석은 마음이 날로 자라나 역량을 헤아리지도 않고, 망령되어 ‘우주 사이의 수많은 일들을 펼치고 엮어서 모두 나의 소유로 삼은 뒤에야 학문하는 일을 끝마칠 수 있으니, 비록 하찮은 기예나 작은 술수라도 반드시 뜻을 두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¹⁷²⁾

라고 할 만큼 자신만만해했음을 엿볼 수 있다. 또 자식들에게 훈계하면서

“내가 경험한 바를 말하면 스무 살 전후 보고 읽은 것은 지금도 대략 남아있지만 서른 살 이후는 깨진 항아리에 물을 담는 것과 같았다. 사람이 젊어서 부지런히 학습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으니, 뒤늦게 후회한들 어찌 끝이 있겠느냐?”¹⁷³⁾

라고 하는 데서 역시 약관의 수학기 때 가장 총명했었음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

그의 재기는 30, 40대에 구체적 성과들을 낳았다. 1810년(순조 10) 5월경, 규남이 30세 되던 해, 과거에 합격하여 주서(注書)를 지낸 오하철(吳夏哲)이 이웃으로 이사를 왔다. 일찍이 성균관에서 함께 지낸 인연이 있었는데, 다시 만남을 통해 서울 학계의 분위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고, 이것이 규남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맥락에서 『자승차도해(自升車圖解)』를 저술하였고, 이듬해 『동국지도(東國地圖)』를 남겼다.

172) 「上洪參判爽周 丁丑」(1817)(『규남문집』 제2권, 書), 203-204쪽.

173) 「寄子漢瀾 戊戌正月」(1838.1)(『앗으나 서나 눈에 밝히는 얼굴-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2021년 규남박물관 자료집, 글쓴이 하백원, 옮긴이 이영숙·나상필, 규남박물관, 2021.12), 78쪽. 이 편지를 비롯하여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들은 이 자료집에 편지 전문이 원문과 함께 번역 소개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하 자료집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줄여서 썼다.

30대 후반인 1816년(동 16) 가을, 진사시 이후 14년만에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갔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듬해 다시 서울로 갔다. 이 기간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당시 서울 학인(學人)들과의 교유를 통해 서양 학문에 눈을 떴다. 그리하여 「역상차록(曆象筭錄)」, 「호옥재기운주설변」(胡玉齋葦閨註說辨) 등을 짓고, 『황도총성도(黃道總星圖)』를 제작하는 등 천문학에 대한 성과들을 남겼다. 이는 그의 학문 경향에 큰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증좌들이었다.

규남은 더 큰 학문에 대한 욕구가 간절하였다. 그래서 40세 되던 1820년(동 20) 판서 이희갑(李羲甲, 1764-1847)에게 편지를 올려 연경으로 가는 사신 행렬에 따라가 중국의 문물을 체험하고 싶다는 소원을 간곡하게 내비쳤다. 새로운 학문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컸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사되지 못하였다. 다만 이듬해 세계지도인 「태서회사이마두만국전도(泰西會士利瑪竇萬國全圖)」를 그려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아쉬움을 달랬다.

그리고 이후 계속 과거에 응시하기도 하고, 또 집안과 연고가 있는 오희상(吳熙常), 유성주(兪星柱) 등 유력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다. 절절함이 엿보인다. 이런 모든 시도들이 여의치 않자, 40대 후반에는 실의기(失意期)를 맞는다. 시를 통해 그런 정서를 표현했다.¹⁷⁴⁾ 그는 시를 통해 “내 나이 사십구 세/ 침체한 삶 스스로 아는 것”,¹⁷⁵⁾ “본래 재주 없게 태어난 규남 늙은이/ 한평생 어리석은 삶 누가 시기할까”¹⁷⁶⁾라 하는 등 많은 시에서 우수에 젖어 신세를 한탄할 만큼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 1832년(동 32) 52세 때 자명종을 제작하였다.

그러다가 1834년(동 34) 54세의 늦은 나이에 전라도 관찰사의 천거

174)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명희, 「규남 하백원 시에 나타난 情懷의 변모 양상」(『규남 하백원의 실학사상 연구』, 규남실학사상연구회편, 경인문화사, 2007.12), 217쪽 참조.

175) 「歲暮端居偶次李白紫極宮韻」(『규남문집』 제1권, 詩), 127쪽.

176) 「平溪七夕夜坐」(『규남문집』 제1권, 詩), 154쪽.

로 창릉참봉의 관직에 나가면서 사환기(仕宦期)를 맞는다. 근 10년에 걸친 관직생활 동안에 의금부도사나 형조좌랑 등을 거친다. 그러나 실의기의 감정은 사환기에도 여전히 이어졌다. 「금오에서 밤에 숙직하며」란 제목의 시에서조차 “앞날의 계획 모두 어긋났구나/ 남쪽 고향 내 집은 어디메인가”¹⁷⁷⁾라거나 “부끄러워라 낮은 벼슬로 늘어가는 잠랑(潛郎)”,¹⁷⁸⁾ “한미한 벼슬로 대장부의 몸 그르쳤지/ 문득 팔 년을 고향 떠난 나그네”¹⁷⁹⁾라 하여 느지막이 사환길에 나섰으나 낮은 벼슬에 머무르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워했다.

실의기와 사환기를 거치면서 아쉽게도 과학적 성취로부터는 멀어졌다. 반면에 가학을 세우는 일에 더욱 집착하였다. 자식들에게 보낸 많은 편지글에 그런 심정을 절절히 담았다. 자신이 다 못한 성취를 다음 세대에서만나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사환기의 끝에 불행히 유배를 당하였고, 유배에서 1년 만에 풀려나 집으로 돌아와 이듬해 1844년(헌종 10) 8월, 생을 마쳤다.

3) 30세 즈음의 성취들

그는 젊은 시절에 “우주 사이의 수많은 사물들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모두 내 것으로 삼은 이후에 일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¹⁸⁰⁾라 하여 백과전서파적 지향이 있었음을 말한다. 이 또한 당시 시대적 조류였다. 30세 즈음은 이런 시대적 조류 안에서 가학 및 지역적 전통에 기반하여

177) 「直金吾夜」(『규남문집』 제1권, 詩), 162쪽.

178) 「次水館主人韻 己亥」(1839)(『규남문집』 제1권, 詩), 171쪽.

179) 「生朝有感」(1840)(『규남문집』 제1권, 詩), 171쪽.

180) 「김화군수 유성주에게 보낸 편지」1[與俞金化星柱 己丑十二月](1829)(『규남문집』 제2권 편지), 226쪽.

창의력을 발휘하였다. 그 성과로는 수차인 자승차가 대표적이고 『동국지도』가 그 뒤를 이었다.

(1) 『자승차도해(自陞車圖解)』

규남의 과학적 성취로 첫손에 꼽는 것은 수차인 자승차이다. 자승차는 흐르는 냇물의 힘을 이용하여 낮은 곳의 냇가에서 물을 퍼 올려 지대가 높은 곳의 논으로 대주는 기계란 뜻으로 자동양수기에 해당한다. 이는 30세 때의 성과였다.



그림 2 『자승차도해』 표지(우) 및 내용 일부(좌). 규남박물관 제공

① 배경

규남이 왜 수차에 관심을 가졌을까?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

18세기 중반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수차와 수리학(水利學)에 대해 종전과는 다른 관심을 보였다.¹⁸¹⁾ 그 하나로 1795년(정조 19) 전좌랑 이우형(李宇炯)이 상소를 올려 물이 흐르는 곳[流水處]에서는 용미차(龍尾車)를 쓸 수 있고, 용골차(龍骨車)가 그 다음이고, 물이 멈춰 있는

181) 이하 수차에 대한 일반 사항은 문중양, 「조선후기의 水車」(『한국문화』 15,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4)를 참조하였다.

곳[止水處]에서는 항승차(恒升車)를 쓸 수 있고, 옥형(玉衡)이나 고전(高轉) 같은 것들도 좋으니 전국적으로 통행하자는 건의를 한 예를 들 수 있다.¹⁸²⁾

그러던 것이 1798년(동 22)에 정조가 내린 「권농정구농서윤음(勸農政求農書綸音)」을 계기로 수차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윤음에서 수차를 포함한 ‘흥수공(興水功, 수리사업을 일으킴)’을 제일 강조했던 것의 영향이 컸다. 정조는 윤음에서

“농사짓는 근본은 부지런함과 수고함에 달려 있는데, 그 요체는 역시 ①수리 사업을 일으키고[興水功], ②농작물을 토질에 맞게 심으며[相土宜], ③농기구를 잘 마련하는 것[利農器]뿐이다. 이 세 가지가 그 요체인데, 그 가운데서도 수리 사업[水功]이 첫 번째를 차지한다.”¹⁸³⁾

고 하고, 이어서 전국의 유생들과 관료들에게 농사일에 도움이 될 만한 견해가 있으면, 상소를 올리거나 책으로 엮어 바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특히 “이속(異俗)에 빠지거나 예전 방법에 구애되지 말고, 바닷가와 산골, 기름진 땅과 메마른 땅에 맞추어서 각자 마땅한 방법을 진달하라”고 명하였다.¹⁸⁴⁾

이에 대해 올린 상소문들에서 수공에 대한 주요 관심은 여전히 “제언과 보·제방의 수축”이었지만, 수차도 자주 거론되었다. 그만큼 수차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특히 전 감찰 이우형은 또 다시 용미(龍尾), 고전통차(高轉筒車), 항승차(恒升車) 등을 중심으로 수차에 대한 의견을 올렸다. 호남 출신이었던 이우형은 “수차를 만드는 법은

182)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1795) 2월 18일 경오 2번째 기사.

183) 『정조실록』 50권, 정조 22년(1798) 11월 30일 기축 1번째 기사

“農之本，在乎勤與勞，而其要則亦惟曰興水功也，相土宜也，利農器也。三者爲要，水功居先”

184) 위와 같음.

전 찰방 이우형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라 할 만큼 수차 전문가로 식자층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또 강진(고창?) 출신 이여박(李如樸, 1740-1822)¹⁸⁵⁾ 역시 용미차를 개발, 시험 제작, 가동하기도 하고, 「진수차설소(進水車說疏)」를 지어 바치기도 하였다. 이처럼 수차에 대한 이해는 농업지대인 호남지역에 특히 널리 퍼져 있었다.

특히 신경준은 『수차도설(水車圖說)』에서 조선에서는 처음으로 『태서수법(泰西水法)』의 용미차·옥형차·항승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그림과 함께 구체적으로 옮겨 놓았다. 알다시피 신경준은 규남의 증조 하영청의 먼 친척이었고, 1754년(영조 30)에는 직접 하영청을 찾아와 교류한 적도 있었다. 더 나아가 하백원이 살던 동북지역에는 이미 나경적이 자전수차를 제작할 정도로 수차에 대한 지식이 확산되어 있었고, 나경적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명종과 자전수차에 대한 지식은 증손자 나상근에게까지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하백원은 나상근과 동시대에 한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자동기기에 대한 관심이 컸으리라 여겨진다.

수차 및 수리학에 대한 지식의 유행, 정조의 율음, 또 타지역에 비해 유난히 서양식 수차에 대한 지식이 많이 보급되어 있던 호남지역, 그 중에서도 나경적이 남긴 동북의 지적 맥락 등이 규남으로 하여금 일찍부터 수차에 관심을 갖게 한 배경이 되었다. 더구나 규남은 중국의 전통적 수차나 서양식 수차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 태도가 있어 자승차라는 창성(創成)적 성과를 낼 수 있었다.

② 자승차의 구조와 작동원리

규남은 “비옥한 들판과 기름진 토양이 지세가 조금만 높으면 열흘의 가뭄에 이미 타들어 감을 걱정해야 하니,”¹⁸⁶⁾ 이를 돕기 위해 ‘자승(自

185) 김덕진, 「조선후기 서양식 수차와 실학자 李如樸」(『남도문화연구』 제33권, 2017)

186) 「自升車圖解說」, 『규남문집』 제5권, 잡저, 374쪽.

升)’이라 이름을 붙여 사람의 힘을 수고롭게 하지 않고도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였다.

어떻게 ‘자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는 다음과 같이 물의 성질을 이해하였고 그와 같은 물의 성질에 따르면 ‘자승’이 가능하다고 여겼다. 즉

“물의 성질은 가운데가 채워지기 때문에 빈 곳으로 나아갈 수 있고, 어떤 물건이 막으면 물은 나아갈 수 없다. 물이 아래로 나아간다 함은 물이 위아래로 나뉜다는 것이 아니라 빈 곳을 따라 흘러갈 뿐이다. 샘물이 아래에서 솟아나와 위로 넘치는 것을 보면, 사람이 물을 인도하여 격동시켜 노하게 할 수 있고[격노(激怒)], 빨아들여 취할 수도 있으며[흡취(吸取)], 몰아서 올라가게 할 수도[구승(驅升)] 있음을 알게 된다. 지금 이 수차는 다섯 방향[오방(五方), 동·서·남·북·중앙]을 채우되 가운데를 통하게 하고 위를 비워두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것은 있지만 나가는 것이 없어 저절로 빈 곳을 따라 위로 올라간다. … 수차를 자승이라 명명한 것은 실로 물의 성질을 따랐기 때문”¹⁸⁷⁾

이라 하였다. “빈 곳으로 나아가는” 물의 성질을 이용하여 ①격노(激怒), ②흡취(吸取), ③구승(驅升)의 세 단계를 거치면 자동양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수차를 방통(方筒, Cylinder), 수륜(水輪, Gear), 가(架, Frame)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흐르는 강물이 평조(平槽)에서 언조(偃槽)로 주입되면, 부채처럼 생긴 수삽(水簣, Turbine)을 쳐서 회전하게 하여 수륜을 돌게 하고[①격노] 여기에 연결된 쌍륜이 돌면서 수저(水杵, Piston, 공이)의 치를 밀어 오르내리게 한다. 이때 방통 아

187) 위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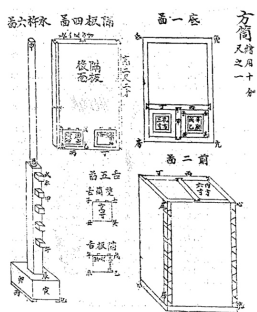


그림 3 실린더와 피스톤에 해당하는 방통(方筒)의 구성 부분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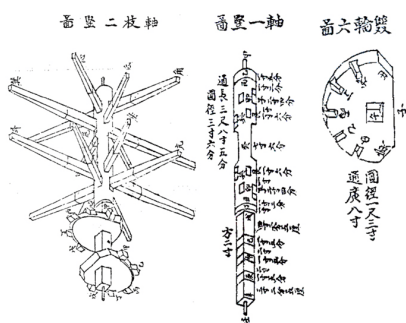


그림 4 흐르는 강물을 받아 동력을 얻는 수륜의 구성 부분 그림. 수차까지 상세히 적어서 누구나 제작이 가능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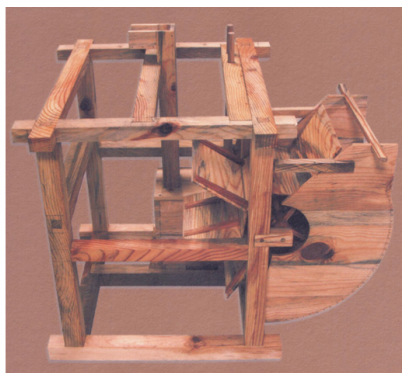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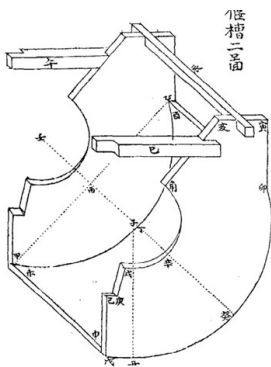


그림 5 물이 주입되는 언조(堰槽)(좌)와 『자승차도해』에 따라 복원한 모형(우)

래 설치된 두 개의 설(舌, 밸브)이 엇갈리게 움직여 수저가 올라갈 때 물을 빨아들여 앞 통을 채우고[②흡취], 다시 수저가 내려가면서 고인 물을 뒤 통으로 몰아 올라가는 통을 따라 올라가[③구승] 양수가 가능하도록 구상하였다. 수차의 이름을 자승이라 한 것도 빈 곳으로 나아가는 물의 성질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한 것이었다.¹⁸⁸⁾

188) 자승차의 구조나 원리 등에 대하여는 『조선시대 자동양수기 자승차』(2016 규남박물관 특별전, 규남박물관, 2016.9)에 수록된 정동찬·윤용현·윤광주, 「自陞車의 復元과 實驗研究」; 임광철, 「규남 하백원의 자승차도해 수리적 해석」 등과 「규남 하백원 연구Ⅱ」(2017 규남박물관 학술논문집, 규남박물관, 2017.10)에 수록된 정명현, 「하백원의 자승차 개발·가장

③ 창성적 성과

규남의 자승차는 어떤 점에서 여타와 구별되는 각별한 의미를 지닐까? 첫째는 ‘창성일법(創成一法)’이란 생각 자체이다. 규남은 기존 수차들이 지닌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책들을 고증하여 “스스로 천 번 생각한 끝에 터득한 바가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을 창안하여 완성시키고 [創成一法]”라 하여 자승차를 ‘창성’했다고 하였는데, 바로 스스로 창안했다는 그 점을 첫손에 꼽을 수 있다.

둘째는 도해(圖解), 즉 수치가 포함된 그림 설명서를 붙였다는 점이다. “상세히 그림 설명서로 드러내어 농부들에게 보게끔 한다. 온 나라 사람들이 이를 본떠 행하여 월나라의 호미나 연나라의 함처럼 여긴다면, 족히 풍속을 이롭게 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다”라 하였다. 농부들이 누구나 도해를 통해 보고 만들어 활용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을 담았다. 이는 창성의 성과를 농부들에게 나누어 이용후생의 뜻이 널리 퍼질 수 있기를 바라는 뜻으로 여기에 진정 실학의 정신이 담겨 있다.

셋째는 새로운 기술적 장치들이다. 그 하나는 축, 수삽(水簣), 쌍륜으로 이루어진 수륜의 원형 회전운동이 수저의 직선운동을 만들어내도록 구상한 점인데, 당시에 이 두 운동이 결합된 수차는 없었다.¹⁸⁹⁾ 다른 하나는 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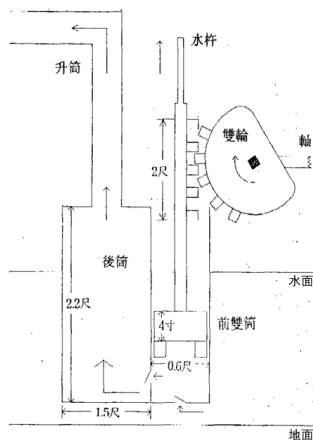


그림 6 자승차의 작동 원리. 문중양, 『조선후기의 수車』, 『한국문화』 15,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4), 337쪽에서 재인용.

정교한 수차설계」등을 참조하였다.

189) 정명현, 같은 글, 180쪽

의 흐름이 지나치게 빨라 수륜과 수삽이 급하게 돌아가 수저가 미처 오르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별도로 축을 만들고 대소전륜(大小全輪)을 설치하여 느리게 하는 장치를 고안하였는데, 이 또한 매우 새로운 시도였다.

④ 당대의 평가

조선 식자층이 지니고 있던 수차지식은 19세기 전반에 서유구(徐有渠, 1764-1845)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본리지(本利志)』, 『관개도보(灌溉圖譜)』 편에 잘 정리되었다.¹⁹⁰⁾ 거기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하백원의 『자승차도해』이다. 『기기도설(奇器圖說)』, 『제기도설(諸器圖說)』, 『태서수법(泰西水法)』 등과 나란히 『자승차도해』 전문을 그 대로 소개하고 있다. 이는 서유구가 어떤 수차보다도 자승차의 정밀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서유구는 1834년(순조 34) 전라감사로 있을 때 규남의 자승도해를 보고 이를 실용화하기 위해 규남에게 편지를 보내 부탁하였다. 그는 자승차에 대해 “집안마다 이 기계를 설치하여 가뭄에는 물을 끌어올리고 장마에는 물을 끌어내린다면, … 이 용후생에 어찌 보탬이 적다 하겠는가?”라 하고, 표본제작을 거쳐 농정과 수리에 서둘러 이용하려 하였다. 다만, 이에 대해 규남이 “자승차도해는 곧 10여 년 전에 붓 가는 대로 써두고 미처 시험 삼아 활용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사용할 때가 설명할 때와 다를까 염려되어 감히 남에게 꺼내 보이지 않았습니다”라 하면서 “시험 삼아 활용해보지 않은 설계”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해 실현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자승차도해』 전문은 『임원경제지』에 그대로 실렸다. 이는 서유구가 자승차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했는지 단적으로 증명해준다.

다만, 온갖 창성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자승차는 실제로 작동되지 못

190) 문중양, 앞 글, 308-310쪽.

했다. 이는 당시 과학기술 내지 실측·실험의 현실적 한계, 정밀 제작 능력의 부족 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인접과학들이 같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또 자금 능력도 풍부해야 했으나 이는 시골 지식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2) 『동국지도』

규남 하백원이 30세 즈음에 이룬 성취들 중 자승차에 이어지는 것이 『동국지도(東國地圖)』였다.

호남의 다른 실학자들도 이미 지도와 지리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관련 저술들을 남겼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규남도 자승차를 고안한 이듬해에 『동국지도』를 완성하였다. 『동국지도』는 조선 전체를 한 폭에 그린 「동국전도(東國全圖)」와 전국을 8장에 나누어 그린 「팔도분도(八道分圖)」로 구성되어 있다. 「동국전도」는 『동국지도』의 총설에 해당하는데 이를 그려 맨 앞에 둔 이유로 “먼저 전도 한 폭을 실어 편리하게 (전체를) 보며 살필 수 있게 하였다”라고 적어 실용성을 높이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총설 끝에 “1811년 늦봄 3월에 수졸헌 주인이 모사하여 그리다”라 하여 모사본임을 밝히고 있다. 모사한 지도의 원본은 정상기(鄭尙驥, 1678-1752)가 1740년대에 제작한 ‘동국지도’의 원도 계통으로, 정항령의 수정본 지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⁹¹⁾

규남은 왜 이런 지도를 그렸을까? 『동국지도』가 완성되자 규남은 오대언(吳大彦)과 운(韻)자를 내어 함께 부(賦)를 지었는데, 거기서

“지도 펼치고 어찌 작은 동방을 탄식하라/ 단군·기자의 옛 유풍 아직 남아 있는 것을/ 산은 발해에 이어져 변방의 요새 웅장하고/ 땅은 유독 기름

191) 이기봉, 「규남 하백원(圭南 河百源, 1781-1845)의 『만국전도 萬國全圖』」(『규남 하백원의 지도』, 2013 규남박물관 지도특별전-산은 발해로 이어지고, 2013.11, 도서출판 사람들), 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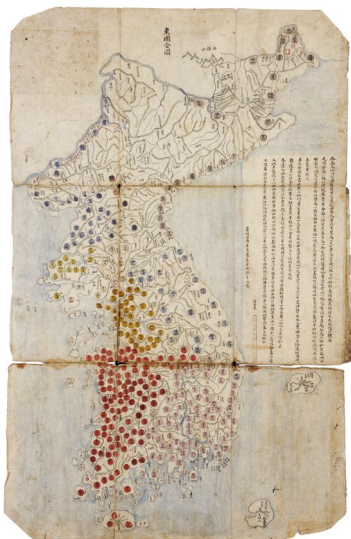


그림 7 『동국지도』 중 조선 전체를 한 폭에 그려 맨 앞에 둔 「동국전도」이다. 일상에 이용하기 편리한 크기로 작성하여 실용적인 면모를 잘 드러냈다. 오른쪽 공간에 서문과 함께 백리척 축적을 그려 실제 거리를 짐작케 하였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 285호. 규남박물관 제공.



그림 8 『동국지도』 중 전국을 8장에 나누어 그린 팔도 분도의 하나로 경기도·충청도를 한 폭에 그렸다. 규남박물관 제공

저 해마다 곡식 풍년이라/ 강토는 비로소 삼한 이후에 커졌고/ 팔도에서
서울 경기가 가장 존귀하다네/책상에 늘어 놓고 명승지 찾으면 그뿐/ 집
나서 어찌 수레 타고 사방을 돌아다닐까”¹⁹²⁾

라고 하였다. 당시의 조선중화주의에서 발현된 국학적 관심, 내 땅에 대한 의식 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남의 여타 실학자들이나 정상기가 갖고 있던 지리에 대한 관심과 다르지 않았다.

한편 지도 제작에서 특기할 점은? 당시 지도 제작의 특징에는 대축적 지도의 발달을 꼽을 수 있고, 또 지도 제작에 천문의기를 활용하는 등

192) 「東國地圖成與吳大彥拈韻共賦」, 『규남문집』 제1권, 시, 90쪽.

새로운 과학을 수용하려 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즉 신경준이 지리는 반드시 천문을 연구한 뒤에 방위와 대소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하였고, 실제로 정항령과 함께 간평의(簡平儀)를 사용하여 국토의 사방 모서리에서 해와 달의 궤도를 측정하여 지도 제작의 일을 완성하려고 하였던 사례 등이 그것이다. 다만 정항령이 먼저 죽어 끝내 이루지는 못하였다.¹⁹³⁾

규남 역시 대축적지도에 버금가는 「동국전도」를 그렸고, 백리척을 기준으로 팔도의 형태와 축척을 같게 만들어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게 만드는 등 실측을 토대로 한 실용적 지도를 만들고자 하였다.

4) 40세 즈음의 성취들

37살이 되던 해, 스스로 공부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서울로 가서 시대의 흐름을 익히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부족함을 느껴 중국에 직접 가서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자 하였다. 여기저기 부탁도 하는 등 노력해 보았지만, 뜻대로 안 되었다. 변방에 살고 있던 벼슬 없는 선비의 안타까움만 반복할 뿐이었다. 시절과 지역을 잘못 만난 탓이라고... 그래도 서울에 머물면서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40세 즈음의 성취들이 나타났다.

그는 서울 생활을 통해 새로운 시대 조류를 읽었고 특히 서양문물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영향으로 세계, 그리고 우주로까지 관심의 영역을 넓혀 갔다.

193) 양보경, 「圭南 河百源의 『萬國全圖』와 『東國地圖』」(『규남 하백원의 지도』, 2013 규남 박물관 지도특별전-산은 발해로 이어지고, 2013.11, 도서출판 사람들), 63-65쪽.

이때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안여필(安汝必)에게 보낸 편지글이었다.

“근래에 강희제가 편찬한 『율력연원(律曆淵源)』을 보았는데, 이것이 비록 심신의 일에는 절실하지 않지만 또한 하나의 기예로 보아 하찮게 여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중 『수리정온(數理精蘊)』은 곧 상고의 오묘한 것을 미루어 넓힌 것인데, 하도(河圖)의 위치에 따라 1을 더해서 생성의 숫자를 얻고, 낙서(洛書)의 좌우를 서로 돌면서 승제(乘除, 곱셈과 나눗셈)의 근원을 밝히니, 조화의 정밀한 이치를 다 드러내어 다시는 남김이 없다고 말할 만합니다. 그중 『역상고성(曆象考成)』이 있는데 평행 실측의 효과는 하승천·곽수경 무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 『수리정온』과 『역상고성』은 대략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나, 『율력정의(律呂正義)』는 더욱이 평소에 어두워서 많은 시일과 많은 정력을 들여도 얻은 것이 없을까 두려울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마주 보고 한번 토론하여 이 어리석음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¹⁹⁴⁾

『율력연원』은 수학, 천문, 음률에 관한 방대한 책으로 『수리정온』, 『역상고성』, 『율력정의』 등 3부작 총 100권 분량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수학에 관한 부분이 『수리정온』이고, 천문역법에 관한 부분이 『역상고성』이며 음률에 관한 부분이 『율력정의』이다. 이 편지글을 통해 규남이 천문학, 수학 등 명물도수학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대적 분위기였다. 조선 후기에 지식인들은 서양과학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역법과 역법 추산에 필요한 산법류였다. 18세기 중엽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천문학과 수학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학습하고 논의하는 지식인들

194) 「與安汝必 乙酉正月」(1825), 『규남문집』 제3권, 편지, 271쪽.

은 여럿 있었다. 19세기 전후 유가 지식인들에게 천문학과 수학은 마치 교양처럼 경학을 위한 필수지식이 되고 있었다.¹⁹⁵⁾ 이는 서울에만 그치는 것도 아니었다. 그 지방 사례가 바로 규남이었다. 규남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을 남겼을까?

(1) 『만국전도(萬國全圖)』

이때를 즈음하여 규남은 무엇보다 세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래서 중국을 가고 싶어했다. 중국을 보아야 조선중화주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판의 금부사로서 동지정사에 임명되어 청나라에 가게 된 판서 이희갑에게 편지를 보내 사행길에 따라가 중국을 배우고자 하는 뜻을 간절히 표하였다.¹⁹⁶⁾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자 이듬해 그 대신 넓은 세상에 대한 여망을 담아 세계지도인 『만국전도』를 그렸다.¹⁹⁷⁾

규남이 제작한 세계지도의 제명은 ‘태서회사이마두만국전도(泰西會士利瑪竇萬國全圖)’이다. 서양의 기독교 선교사 이마두(利瑪竇, Matteo Ricci)가 만든 세계지도란 뜻이다. 제명만 보면, 이마두가 제작한 ‘만국전도’를 바탕으로 만든 지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마두는 ‘만국전도’라는 이름의 지도를 제작한 적이 없었다.

규남의 지도와 외형상 유사한 지도는 『천하도지도(天下都地圖)』이다. 따라서 규남의 『만국전도』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알레니(艾儒略, Giulio Aleni)가 1623년 간행한 『직방외기(職方外紀)』에 실린

195) 고석규, 『역사 속의 시간 시간 속의 역사』(느낌이있는책, 2021) 중 「고비에 선 19세기 천문과학」, 357쪽 참조.

196) 「上李尙書義甲 甲辰」(1820), 『규남문집』 제2권, 편지, 210쪽.

197) 이종범, 「조선후기 同福 지방 沔陽 河氏家の 學問과 傳承」(『규남 하백원의 실학사상 연구』, 규남실학사상연구회편, 경인문화사, 2007), 286쪽.

『만국전도』를 바탕으로 하여 그린 지도로 판명되었다.¹⁹⁸⁾ 그런데 ‘이마두’를 지도 제목에 포함시킨 것은 마테오 리치가 서양 학문과 세계지도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 사회에서 ‘이마두’라는 용어는 마테오리치 개인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이기도 했지만 서양 선교사 일반을 지칭하는 보통명사로 통용되기도 했다. 서양 선교사들의 저술과 행위가 이마두의 그것으로 환원되는 경향도 있었다.¹⁹⁹⁾

이미 시헌력 채택으로 서양 역법의 우수성이 공인된 상태에서 서양 선교사가 제작한 세계지도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초기에는 한양과 근기 지역의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서양의 지식이 전파되었고 서학의 이해가 무르익는 18세기에는 지방에서도 일부 학자들이 서구식 세계지도를 접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당시 지식인들에게 서구식 세계지도



그림 9 태서회사이마두만국전도(泰西會士利瑪竇萬國全圖). 하백원이 1821년에 제작한 세계지도로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와 남반구의 세계 각 나라들이 지금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세계에 눈을 뜨게 된 40세 즈음 규남의 새로운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 285호.

198) 양보경, 「圭南 河百源의 『萬國全圖』와 『東國地圖』」(『규남 하백원의 지도』, 2013 규남박물관 지도특별전-산은 발해로 이어지고, 2013.11, 도서출판 사람들), 58쪽.

199) 구만옥, 「『利瑪竇』에 대한 朝鮮後期 지식인들의 이해와 태도」(『한국사상사학』 제36집, 2010.12), 38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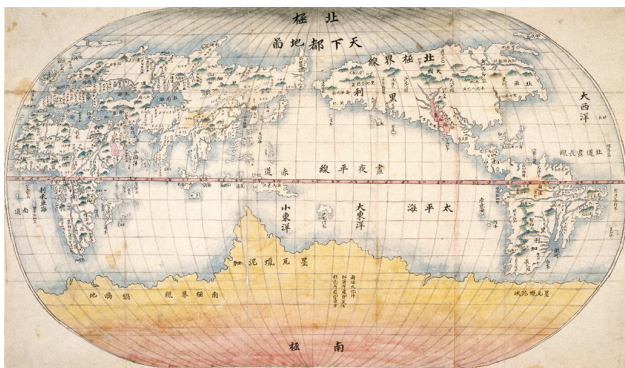


그림 10 『여지도(輿地圖)』(奎古4709-78) 제1책에 수록된 「천하도지도」(天下都地圖). 보물 제1592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이 지도는 알레니(艾儒略, Giulio Aleni)가 펴낸 『직방외기(職方外紀)』에 실린 「만국전도」와 비슷해 이를 모본으로 그린 지도라고 본다. 규남이 그린 「만국전도」도 이와 같은 계열로 보고 있다.

는 단순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물(異物)을 넘어 하나의 탐구 대상이 되었다. 일종의 유행이라 할 정도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²⁰⁰⁾

(2) 천문역법 - 「역상차록(曆象筭錄)」과 『황도총성도(黃道總星圖)』

조선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1654년(효종 5)부터 대통력 대신 서양역법을 적용한 시헌력을 공식역법으로 받아들였다.

규남의 시기에는 이미 시헌력이 정착되었을 때였다. 따라서 서울 방문을 통해 천문학에 대한 담론들이 지식인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었음을 보았을 것이고, 이에 그 자신도 이에 대한 글을 남기게 된다. 38세 때인 1818년 10월에 「역상차록」(曆象筭錄: 천체의 운행에 관한 글들을 보고 든 생각을 적다)을 짓고, 2년 후에 「호옥재기운주설변」(胡玉齋基閏註說辨: 옥재 호방평의 기운 주석에 대한 변론)을 지었다.

이중 「역상차록」을 보면, 대통력과 비교, 검토하면서 시헌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거기서 “세차의 정확한 수에 대해 살펴보면 시

200) 오상학, 「조선시대의 세계지도와 세계 인식」(『지리학논총』 별호 43, 2001), 139쪽.

현력도 정밀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다만 옛날 역법과 비교해 보면 정밀하다”라 하여 그 정확도를 평가하지만 “시현력 적분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였다”거나 “시현력에서 태양의 출입은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하여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한 예만 보면, 그는

“동지와 하지 전후로 각각 15일 동안 점점 길어지거나 점점 짧아지는 것이 단지 3분이고, 춘분과 추분 전후로 각각 15일 동안 점점 길어지고 점점 짧아지는 것이 18분에 이른다. 동지와 하지에 태양의 운행은 어찌하여 너무 느리고, 춘분과 추분에 태양의 운행은 어찌하여 너무 빠른가?”²⁰¹⁾

라 하였다.

서양역법에 기반한 시현력과 기존 대통력의 가장 큰 차이는 절기배치법이었다. 서양천문학에서는 태양이 실제로 부등속운동을 한다는 점을 알았고, 따라서 절기의 간격을 달리하는 배치법, 즉 정기법(定氣法)을 적용하였다. 정기법은 태양이 황도상에서 15도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한 절기로 정하였다. 그런 까닭에 여름과 겨울의 절기 간격이 달랐다.

위 인용문을 보면, 규남은 정기법에 의한 절기배치법의 방식은 이해하나 그 원리가 되는 태양의 부등속운동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로서는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그래도 그 복잡한 천체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한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

또 이때를 즈음하여 황도 남북의 별자리를 그린 『황도총성도』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도총성도』는 1723년 서양선교사 최글리

201) 『규남 하백원의 천문역법』(2019 규남박물관 특별전, 규남박물관, 2019.11) 중 「천체의 운행에 관한 글들을 보고 든 생각을 기록하다. 曆象筭錄 戊寅十月」

(Ignaz Kögler, 戴進賢)가 제작한 서양식 천문도인 『황도총성도』를 모사한 것으로 보인다.

5) 규남박물관이 과학 전남의 꿈을 심어주는 산실로 거듭나길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인구에 회자되는데, 19세기에 처음 나온 ‘산업혁명’이란 말을 여전히 쓰고 있듯이 산업혁명은 현재까지도 세계 나라들의 순위를 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변화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에서 왔다. 과학기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역사 발전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규남은 앞서 본 것처럼 자승차 이외에도 자명종,²⁰²⁾ 계영배, 방적기, 와륜 등 과학적 기계를 다수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많은 저술들과 유물들이 소실되었는데 그것들이 온전히 남았다면 더 큰 인물로 조명받았으리라 믿는다.

최후의 지방실학자로서 규남이 남긴 과학기술, 천문과 지리 등에 남긴 성취들은 과학 전남의 미래를 위한 가능성으로 지금 오히려 더 가치를 빛내고 있다. 규남의 흔적들을 올곧게 보존하고 전시·연구하고 있는 규남박물관이 전남의 아이들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주는 산실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02) 자명종에 대하여는 2017 규남박물관 학술논문집 『규남 하백원 연구Ⅱ』(규남박물관, 2017.10)에 수록된 「하백원과 안수록의 왕복간찰에 대한 학술적 접근」, 「조선후기 호남실학에서 하백원(河百源, 1781-1845)의 특징과 위상」 등 두 편의 글이 있다. 자명종은 같은 동복에 살던 나경적이 추동식 혼천의, 즉 자명종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으며 홍대용과 합작하여 통천의를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고, 또 거기에 규남의 증조 하영청과 그 아들 하정철도 함께 했었음을 상기할 때 규남이 자명종에 관심을 갖고 그 제작에 역량을 기울인 것은 어쩌면 당연하였다. 다만 실물이 전해지지 않아 아쉬울 따름이다.





호남학 산책
풍경의 기억
다시 보는 호남의 실학

인쇄 2022.10.27

발행 2022.10.31

저자 고석규

발행인 천득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주소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s://www.hiks.or.kr>

편집·제작 (주)스케치북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7-4

T 062-714-1776 E sketchbook@naver.com

비매품/무료

ISBN 979-11-90608-38-1

ISBN 979-11-90608-37-4 (세트)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2022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저자에게 있습니다.